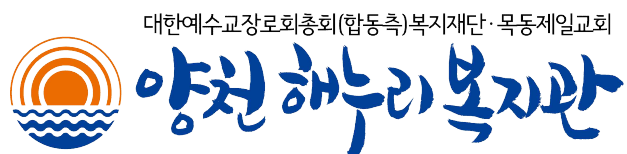

2020년 연구사업 보고서

2020. 12



Contents

2020년 연구사업 보고서

- 연구 1. 권익옹호에 관한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실천방안 모색
- 연구 2. 양천해누리복지관 학교부적응 장애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연구 3.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주도 자립생활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욕구조사
- 양천해누리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중심 -
- 연구 4.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 연구 5. 보드게임을 활용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이 의사소통 표현 향상에 미치는 영향
- 연구 6. 활동지원서비스 휴게시간에 관한 연구
- 연구 7. 양천해누리복지관만의 조직문화 형성 및 발전방안 제시
- 연구 8. 공용물품 공유시스템으로 운영비 절감방안모색

권익옹호에 관한 양천해누리복지관의 실천방안 모색

권익옹호팀 사회복지사
양현석, 박해나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II. 이론적 배경

1. 권익옹호의 이해
2. 권익옹호 관련 법률

III. 연구

1. 연구의 방법과 내용
2. 권익옹호 실천기관 사업현황

IV.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2. 제언

부록

1. 질문지
2. 설문지

참고문헌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옹호는 장애인복지관 모든 업무의 공통기반이다.’

‘옹호서비스는 복지관의 지표와 패러다임을 이동시키는 매개이다.’

2010년 초부터 장애인복지에서 ‘권익옹호’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권익옹호 실천방안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었다.

2012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발간한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은 사업별 계약 방식에 의한 권익옹호서비스를 위주로 하여, 위험이나 위기상황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이 되도록 준비해야하며, 권익옹호 서비스 영역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장애인복지관에 상대적으로 덜 익숙한 부분이라 집중적인 준비와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시하고 있다.(김용득, 2012,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2017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복지관 관련 사업을 실시하는 23개의 기관 중 지적장애인의 31.1%, 자폐성장장애인의 41.6%가 장애인복지관(단종복지관)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은 자신에게 법률적·사실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권익옹호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개념으로써 장애인복지관은 발달장애인이 권익옹호에서 배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침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14년 발생한 신안군 염전 섬노예 사건을 통해 독립적 권익옹호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노동 착취, 성폭행, 폭언·폭행 등 장애인 차별이나 학대에 대한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2020년 양천해누리복지관 이용자 욕구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4%가 장애로 인한 차별과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고, 42%가 도움을 요청하는 곳을 모른다는 응답으로 자신의 인권 침해에 대한 인식은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자기옹호를 위한 접근에 어려움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응답자의 70%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활동에 참여의사를 나타냄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를 인식할 수 있었다.

권익옹호는 권익옹호를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나 과거 신체적인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이 권익옹호를 수단으로 지속적으로 자신들의 불평등과 억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데 반해 발달장애인들은 배제되어 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2015년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에 대한 장애인권익옹호전문기관,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 권익옹호에 대한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기관이 생겨나면서 장애인복지관의 권익옹호 관련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장애당사자를 중심으로 한 권익옹호에 대해 문헌 및 연구 자료를 통해 개념을 이해하고, 실천현황을 파악하여 우리 복지관에서의 권익옹호의 방향성을 설정해 나아가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권익옹호의 이해

가. 권익옹호 개념

권익옹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어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권익은 ‘권리와 그에 따르는 이익’이며 옹호는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합쳐진 권익옹호는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지키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권익옹호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어질 수 있는데 권익옹호를 행하는 주체가 스스로라면 자기옹호와 집단옹호, 주체가 외부일 경우 시민옹호, 동료옹호, 전문가 옹호, 법률옹호, 비지시적 옹호, 전자 옹호로 분류된다.(김용득, 2012,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방안에 관한 연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권익옹호는 방법에 따라 ‘일상적 권익옹호’와 ‘독립적 권익옹호’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적 권익옹호는 장애인복지관의 모든 직원이 옹호서비스의 주체가 되도록 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그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의견을 묻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독립적 권익옹호는 장애인복지관의 권익옹호팀에 소속되거나 또는 권익옹호를 전담으로 하는 직무에 배치되어 옹호하는 것으로 주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당하거나, 법률적인 문제로 인한 개입을 요한다. 독립적 옹호자는 옹호를 수행하면서 발달장애인과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어야 하며, 옹호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하고, 옹호과정에서 부딪치게 되는 갈등과 법률적인 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충분히 되어있어야 한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사회복지에서 사용하는 권익옹호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욕구와 이익을 위해 어떤 일에 대해 주장하거나 실행하는 과정’으로 누군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말하고, 권리를 확보하고, 이익을 표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얻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로서 양자가 협력관계를 이루어 나가며 사회통합, 평등,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002, 영국 옹호현장)

나. 권익옹호의 이념적 기반

권익옹호는 누군가의 인권이 침해당했을 때 인권을 다시 확보하려는 실천 방법 중 하나이다. 억압적 상황을 다시 원상복귀 시키려는 노력이다. 이와 같은 반억압적 실천은 누군가 침묵당하지 말아야 함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다. 권익옹호의 이념적 기반으로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의 존중,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존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을 들 수 있다.

1) 장애인의 존엄성과 다양성 존중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은 사람으로서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당연한 권리이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가치이다. 인간의 존엄성은 입증의 필요가 없는 자명한 진리이다. 그리고 장애인은 인간이므로 장애인의 존엄성 역시 입증의 필요가 없는 자명한 것이다. 또한 세계 인권선언, 장애인권리협약, 우리나라의 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에서도 천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결국 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수단을 찾는 것이 필요해진다. 이런 수단 중의 하나가 권익옹호 실천이다. 이후에 논의하겠지만 권익옹호 실천은 실천방법에 따라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부터 문제의 근원이 되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까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실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장애인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어야 한다.

2) 장애인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강화

역량강화¹⁾는 이용자의 역량과 영향력을 증진시키는 과정 또는 결과를 지칭하는 용어인데, 이는 개인들 간의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개인과 사회적, 정치적 구조사이의 관계에서 사용되기도 한다. 역량강화가 옹호 실천의 한 요인일 뿐이고 그 자체로써 옹호 실천에 충분한 것은 아니지만, 장애인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량강화 실천은 부정의와 억압에 맞서고 평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여겨질 수 있다. 옹호 실천과 관련된 역량강화 실천은 세 수준에서 일어날 수 있다(Boylan & Darlymple, 2009). 첫 번째 수준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적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이용자 개인의 생각과 감정은 그들이 어떻게 불평등과 억압을 경험하는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수준에서 옹호인의 역할은 이용자가 그들의 상황에 대한 견해와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것이다. 두 번째 수준은 타인과의 교류 경험과 연관되어 있다.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에 대한 지식을 얻고 그들의 상황에 대해 고찰하게 되면, 옹호인과 함께 상황변화를 위한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되고, 동료옹호의 경우처럼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이용자와 함께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상황에 대한 인식을 확장시킬 수 있다. 세 번째 수준은 더 넓은 사회적, 정치적 구조를 바꾸려고 하는 체계적 옹호와 연관되어 있다. 이 수준에서 목표는 법률, 정책, 실천을 바꾸려는 것이다.

3) 자기결정권의 존중

자기결정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이자 인간의 존엄과 동일시되는 개념으로 삶의 전반에서 선택과 결정을 통해 일상을 통제하는 삶의 질을 위해서 필요하다(김화신, 2015). 자기결정권은 다른 사람의 강요 없이 자신의 의지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자신의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타인과 상호의존성을 인식하면서 독립을 추구하고, 자기옹호와 자기평가, 독립적인 수행과 조절 능력, 자신감, 자기신뢰, 창조성, 인내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제도에는 성년후견제도와 발달장애인 신탁 등이 있다. 성년후견제도는 질병, 노령 등으로 정신적 제약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김동현, 2019,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범죄 피해 방지, 무엇이 우선인가?) ‘발달장애인 신탁’이란 위탁자가 특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거나 처분을 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19, 발달장애인 신탁 매뉴얼)

4)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에의 도전을 통한 사회통합

차별이란 특정한 차이를 가진 개인이나 집단을 다르게 대우함으로써 심리적, 사회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다. 억압이란 억압하는 집단이 원하는 사회 조화의 필요성에 따라 일부 집단의 자율성이 훼손된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차별과 억압을 인식하고 이를 깨기 위한 하나의 시도가 자기 옹호 운동이다. 자기옹호 운동은 지적장애인들이 그들에 대한 억압을 인식하면서 시작된 사회행동이다(Nunkoosing, 2012). 이처럼 차별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권익옹호 실천이 필요한 것이고, 이들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없애는 것이 권익옹호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재활도 중요하지만 일반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교육, 인식제고 등이 더욱 중요해지는 것이다. 결국 최근의 사회통합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권익옹호 실천이 더욱 중요해진다.

2. 권익옹호 관련 법률

가. 의사소통지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부 장관은 학습에 필요한 의사소통 도구를 개발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민원담당직원이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을 명시한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의사소통 지원이 의무화됨을 알 수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 교육방면에서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함이 의무화되어있고,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정보접근에서의 차별금지’ 등을 명시하며 장애당사자의 존엄성과 가치 구현을 위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있다.

다. 장애인 이동접근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 4조에는 접근권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장애인 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장애인의 이동접근권이 단순한 편의가 아닌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으로 실현되고 있다.

III. 연구

1. 연구의 방법과 내용

가. 권익옹호 이해

- 1) 장애당사자 권익옹호의 개념을 문헌 분석을 통해 이해한다.
- 2) 권익옹호에 관련된 법률, 제도를 살펴본다.

나. 현황조사

- 1) 서남권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권익옹호 실천 현황을 살펴본다.
- 2) 우리복지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권익옹호 프로그램에 대해 분석한다.
- 3) 권익옹호 실천기관 종사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과 방향성에 대해 알아본다.
- 4) 양천해누리복지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권익옹호 실천 이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개념 및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을 진행한다.

다. 장애인의 권익옹호 실현을 위한 방안 제시

연구결과를 토대로 양천해누리복지관의 권익옹호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당사자 참여형 사업을 모색하고자 한다.

2. 권익옹호 실천기관 사업현황

권익옹호 실천기관은 권익옹호 전문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단체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 2015년 6월,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에 따른 ‘제 59조 11(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등) 1항’ 에 따르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권익옹호 실천기관이 생겨나면서 서울에 위치한 4개의 권익옹호 전문기관과 서남권 지역에 위치한 9개의 장애인복지관 현황을 알아보았다. 또한, 타 기관의 권익옹호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중 2곳을 방문하여 권익옹호사업을 담당하는 팀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양천해누리복지관 직원들이 느끼는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가. 권익옹호 실천기관

1) 권익옹호 전문기관

연번	기관명	권익옹호 사업
1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권리구제,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사업
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학대피해장애인 지원체계 구축, 인권 옹호, 장애인권교육
3	장애인권법센터	법률지원, 제도개선, 인권교육
4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상담 및 사후관리, 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서울시에 위치한 권익옹호 전문기관에 대해 살펴보고, 각 기관마다 실천하고 있는 권익옹호 사업 현황에 대해 알아보았다. 주로 권익옹호 전문기관은 장애인학대, 차별에 대응한 법률적인 지원이나 옹호 활동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다. 학대피해 장애인의 보호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독립적 권익옹호를 중심으로 실천하고 있다.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법적 절차 지원 이외에도 공공후견지원사업을 통해 후견인 선임과 후견심판청구비, 공공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이 후견인 선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자립하고, 후견인 제도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실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권익옹호 전문기관은 인권침해에 대한 전문적인 사례개입이 이루어지며, 법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어 신속한 접근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상담과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독립적 권익옹호에 대한 지원체계가 상세히 구축되어 있다. 주로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개입이 이루어지며, 독립적 권익옹호 기관으로서 중심이 되어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관

연번	기관명	권익옹호 사업
1	관악장애인종합복지관	당사자 옹호교육, 지원인 옹호교육, 피해사례 사후지원, 옹심이
2	금천장애인종합복지관	금천마을 탐험단, 편의시설 탐험단, 동네방네 행복한 문턱 없는 도시 만들기, 인권 탐험단 등
3	기쁜우리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자기주도적 프로그램(자기옹호실천), 법률무료상담 등
4	늘푸른나무복지관	자기표현훈련, 가족옹호사업, 자조모임, 청소년 역량강화·권익 옹호 프로그램 등
5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권익옹호 및 자기결정권 평생교육프로그램(총 5팀), 옹심이 등
6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행(일상옹호), 인권 평생교육 프로그램(총 3팀), 마음나누기 등
7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권익지킴이활동, 사회적응지원사업, 시민옹호, 당사자캠페인기획단, 발달장애인 권익지원연대활동 등
8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권리Keeper(권익옹호실천),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성인권 캠페인, 인권지킴이 모니터링 등
9	에덴장애인종합복지관	독립적 권익옹호 지원 등

서남권 지역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권익옹호 사업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기관에서 학대피해 장애인에 대한 독립적 권익옹호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기 옹호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상적 권익옹호의 경우, 중심으로 다양한 권리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의 주도적인 의사결정을 위한 자조모임과 인권 교육 등이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접근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사업(경사로 설치)이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지역주민과 함께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시켜 나아갈 수 있는 장애인식개선과 시민옹호 사업도 공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독립적 권익옹호에 대한 사례 개입도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다수의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권익옹호를 지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인권침해 사례에 대응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권익 증진과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일상에서의 권리 옹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복지관은 권익옹호 전문기관과 비교하여, 일상적 권익옹호를 위해 보다 많은 사업을 실천하고 있으며 사업이 지속됨에 따라 점점 발전해가고 있다.

3) 권익옹호 기관 담당자 인터뷰

앞서 서울 서남권역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되는 권익옹호 사업을 알아보았다. 권익옹호를 위해 진행되는 사업이 각기 다르며, 기관별 실천방향이나 권리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권익옹호 담당자들과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서남권 장애인복지관 2개 기관을 방문하여 관련 부서 중간관리자와 실무 담당자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전반적인 권익옹호 사업과 당사자의 참여정도를 파악하며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고 권익옹호 실천을 위한 노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지역	기관명	질문사항
서울시 (서남권)	A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옹호 관련 인력 구성 - 권익옹호 프로그램 - 참여자 의견 반영 정도 - 독립적 권익옹호 지원 방향 - 관내 종사자 권익옹호 인식 현황
	B장애인복지관	

* 권익옹호 팀 구성

기관명	현황
A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관리권익옹호팀 별도 운영 - 권익옹호 사업 담당자 1명을 중심으로 관내 타 팀과의 협업 진행 - 각 팀에서 진행되는 권익옹호 사업에 개입하며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될 수 있도록 실무자와 지속적인 소통
B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생태계팀을 기반으로 권익옹호 사업 운영 - 인권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팀원마다 권익옹호 사업 진행(자조모임 등)

*** 장애당사자 대상 권익옹호사업**

기관명	현황
A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인형극, 유니버설디자인단, 인권교육 진행 등 장애당사자의 자기옹호를 위한 다양한 일상적 권익옹호 사업 진행 - 주로 주5일반(직업반, 아카데미) 참여 대상자를 중심으로 진행 - 대상자의 인지등급에 따라 개입하여 교육자료, 환경을 다르게 함. - 독립적 권익옹호 : 주로 예방과 연계에 따른 지원이 진행.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권익옹호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사례 지원
B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옹호와 사후옹호로 나누어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자기옹호를 위한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 운영(사전옹호) - 지역사회 정착한 발달장애인을 중심으로 탈시설 당사자 모임, 멘토링 등 운영(사후옹호) - 독립적 권익옹호 : 초기개입 시, 사례관리팀과 연계하여 지원.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관내 인권위원회에 속한 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거나 권익옹호 전문기관에 연계하여 사례 지원

*** 지역주민 대상 권익옹호사업**

기관명	현황
A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유관기관에서 담당자를 통해 권익옹호 교육 실시 - 기관 자체에서 3턱없는 마을(AAC, 장애이해, 경사로)이라는 슬로건으로 마을 만들기 진행 - 장애당사자와 지역주민이 팀을 이뤄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탐험단을 함께 협력하여 진행
B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사회 연대활동을 통해 환경변화와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 중에 있음. - 장애당사자와 함께 지역 내 다양한 장소를 방문하고, AAC나 이동권에 대한 필요성을 알림. - 장애로 인한 불편함이 사라져 지역공간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예: 무장애놀이터 만들기, 시민사회단체 부스참여 등) - 시민옹호 양성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장애인 옹호활동 진행

*** 권익옹호에 대한 종사자들의 인식**

기관명	현황
A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사자들의 인식 향상을 위해 다년간 지속적으로 권익옹호 교육 진행 - 이를 토대로 각 팀 권익옹호 사업 담당자들과 인권교육을 듣고, 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방향 논의 - 팀 간 협력이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권익옹호 담당자의 중재로 지속적인 소통을 하여 종사자들의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을 점차 높여나가고 있음.
B장애인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옹호에 대한 관점이 종사자마다 다르며, 다년간 지속적인 인권 교육 진행 - 팀 간 협력을 중요시하며, 인권생태계팀을 중심으로 권익옹호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 - 솔루션위원회, 인권위원회, TF, 학습소모임 등을 통해 권익옹호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마련 - 기관 모든 종사자가 노력하고 실천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음.

위와 같이 2곳의 장애인복지관을 방문하여 권익옹호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권익옹호 사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인터뷰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대상자와 환경에 따라 사업의 방향이 다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독립적 권익옹호의 경우, 초기 사례에 대한 개입 및 전문기관 연계의 과정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권익옹호 전문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인권침해에 대한 사례에 대해 대응하며, 전문적인 법률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지원하고 있다.

일상적 권익옹호의 경우, AAC를 통한 의사소통 능력 향상과 이동 편의 증진에 대한 사업을 공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의 자기옹호를 위한 프로그램과 장애당사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여 권익옹호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있다. 관내 장애당사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인권 교육을 통해 권익옹호에 대한 역량을 높이고 있으며, 자기결정권 프로그램을 통해 당사자의 주체성을 높이고 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시민옹호양성교육을 통해 당사자의 일상생활 속 옹호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선택과 결정을 지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가 지역으로 나아가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교류하고, 권익에 대한 개념을 상호 간 인지하고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종사자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두 기관은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권익옹호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종사자 모두가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전문성을 향상시켜 권익옹호 실천 방안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관에서 독려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간 실무자 모임, TF회의, 학습소모임 등을 통해 인권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나. 양천해누리복지관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서남권의 권익옹호 전문기관과 장애인복지관에서는 다양한 권익옹호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양천해누리복지관 역시 권익옹호 사업의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업명		내용
독립적 권익옹호		- 대상 :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는 장애인과 가정 - 내용 :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정에 대한 독립적 옹호활동을 통한 문제해결
일상적 권익옹호	시민옹호	- 대상 : 지역사회 활동을 희망하는 장애인과 가족 - 내용 : 장애인가정의 욕구에 따른 개별옹호 시스템을 통해 지역사회 참여 증진
	유니버설 디자인단	- 대상 :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성인 장애인 - 내용 : 장애당사자가 지역사회 내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선정회의 참여, 모니터링에 참여하며 이동약자의 이동권에 대한 관심도 증진
	해누리청년 대학 인권교육	- 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 내용 : 교육을 통해 장애 당사자의 개별적인 강점 발견 및 사회적응능력 향상
	전문직종훈련 소그룹회의	- 대상 : 성인 발달장애인 - 내용 : 다양한 활동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함.

사업명		내용
	이용자 권리교육	- 대상 : 장애인과 보호자 - 내용 : 장애인 권익에 대한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성인권 교육	- 대상 : 장애인과 보호자, 직원 - 내용 : 성교육, 성인권 지원에 대한 교육

독립적 권익옹호는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정을 대상으로 상황접수, 사정, 옹호계획의 수립, 옹호지원, 평가 및 종결의 절차를 통해 지원한다.

먼저, 당사자의 신청이나 지역사회 서비스 의뢰를 통해 상황을 접수하고, 관계형성을 통해 명확하게 상황을 확인한다. 사정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한 후 방향을 검토하며 계획수립을 통해 구체적인 개입 방안을 설정하며 이후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옹호를 지원하고 목표에 따른 문제가 소거되었을 시 종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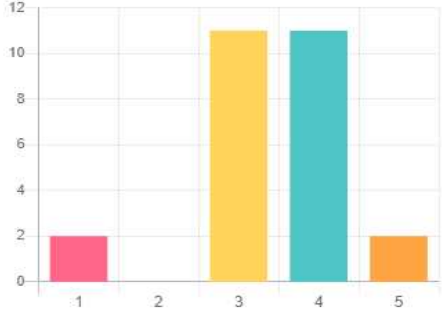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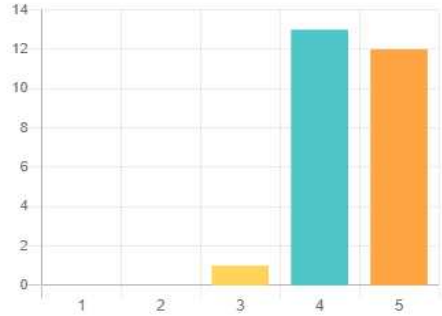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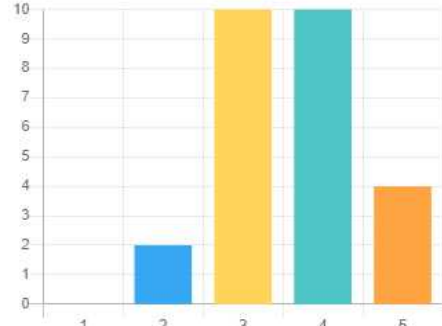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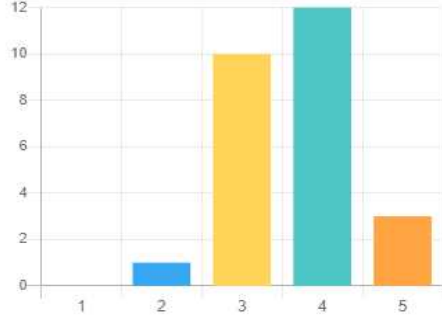
일상적 권익옹호는 여러 사업에서 다양하게 실천되는데 신체적인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유니버설 디자인단이 운영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권교육, 소그룹회의, 성인권교육 등이 진행되고 있다. 장애 유형에 관계없이 시민옹호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으며 장애인과 보호자, 직원을 대상으로 이용자 권리교육과 성인권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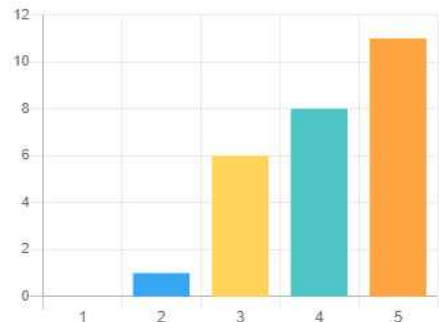
이처럼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권익옹호 실천을 위해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권익옹호에 대해 종사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장애인복지관의 권익옹호는 명확한 개념규정이 쉽지 않아 종사자 개개인이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익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가고 있다.(이세희, 최윤영, 2018,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에 대한 실천적 인식 연구) 이번 연구 사업을 토대로 향후 양천해누리복지관의 권익옹호에 대한 개념을 설정하고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번	질문
1	나는 권익옹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2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권익옹호와 관련된 사업이다.
3	장애인복지관에서 권익옹호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양천해누리복지관은 권익옹호 관련 전문 기관이다.
5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기옹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6	종사자들의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7	나는 권익옹호관련 교육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8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000이다.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1월 5일부터 9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26명(52%)이 응답하였다. 객관식 질문에 대해서는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분석하였고, 주관식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념형(꼭 필요한 것, 지켜주는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 실천해야 하는 것)으로 분류하였다.(이세희, 최윤영, 2018,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익옹호에 대한 실천적 인식 연구)

<p>1. 나는 권익옹호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Scale</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2</td> </tr> <tr> <td>2</td> <td>0</td> </tr> <tr> <td>3</td> <td>11</td> </tr> <tr> <td>4</td> <td>11</td> </tr> <tr> <td>5</td> <td>2</td> </tr> </tbody> </table>	Scale	Count	1	2	2	0	3	11	4	11	5	2	<p>전체 26명 중 11명(42%)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보통이다’가 11명(42%)이 뒤를 이었다. ‘전혀 모른다’가 2명(8%),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가 2명(8%)으로 전반적으로 권익옹호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Scale	Count												
1	2												
2	0												
3	11												
4	11												
5	2												
<p>2. 장애인복지관에서 권익옹호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Scale</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r> <tr> <td>2</td> <td>0</td> </tr> <tr> <td>3</td> <td>1</td> </tr> <tr> <td>4</td> <td>13</td> </tr> <tr> <td>5</td> <td>12</td> </tr> </tbody> </table>	Scale	Count	1	0	2	0	3	1	4	13	5	12	<p>응답자의 96%(25명)가 그렇다고 답해 권익옹호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대다수의 직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
Scale	Count												
1	0												
2	0												
3	1												
4	13												
5	12												
<p>3. 양천해누리복지관은 권익옹호 관련 전문 기관이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Scale</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r> <tr> <td>2</td> <td>2</td> </tr> <tr> <td>3</td> <td>10</td> </tr> <tr> <td>4</td> <td>10</td> </tr> <tr> <td>5</td> <td>4</td> </tr> </tbody> </table>	Scale	Count	1	0	2	2	3	10	4	10	5	4	<p>응답자의 39%가 ‘보통이다’, 54%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직원들이 기관에 대해 권익옹호 관련 전문성이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Scale	Count												
1	0												
2	2												
3	10												
4	10												
5	4												
<p>4.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기 옹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p>  <table border="1"> <thead> <tr> <th>Scale</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r> <tr> <td>2</td> <td>1</td> </tr> <tr> <td>3</td> <td>10</td> </tr> <tr> <td>4</td> <td>12</td> </tr> <tr> <td>5</td> <td>3</td> </tr> </tbody> </table>	Scale	Count	1	0	2	1	3	10	4	12	5	3	<p>응답자의 58%(15명)가 ‘그렇다’고 답해 복지관이 다양한 권익옹호활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p>
Scale	Count												
1	0												
2	1												
3	10												
4	12												
5	3												

<p>5.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권익옹호와 관련된 사업이다.</p>  <table border="1" data-bbox="279 353 719 674"> <thead> <tr> <th>Rating</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3</td> </tr> <tr> <td>2</td> <td>3</td> </tr> <tr> <td>3</td> <td>6</td> </tr> <tr> <td>4</td> <td>10</td> </tr> <tr> <td>5</td> <td>4</td> </tr> </tbody> </table>	Rating	Count	1	3	2	3	3	6	4	10	5	4	<p>응답자의 54%(14명)가 ‘그렇다’고 답했으나, 23%(6명)가 ‘보통이다’고 응답했고, ‘그렇지 않다’가 23%(6명)로 권익옹호에 대한 업무기인성이 적다고 느끼는 직원이 생각보다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Rating	Count												
1	3												
2	3												
3	6												
4	10												
5	4												
<p>6. 종사자들의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p>  <table border="1" data-bbox="279 779 719 1099"> <thead> <tr> <th>Rating</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r> <tr> <td>2</td> <td>1</td> </tr> <tr> <td>3</td> <td>6</td> </tr> <tr> <td>4</td> <td>8</td> </tr> <tr> <td>5</td> <td>11</td> </tr> </tbody> </table>	Rating	Count	1	0	2	1	3	6	4	8	5	11	<p>응답자의 73%(19명)가 ‘그렇다’고 답해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
Rating	Count												
1	0												
2	1												
3	6												
4	8												
5	11												
<p>7. 나는 권익옹호관련 교육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p>  <table border="1" data-bbox="279 1205 719 1525"> <thead> <tr> <th>Rating</th> <th>Count</th> </tr> </thead> <tbody> <tr> <td>1</td> <td>0</td> </tr> <tr> <td>2</td> <td>1</td> </tr> <tr> <td>3</td> <td>4</td> </tr> <tr> <td>4</td> <td>12</td> </tr> <tr> <td>5</td> <td>9</td> </tr> </tbody> </table>	Rating	Count	1	0	2	1	3	4	4	12	5	9	<p>응답자의 81%(21명)가 ‘그렇다’고 답해 권익옹호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도가 매우 높으며, 참여에 대한 욕구 또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p>
Rating	Count												
1	0												
2	1												
3	4												
4	12												
5	9												
<p>8.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란?</p>													
<p>권익옹호는 자기결정이다. 왜냐하면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활동들이 권익옹호 활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역량강화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장애인들의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제반 활동 모두가 권익옹호활동이라고 생각한다.</p>													
<p>권익옹호는 권리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p>													
<p>권익옹호는 평범한 일상이다. 장애로 인한 제약과 한계를 뛰어넘어 평범한 사람들과 다름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게 하는 게 권익옹호라고 생각합니다.</p>													
<p>권익옹호는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주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의 힘이 되고 함께 해줄 곳이 우리 주위에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p>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나의 결정권을 지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권익옹호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권익옹호는 복지관 이용자의 눈, 귀, 손, 발이다! 왜냐하면 눈으로 사람들의 일상을 확인하고, 귀로 사람의 말을 공감해주고 마음을 위로해주고, 귀로 이용자의 삶의 일상을 들어주고, 손으로 사람들의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발로 함께 이용자와 함께 뛰니까 저는 권익옹호는 눈, 귀, 손, 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장애인의 참여이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이 참여를 많이 할수록 자기 결정권이 생기고 자기결정의 기회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지역사회에서의 구성원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권익옹호는 권리다.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 또한 수많은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나를 사랑하고 알고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모두가 함께 해야 하는 행복을 향한 발걸음이다. 왜냐하면 권익옹호가 장애인 당사자의 노력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이 함께 노력해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때 장애인과 비장애인간의 더욱 가까워지고 행복을 향해 더불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자유로운 삶이다.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자신의 권리를 갖고 살아가야하기 때문이다.
권익옹호란 나 자신을 찾는 것. 아무리 많은 자원을 연계하고, 많은 서비스를 받아도 본인의 의사를 밝히고 권익을 실현할 수 없다면 자기 자신을 찾기 어렵다고 느껴서.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일상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존재해야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나 자식을 위해 또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
권익옹호는 목소리이다. 왜냐하면 나의 권리를 찾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이다.
권익옹호는 기본적인 권리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누려야 할 권리기 때문이다.
일상생활에서 지켜져야 하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권리
이용자분들의 의사표현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 위한 환경 구축 장애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거나, 지역사회에서 불편하게 생활하는 당사자들이 많습니다. 권익옹호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당사자의 입장에서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종사자부터 변화하면서 모두가 공평하게 살기 위한 권익옹호를 실현해 나아가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자기결정권이다. 왜냐하면 결국은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운동가이다. 왜냐하면 마음지향을 일깨내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을 시도하기 때문이다.
권익옹호는 존중이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당연함.
운동화이다. 왜냐하면 슬리퍼를 신거나 샌들을 신으면 오래걸기 어렵지만 운동화를 신으면 편하게 오래 걸을 수 있다. 권익옹호도 마찬가지로 오래, 편안하게 걷기 어려운 이용자들을 오래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함께하는 버팀목이다! 왜냐하면……. 타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묵묵히 지켜주고 때로는 흔들리는 이용자를 붙잡아줘야 하기 때문이다!

설문 결과를 분석해보면 권익옹호에 대한 이해도는 전반적으로 높았으며, 권익옹호사업 및 교육의 필요성과 참여 의사를 묻는 질문에 대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권익옹호가 자신의 업무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권익옹호를 이념형(꼭 필요한 것, 지켜주는 것)보다는 실천형(함께하는 것, 실천해야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았다.

IV. 제한점 및 제언

1.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중심으로 타기관 담당자와 인터뷰를 실시하고, 양천해누리복지관 종사자들의 인식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러나 장애인 권익옹호에 대한 향후 실천 방안을 제시하기에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는다.

첫째, 실천현황 조사 시에 서울 서남권지역이라는 제한을 두었기에 전반적인 권익옹호 기관에서 진행되는 사업의 현황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둘째, 장애인복지관의 권익옹호 담당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기에 해당 기관 권익옹호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를 반영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다.

셋째, 양천해누리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전체 50명의 직원 중 52%(26명)가 응답하여 전체 직원의 견해를 대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헌을 바탕으로 권익옹호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필요성을 알고, 서남권 권익옹호 관련 전문기관의 권익옹호 사업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 사업 전문가 인터뷰와 양천해누리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양천해누리복지관의 권익옹호 실천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역할 및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권익옹호 실천을 위해 종사자의 인권내재화와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권익옹호는 장애인복지 전 영역에서 실천되어야하는 개념으로 개별사업에 따라 실천방안이 달라질 수 있지만 배제할 수 없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권익옹호에 대한 필요성은 느끼고 있으나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대다수의 직원이 공감하고 있었으며, 교육에 대한 참여의사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권익옹호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이해도에 따라 소규모 교육과 집체교육을 통해 권익옹호에 대한 직원들의 내재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권익옹호 사례에 대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독립적 권익옹호는 일상적 권익옹호와 다르게 긴급 위기상황의 개입, 법적인 사안 등을 지원하기위해 신속성, 정확성을 필요로 한다. 사례 관리지침의 경우 우리 복지관 운영지침 내 신청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8단계에 거쳐 개입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고, 각 단계별 세부 시행조항과 별도의 양식이 명시되어 있다.

권익옹호 역시 접수되었을 때 당사자를 보호하고 개입할 수 있도록 지침 제작,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보다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개입과정에 있어 신속성과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권익옹호 전문기관과 협약을 진행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권익·인권을 위한 즉각적인 개입시스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당사자가 권익옹호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 현재 양천해누리복지관 및 다양한 장애인복지기관에서 일상적 권익옹호에 대한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권익옹호에 대한 반복적인 교육, 일상에서 자기옹호를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접근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사회 내 장애인에 대한 학대침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2020년 우리복지관 욕구조사에 따르면 차별과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 라고 답변한 비율이 응답자의 36%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인권에 대한 접근과 시도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당사자의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은 아직 미비한 실정임을 파악할 수 있다.

우리복지관은 장애당사자의 관심과 역량을 강화시켜 일상적 권익옹호 프로그램을 통해 주체적으로 인권에 대한 목소리를 내어 지역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욕구조사에 따르면 장애당사자의 권익옹호 교육 및 행사에 대한 참여 희망 비율이 6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권익옹호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대상자의 특성과 환경에 따른 반복적인 훈련과 인지등급에 따른 지원 등 대상에 따른 개입의 정도를 다르게 하여 보다 접근하기 쉬운 권익옹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권익옹호에 대한 지역사회의 환경변화가 필요하다. 우리 복지관은 2017년부터 이동약자인 장애인 물리적 접근성 향상을 향상시켜 지역사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을 진행해왔다. 장애인 당사자와 보호자로 이루어진 유니버설디자인단은 지역사회 곳곳을 누비며 편의시설이 미흡한 시설물을 발굴하고, 설치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고 설치 후 모니터링을 수행해왔다. 이들의 활동은 지역사회에 장애인의 권익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장애인의 이동권과 정보접근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장애인 당사자와 종사자의 역량강화와 더불어 지역사회의 환경변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에서 권익옹호 실현이 가능할 것이다.

부록

1. 질문지

- 권익옹호 실천기관 종사자 인터뷰 질문지

연번	내 용
1	- 장애인의 권익을 위한 별도의 팀과 인력 구성.
2	- 장애인 스스로의 자기옹호, 목소리를 높이기 위해 복지관에서는 어떠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권익옹호 프로그램 범주)
3	- 참여자의 변화 : 권익옹호 프로그램 참여자들의 자신들의 인권에 대한 생각 및 참여도 등의 변화과정. - 대상 : 프로그램 참여 주요 대상(발달장애인 혹은 지역사회 모든 장애인), 참여자 선정 과정 등
4	- 프로그램 내에서 이용자의 의견(자기결정)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반영되고 있는지.
5	- 장애인 당사자의 법적문제, 인권과 관련한 피해가 있거나 문제 발생 시 지원과정.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협력 체계 - 권익옹호 사업과 관련한 지역사회 내 자문체계가 구축되었는지.(법률상담, 인권침해 등의 사례에 따른 지원방법)
6	- 담당자의 권익옹호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노력과 시도(슈퍼비전 체계)가 있었는지.

2. 설문지

- 양천해누리복지관 종사자의 권익옹호 실천 이해 설문

\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지않다
1. 나는 권익옹호의 개념을 이해하고 있다.					
2. 장애인복지관에서 권익옹호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양천해누리복지관은 권익옹호 관련 전문 기관이다.					
4. 양천해누리복지관은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자기옹호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5.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은 권익옹호와 관련된 사업이다.					
6. 종사자들의 권익옹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 필요하다					
7. 나는 권익옹호관련 교육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					
8. 내가 생각하는 권익옹호는 000이다. (주관식)					

참고문헌

- 김용득, 2012, 장애인복지관의 지적장애인 권익옹호 실천방안에 관한 연구
- 통계청, 2017, 장애인복지관련 사업 실시기관 이용경험
- 김동현, 2019,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범죄 피해 방지, 무엇이 우선인가?
- 한국자폐인사랑협회, 2019, 발달장애인 신탁 매뉴얼
- 이세희, 최윤영, 2018,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실천적 인식 연구

양천해누리복지관
학교부적응 장애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통합발달팀 임상음악전문가
권진숙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청소년의 학교부적응
2. 자아탄력성
3. 음악심리활동(음악치료)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측정도구
3. 연구절차
4. 연구의 제한점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사회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며 성장해 나간다. 이 과정에서 학습된 사회적 기술은 한 개인이 독립된 생활환경에서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며 성공적인 성인기를 보내기 위한 근간이 된다. 주변 환경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배우는 사회적 기술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Reichman, Bowen, & Woolley, 2004; 이영애, 정현희, 2016에서 재인용). 특히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 생활 공간이며, 사회 속에서 상호작용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확립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성공적인 생활방식을 습득하는 작은 사회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청소년기는 그 발달특성상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변화해가는 과도기적 상태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자율성 추구, 또래 지향,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성에 대한 관심, 인지능력의 증가와 같은 발달 특성을 보인다. 이처럼 청소년기는 다른 발달단계보다 가장 변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성취해야 할 발달과제가 많아 여러 가지 적응상의 어려움을 직면하게 된다(김지선 외, 2007). 이와 함께 고등학교 환경에서는 상대적으로 엄격한 학교 규율, 교과전문 교사의 수업 진행에 따른 교사-학생 간 친밀감 저하, 학업 부담의 증가와 상대평가에 따른 경쟁심화로 인해 청소년기 학생들은 더 많은 학교부적응을 경험하게 된다(엄선영, 이강이, 2012).

장애학생들도 비장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사춘기 학생이 겪는 공통적인 적응의 어려움을 겪지만 이들에게는 청소년기의 고유하고 공통적인 문제와 장애로 인한 독특하거나 개별적인 문제가 중첩되어 나타날 수 있다(Park, 2008; 박승희 외, 2012에서 재인용). 학교 규모가 커져 복잡해진 환경에서 교실을 찾아가는 이동 문제와 많은 구성원과 같은 물리적 변화는 특수학급 학생에게 학교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줄 수 있으며, 많아진 교과내용과 어려운 학습수준으로 학업성취에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사회적 기술과 또래관계 형성 및 의미 있는 상호작용의 부족은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한하여 학교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한다. 학교생활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활동과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에 적응한다는 것은 학생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대인관계를 포함한 모든 사회적 상황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환경을 적절히 변화시키며, 그 상황에 대해 스스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즉 학생들이 교과활동, 학급활동, 특별활동, 학교 행사 등에서 자기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여 만족감을 느끼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며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가 잘 조화되어 만족스런 상태에 있을 때 학교생활 적응이 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학생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해 전반적인 발달이 늦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및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어려움은 학교생활부적응으로 이어져 불안과 공격행동뿐만 아니라 심리적 긴장, 절망과 같은 부정적 감정, 정서-행동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유봉애, 옥경희, 2013; 이원령, 2015). 최근 장애학생들의 학교부적응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됨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크게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적 요인은 개인의 내적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자아 존중감, 자아 효능감, 자아탄력성, 자아개념, 학습동기

등을 들 수 있고, 환경적 요인은 학생의 생활환경이 되는 가정과 학교와 같은 환경이 될 수 있으며 생활환경에서 만나는 주변인의 인식이나 태도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이루어진 연구는 장애유형별, 장애정도별 특수학급 학생들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며 경도지적장애가 지적장애의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가벼운 지적장애로 인식되어 경도지적장애학생에 대한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본관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음악심리활동 프로그램에 대한 상담을 원하는 청소년의 80%가량이 본격적으로 경쟁과 사회적 발달을 이루어야 하는 학령기가 되면서부터 왕따, 놀림, 괴롭힘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그로인해 청소년기가 되면 우울증이나 불면증으로 인해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 하지만 심리·정서적 상담 및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약물만 복용하는 상태는 약물 없이는 건강하고 독립된 인격체로 생활하기 어렵고 약물에 따른 부작용으로 긍정적인 사회적응의 가능성이 제한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이는 자아개념 형성에 대한 제한을 두기도 하지만 상황에 따른 스트레스에 쉽게 위축되고 불안하게 되며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자아탄력성에 제한점을 가지고 온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통한 자아탄력성의 회복으로 사회적응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함으로써 학교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장애청소년의 학교부적응

적응(adjustment)의 어원을 살펴보면 ‘adjustment’는 라틴어에서 ‘방향’을 나타내는 접두사인 ad와 ‘올바른, 정확한’의 의미를 가지는 형용사 just의 합성어이다. 즉, 적응은 올바른 방향이라는 규범적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적응은 순응이라는 용어와 비슷하게 사용되어지지만 정확히는 구별하여 설명될 수 있다. 적응이란 유기체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환경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순응이란 환경을 통제하려하지 않고 환경에 자신을 맞추려는 것을 의미한다.(정영홍, 1984). 때문에 심리학적 차원에서는 적응이 실제의 요구에 대한 순응의 의미보다는 주변 환경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위한 행동과정이라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며(김형철, 2000) 이러한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의존적 과정은 개인의 감정과 관련된 심리적 적응 또는 주위 관계와 개인의 행동과 관련되어지는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할 수 있다(변순용, 손경원, 2011). 적응을 통하여 개인과 환경 사이의 관계를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좌절감, 갈등, 스트레스 등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고 개인의 삶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어야한다(김용래, 2000).

지적장애 학생은 인지적기능이 낮고, 적응행동 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비장애학생들에 비해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가 현저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적장애 학생의 부적응문제와 관련한 연구에 의하면 지적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부적응 행동검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공격행동, 반사회적 행동, 반항행동, 신뢰성 없는 행동, 위축행동, 이상한 버릇, 부적절한 대인관계 예법, 줄지 못한 발성습관, 이상습관 및 성향, 과잉행동 성향, 즉흥적 행동 등에서 비장애학생보다 지적장애 대상에게 더 많이 발견된 행동이 53%를 차지한다고 하였다(한송이, 2003).

지적장애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양상 및 그 원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적장애 학생들은 사회성 발달에 있어서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적응능력의 부족으로 여러 상황에서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 특히 자기 지향성, 책임감, 사회적 기술 등의 부족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나타내며 그로 인해 주위사람들로부터 거부당하는 것을 볼 수 있다(김정란,2007). 둘째, 언어발달의 지연이나 제한된 어휘, 정확하지 못한 문법 등의 언어문제로 인하여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으며 이는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준다. 셋째, 심리·사회적 적응 기제의 문제로 인하여서 학교생활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 지적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인간으로서의 기본욕구를 지니지만 장애로 인하여 정서적 안정과 욕구가 더 강할 수 있으며, 이는 또래와 교사의 거부감정 표출, 전달로 인한 혼란, 반복된 실패로 인한 좌절, 고립감 등으로 인해 욕구가 좌절되면 정서적 충격과 함께 부적응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하지 못해 타인에게 의존하는 의존적 기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또한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이명규,2001).

많은 지적장애 학생의 경우 지적인 결함보다 정서적 결함으로 인해 더 무기력해져 가며 다른 심리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그리고 이는 부모 및 교사, 또래의 태도에 따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여 비행, 범죄 등 사회문제까지 유발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지적장애 학생들의 학교적응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가족, 학교, 또래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상담 및 치료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2.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이란 Garmezy(1983)와 Rutter(1985)에 의해 처음 언급되어졌으며 부정적 상황과 스트레스 상황에서 긍정적 기능을 하고 스트레스에 있어 저항적인 아동들의 특징을 개념화하며 사용되어진 용어이다. 자아탄력성(Ego-Resilience)은 적응을 필요로 하는 스트레스의 영향에서 이전의 자아통제수준으로 변화시키는 역동적 능력을 의미하며, 탄력성(Resilience)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다(Block & Kremen, 1996; Block, 1982). 외적, 내적 긴장에 유연하고 풍부하게 적응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며, 내적, 외적 스트레스원, 상황적 요구, 환경 속에서 경험하는 사건들 등에 반응 시의 지각 및 인지, 행동전략을 역동적으로 조절할 때 시작된다. 이처럼 자아탄력성이란 급격하게 변화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신에게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문제해결과 동시에 절망과 좌절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다(진선경, 2016).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들일수록 스트레스 상황에 효율적으로 적응하며 적절한 동기조절을 하고, 상황해결을 위해 적극적이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구조적으로 인식하고 타인에게 지속적 관심을 얻으며 개인의 긍정적 신념을 유지할 수 있으며 불안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아 낯선 경험에 개방적이며 적절한 자아통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자아탄력성이 낮은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 정서를 조절하고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문제나 갈등해결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Block & Block, 1980; Huey & Weisz, 1990; Connell-Higgin, 1983; Klohnen, 1996).

3. 음악심리활동(음악치료)

미국음악치료협회(AMTA)에서 정의되어지는 음악치료란 “치료적 목적을 가지고 정신과 신체건강의 복원, 유지, 향상을 위하여 음악을 사용하는 행위”로 다시 말해 음악적 경험을 도구로 변화를 이끌어내는 치료의 방법이다(Brucia, 1987). 음악의 요소인 리듬, 선율, 화성, 화음, 노래가사 등을 자극제로 사용하여 활동을 유도하고 치료효과를 달성하며 음악에 대한 과학적 연구를 통하여 치료에 음악을 제공한다(안진형, 2011).

지적장애인들은 언어습득과 활용에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이는 심리적 위축을 유발하여 자기표현과 대인관계에서도 갈등이 야기되어 학교생활의 적응과도 연결되어진다. 음악치료는 언어 표현에 제한이 있는 대상에게 음악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느낌, 감정을 표현하며 내면을 살펴볼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음악치료의 여러 기법 중 치료적 노래 부르는 자신의 목소리를 사용함으로써 긍정적 자기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며 자신의 가치 발견과 자신감의 향상을 이끌 수 있으며 노래의 가사에 포함되어진 상징, 은유, 비유 등의 표현은 인지하지 못했던 감정과 생각을 수용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가사에 포함되어진 메시지들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분석하며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질서 있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돕고 이는 낮은 자존감, 부정적 자아형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라고 보고된다(이민화, 2013). 노래를 부르고 노래가사를 자신의 생각으로 바꾸어 개사하기는 자신의 감정 및 생각을 반영하여 다른 가사로 바꾸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좀 더 명확하게 규명하여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감정 표현뿐만 아니라 성공의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도우며 내면의 부정적 정서와 사고를 스스로 살펴보고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통하여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구윤경, 2017). 또한 가사토의는 특정가사, 노래의 주제 등에 대하여 그룹원들과 이야기하는 활동으로 내면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여 수용함으로써 문제해결방법과 주의전환을 가져올 수 있으며 그룹원과의 유대감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최소림, 2006). 악기연주는 개인의 연주기량을 증가시키는 목적이 아닌 집단 연주활동으로 음악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체성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합주를 통해 타인의 연주 수용과 지지를 익히고 소속감을 경험함으로써 타인과의 긍정적 경험의 기회를 제공받으며 사회적 차별과 고립감을 줄일 수 있다(장윤정, 2017). 위의 활동들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음악 만들기를 수행하는데, 이는 언어적 표현과 음악적 표현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도우며 창작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자신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음악의 선율진행, 리듬변화 등을 통하여 스스로의 감정과 내면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우며 창작물 자체만으로 지지와 수용을 경험하게 된다(윤다솔, 2015).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단일대상사례연구로서 대상은 음악심리활동에 참여중인 경도지적장애 여고생이다. 고등학교2학년을 기점으로 학교적응의 어려움에 따른 긴장, 불안 및 우울로 학교를 자퇴하였으며 무기력하고 의욕이 없고 외부와의 단절 상태로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가 개별음악 심리활동프로그램에 의뢰되었다. 2020년 3월부터 일반학교 특수학급 3학년에 복학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휴관 및 휴강이 16주간 있었으며 휴관 및 휴강기간에는 유선상으로 생활 상태에 대한 점검 및 언어적 개입이 이루어졌다.

2. 측정도구

음악심리활동 프로그램 전과 후에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 척도를 평가하였으며 측정의 정도가 명확하지 않고 문자화된 검사에 학교시험처럼 거부감과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 그림검사를 추가로 실시하였다.

가.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을 측정하기 위하여 민병수(1991)가 Hernandez의 연구를 바탕으로 수정 보완한 척도를 김용래(2000)가 연구하고 박솔지(2010)가 새롭게 재구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24개 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인 학교에 대한 흥미(5문항), 학교수업(6문항), 교사관계(3문항), 교우관계(5문항), 학교규범준수(5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5점 척도(Likert Scales)의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보통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매우 그렇다(5점)로 평가한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생활적응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개발자의 신뢰도는 <표 1>과 같다.

<표 1> 학교생활적응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과 신뢰도 *()는 역채점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학교에 대한 흥미	(1), 2, 7, 16, (19)	5	.756
학교수업	3, (4), 5, (9), 17, 21	6	.687
교사관계	6, 8, 15	3	.671
교우관계	(11), 13, (22), 23, 24	5	.656
학교규범준수	10, (12), (14), (18), (20)	5	.740
전체		24	.821

나. 자아탄력성

자아탄력성을 측정하기 위해 O'Connell-Higgins(1983)와 Block과 Kre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 검사(Ego-Resiliency Scale: ER)를 박은희(1996)가 수정 보완하고 김현옥(2010)이 새롭게 재구성 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33개 문항으로 5개의 하위영역인 친구관계(7문항), 활력성(7문항), 감정통제(5문항), 호기심(8문항), 낙관성(6문항)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커트식 4점 척도(Likert Scales)의 전혀 아니다(1점), 가끔 그렇다(2점), 자주 그렇다(3점), 항상 그렇다(4점)로 평가한다. 합산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탄력성의 하위영역별 문항구성과 개발자의 신뢰도는 <표 2>와 같다.

<표 2> 자아탄력성척도의 하위영역별 문항과 신뢰도 *()는 역채점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친구관계	1, 6, 10, 15, 20, 23, 30	7	.801
활력성	2, 7, 11, 16, 21, 24, 26	7	.796
감정통제	(3), 12, 17, 27, 31	5	.551
호기심	4, 8, 13, 18, 22, 25, 28, 32	8	.726
낙관성	5, 8, 14, 19, (29), (32)	6	.700
전체		33	.920

다. 그림검사

문자를 활용한 검사에서 수검자가 거부반응(학교에서 보는 시험같이 여기는 듯 보였음)을 일으켜 그림검사를 추가로 진행 하였다. HTP는 종이와 연필을 사용해 쉽고 간편하게 실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사 검사이다. HTP의 효시는 구디너프(Goodenough, 1926; 이우경, 이원혜, 2012에서 재인용)가 개발한 인물화 검사(Drawing A Person Test, DAP)인데, DAP는 본래 아동들의 지능을 간편하게 측정할 목적으로 사용되었지만 이후 투사적 성향 검사로서의 유용성이 확인되어 널리 사용되었다. 벅(Buck, 1948; 이우경, 이원혜, 2012에서 재인용)은 이를 HTP로 확장하고 양적인 채점 체계도 개발했다. DAP, HTP 같은 그림 검사에서는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그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는 내면의 욕구, 감정, 생각, 환경 또는 자신에 대한 경험 및 지각 등이 투사된다고 가정한다(심리학용어사전, 2014. 4.).

3. 연구절차

본 프로그램의 제공기간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년 1개월이며 주2회 30분으로 진행하였다. 초기 입급시 검사를 거부하여 관계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 입급 후 2개월에 사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 사후 검사를 실시함으로 변화도에 대해 측정했다.

4. 연구의 제한점

1년 1개월의 연구기간을 두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부터 약16주간 휴관이 진행되면서 초기관계형성 이후에 프로그램 진행에 공백이 발생하였다. 유선상으로 모에 대한 상담과 이용자에 대한 안부 및 생활태도에 대한 점검이 있었으며 모가 상담에 대한 거부를 보여 가정에서 생활하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학습에 대한 어려움과 거부를 보여 학교 시험을 상기시키는 측정도구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었다.

IV. 분석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음악심리활동 프로그램 통해 학교부적응 장애청소년의 자아탄력성 향상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다. 자아탄력성 척도와 학교생활 적응 척도 및 그림검사를 사용해 사전과 사후를 비교 분석하였다.

1. 자아탄력성 척도

<표 3> 자아탄력성 척도에 따른 사전·사후 분석 결과

하위요인	친구관계	활력성	감정통제	호기심	낙관성
사전	14	15	8	13	15
사후	25	19	10	14	14

자아탄력성 관련 척도 중 가장 의미 있게 변화된 영역은 친구관계에 항목이며 11점 차이로 타인에 대한 이해가 증가하고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활력성은 4점 차, 감정통제는 2점, 호기심은 1점차이로 사전검사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낙관성은 사전검사에서 보다 1점 낮은 모습을 보였다. 이는 외부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열심히 하려는 태도로 보이거나 여전히 불안한 상태로 보인다.

2. 학교생활적응 척도

<표 4> 학교생활적응 척도에 따른 사전·사후 분석 결과

하위요인	학교에 대한 흥미	학교수업	교사관계	교우관계	학교규범준수
사전	11	25	10	16	9
사후	14	26	4	20	9

전반적으로 척도가 사전에 비해 사후가 높게 나타났으나 교사관계에 있어서 4점으로 가장 큰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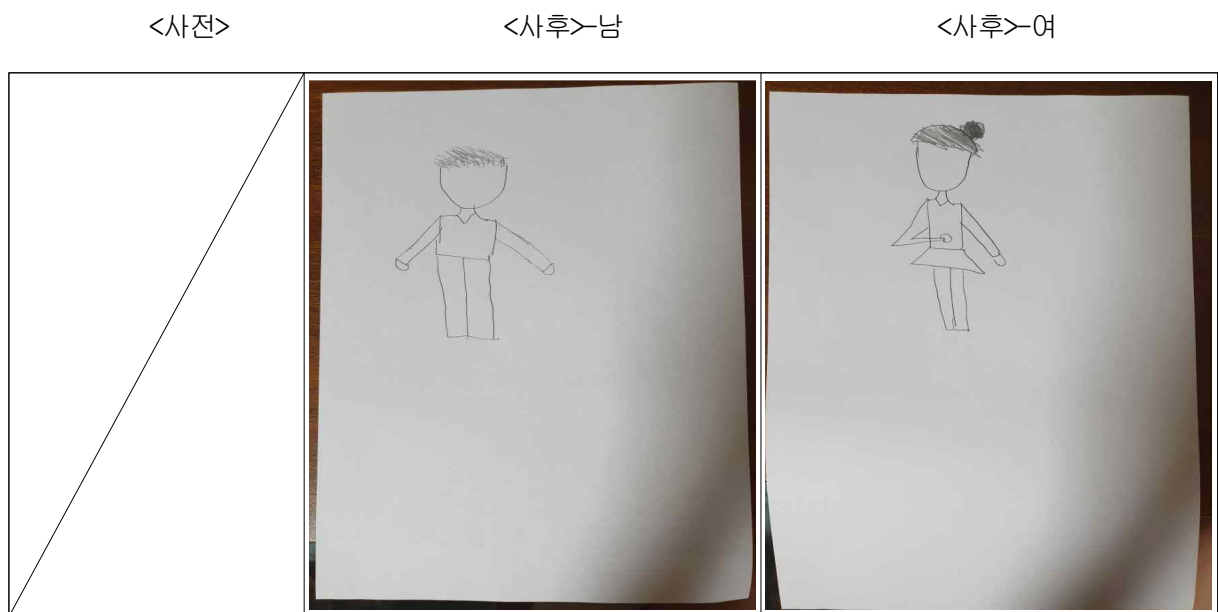
이를 보였고 교사관계에 있어서는 6점이 낮게 측정되었다. 학교에 대한 흥미는 3점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수업 척도는 1점이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규범준수에 대한 척도는 변화가 없었다.

3. 그림검사

그림검사에서 매우 긴장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잘하지 못한다’며 자신 없어 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전검사에서는 종이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으나 모두 세로로 세워서 그렸으며 사람그림을 그린 뒤에는 좀 더 자신 있고 빠르게 그려내었으며 치료사의 질문에 대해서도 떠오르는 대로 적절히 대답하였다. 사후검사에서는 사전에서 보다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고 사람을 그리라는 치료사의 지시에 여자인지 남자인지 누구를 먼저 그리는 것인지 등 과제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고 수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측정하기 어려우나 지문으로 제시된 검사지에 대해 시험이나 과제와 같이 거부적인 태도를 보이고 지문을 꼼꼼히 읽지 않고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 좀 더 심층적 관찰을 위해 추가로 실시하였으며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였다.

가.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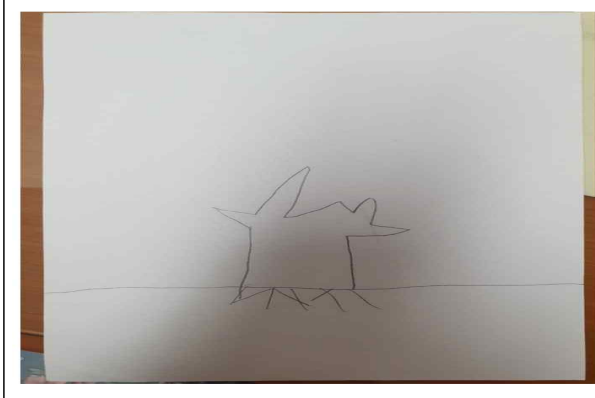
사전검사에서 자신이 없다며 사람그림 그리기를 거부하였으며 그래도 시도해보자는 치료사의 말에 사람을 그렸으나 눈코입이 없는 얼굴과 동그라미로 생략된 손을 그렸다. 결국 제출하기 싫다며 접어서 집으로 가지고 갔다. 사후에서는 좀 더 자신 있게 그려내는 모습을 보였고 사전에서는 아래에 치우치는 그림을 그렸으나 사후에서는 그림이 모두 상부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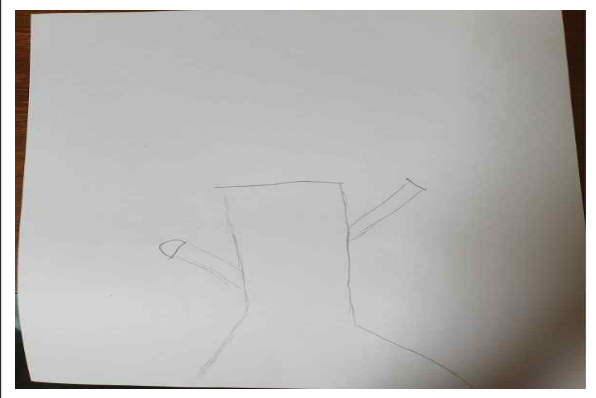
사전에서와 같이 사후검사에서도 눈코입이 없는 사람을 그렸으며 동그라미로 손을 그리고 발이 없는 모양 등 초기에 비해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된 점과 7살이라고 정할 수 있는 모습 등이 초기에 비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조금은 명확해져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나. 나무

<사전>



<사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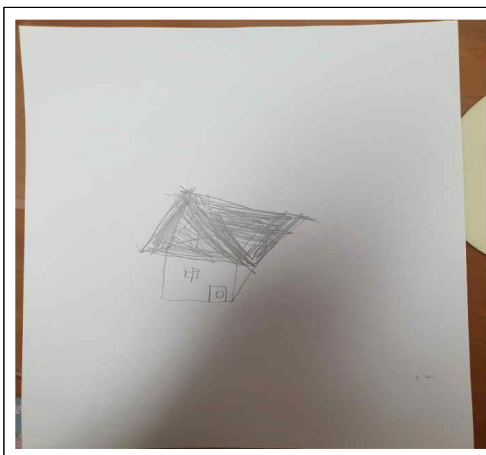


사전검사에서 뿌리가 얇고 잎이 없는 형태의 나무를 그렸다. 나무가 손모양 같다고 질문하였으나 ‘그냥 그렸어요’ 라며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하였다. 나무의 건강상태나 잎이 없는 이유 등에 대해서 자신은 원래부터 나무 그림은 이렇게 그렸다고 대답하였다. 전체적으로 그림이 성장을 멈춘 상태의 나무 형태로 보이며 성장을 통한 결실인 잎이나 열매 등이 관찰되지 않아 욕구나 자기표현이 제한되어질 수 있어 보인다. 특히 아래쪽의 뿌리가 선의 형태로 나무기둥의 크기에 비해 빈약해 발달과 성장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밀거름이 되는 경험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여지며 뿌리의 형태가 모두 보이고 전반적으로 기둥이 강조된 형태와 굵은 가지가 두드러짐으로 자신을 솔직하게 들어내고 작고 미약하지만 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는 상태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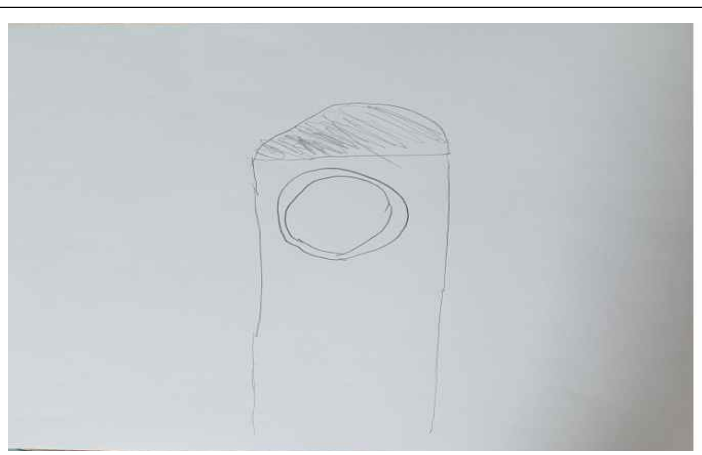
사후검사에서 나무는 ‘나무로 된 의자’ 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모양 그대로 위쪽이 얇은 부분이고 양쪽의 가지가 손잡이라고 이야기 하였다. 사전검사 시기와 다르게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고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시기로 자신의 기능적인 부분에 몰두하고 있음으로 이해되나 잘려진 나무라는 점에서 현재의 우울이 자신의 기능적인 측면에서의 좌절일수도 있겠다고 보여진다.

다. 집

<사전>



<사후>



사전검사서에서 가장 어렵게 그림을 그려간 부분이다. 과거에 집을 그린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나 교사가 보고 굉장히 놀라하는 경험이 있었다고 한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보고 ‘왜 집 그림에서 문이 없냐’며 놀라는 것에 이유 없이 당황스럽고 눈물이 났다고 한다. 문은 다른 사람과 소통을 의미하지만 자기 안에 몰두하는 경우도 있어서 놀랄 일이 아니며 그리는 사람이 마음대로 그리면 된다고 이야기 하자 진정하고 그림을 그렸다. 집은 그린사람의 사회문화적인 영역에 대한 진단도 구로 이 그림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기저선이 없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 사회문화적 영역에 있어 자신의 입장이 아직 명확하게 들어나지 않음을 의미하며 학교 생활에서 분명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지 못하므로 자신과 타인과의 경계가 없고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 있다. 입체의 정육면 형태 위에 삼각형의 검은 색 지붕으로 색을 채움으로 정서적이기 보다 사고에 몰두 할 가능성이 크며 지붕에 색을 채움에 있어서 사고나 학업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클 것으로 보여진다.

사후검사의 집은 가로로 그렸으나 여전히 기저선이 없고 아래쪽의 시작이 어디인지 불분명하다. 한편으로는 종이의 가장 아래쪽을 기저선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명확하지 않지만 자신의 입장이나 위치가 생기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기저선은 유아가 환경에 대한 이해가 생기기 시작하고 자아가 형성되면서 자신의 위치를 인식하게 되어 6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시기까지 생기는 것이나 현재 대상자는 고등학교3학년으로 심리적 발달이 현저히 뒤쳐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약하지만 기저선이 등장했다는 점과 집의 형태가 원통이라는 점에서 뒤늦게라도 자아의 발달이 형성되고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진다.

2. 제언

연구 대상자는 학교부적응으로 인해 손떨림, 우울, 불면증의 증상으로 우울증 진단을 받고 학교를 자퇴한 상태로 음악심리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프로그램 이용 후 4개월 시점에서 고등학교 3학년으로 복학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 및 음악심리활동 프로그램 이용 시기가 짧았으며 학교를 복학 한 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나 특별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고 다니고 있으며 최근 학교 대표로 바리스타 대회에 참여해 입상하였다. 연구를 통해 관찰된 결과를 정리해 보면, 첫째, 자아탄력성 영역에 있어서 낙관성 척도가 1점 낮게 나왔지만 친구관계에서 11점, 활력성 4점, 감정통제 2점, 호기심이 1점 향상되어 정서영역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둘째, 학교적응 영역에 있어 교사관계에 대해서는 6점이 낮게 측정되었으며 학교규범에 대해서는 변화가 없었다. 학교에 대한 흥미가 3점, 학교수업 1점, 교우관계가 4점 높게 나왔다. 대상자가 학교 적응에 있어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교사와의 관계인 것으로 보인다. 셋째, 그림검사서에서 보면 발달이 지연되어 있고 사회적응에 필요한 기능들이 구체적이지 못하면서도 사고에 몰두되고 기능적인 역할에 대해 스스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규범과 규칙을 지켜야하는 학교에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따라서 교사에 대한 경계와 방어태도를 가지게 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음악심리활동 프로그램에 대기 중인 대상 중 학교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들의 호소내용이 불안과 우울로 심리적 어려움이 사회적응의 어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지속적인 연구와 프로그램의 개발로 긍정적인 정서 상태로의 변화를 돕고 학교나 사회에 적응함으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구윤경(2017).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소아암 생존 아동의 삶의 질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용래(2000). 수업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김승국(1996). 정신지체 아동의 부적응 행동 연구. 특수교육논총, 13(1), 17-34.
- 김정남(2007). 중, 고등학생을 위한 학교적응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선(2007). 어머니의 대화방식과 유아의 일상정 내러티브 발달의 관계.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철(2000). 초등학교 아동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승희(2012). 민간어린이집 교사가 인식한 특별활동 실태 및 유아 만족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진형(2011). 음악치료와 활용 방법에 대한 연구 : 학교 부적응 청소년을 위한 방과후 특별 수업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엄선영(2012). 학업성취도에 따른 초등학생들의 비례추론 능력 및 전략분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다솔(2016). 치료적 노래만들기가 고등학교 특수학급 청소년의 자아정체감과 자아존중감, 자기 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명규(2001). 특수학교에서의 사회사업가에 대한 역할요구 조사:정신지체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이민화(2014). 노래중심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저소득층 아동의 자기표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음악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원령(2015). 초등학교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변인 연구:지적장애와 ADHD를 중심으로, 위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윤정(2017). 오르프 음악치료가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영홍(1984). 적응의 개념과 교육. 연구사.20(1), 147-163.
- 진선경(2016). 아동이 지각한 교사의 공감적 이해와 교우관계의 관련성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소림(2006). 노래를 중심으로 한 집단음악치료 활동이 장애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향상과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부 록

1. 학교생활 적응 척도

*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에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 지 않다	대체 로 그렇 지 않다	보통 이다	대체 로 그렇 다	매우 그렇 다
1	학교를 가는 것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이 즐겁고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에게 학교 성적은 매우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공부가 싫다.	①	②	③	④	⑤
5	숙제는 내 스스로의 힘으로 꼬박꼬박 해가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선생님의 말씀을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⑤
7	내가 배우고 있는 부분의 과목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담임선생님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성적이 잘 오르지 않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학교의 규칙을 잘 지킨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다른 학생들과 싸우거나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시험 볼 때 컨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3	학교에서 친구들과 싸우는 경우에 내가 먼저 사과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선생님한테 이야기 하지 않고 결석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5	나는 우리학교 선생님을 대부분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⑤
17	나의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18	나는 학교 시설물을 망가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학교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0	나는 수업시간에 선생님께 허락받지 않고 나간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1	나는 수업시간에 열심히 듣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나는 왕따나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3	나에겐 친구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24	내 친구들은 내 생각이나 말을 잘 들어준다.	①	②	③	④	⑤

2. 자아탄력성 척도

* 이 설문지는 자아탄력성에 관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읽고 자신에게 해당하는 칸의 번호에 ○표 해주세요.

번호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가끔 그렇 다	자주 그렇 다	항상 그렇 다
1	나는 친구의 말을 존중해 준다.				
2	나는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끝내 놓고 다른 일을 한다.				
3	나는 화가 나면 욕을 한다.				
4	나는 새로운 반 친구가 생기면 그 친구들에게 말을 건다.				
5	나는 어려운 일이 생겨도 잘 될 것이라 생각한다.				
6	나는 친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도와준다.				
7	나는 친구들을 보면 먼저 다가가 상냥하게 말을 건넨다.				
8	나는 새로운 장난감을 보면 그 속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알고 싶다.				
9	나는 친구의 나쁜 점 보다도 좋은 점을 발견한다.				
10	나는 친구가 고민하며 내 일처럼 함께 고민한다.				
11	나는 우울할 때 보다 즐거울 때가 많다.				

12	나는 친구와 싸운 경우 그 친구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본다.				
13	나는 가보지 않은 생소한 길로 혼자서 잘 다닌다.				
14	나는 시험을 못 보았어도 다음에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5	나는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인상(느낌)을 주는 편이다.				
16	나는 잘 웃는다.				
17	나는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미리 생각해본다.				
18	나는 궁금한 것(알고 싶은 것)이 많다.				
19	나는 일이 잘못 되어도 좋은 쪽으로 생각한다.				
20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21	나는 일이 있을 때 앞장서서 한다.				
22	나는 새로운 것을 보면 그것을 하려고 노력한다.				
23	나는 내가 잘못된 경우 먼저 사과한다.				
24	다른 사람들은 내가 명랑하고 활력있다고 말한다.				
25	나는 무엇(공부, 놀이)을 할 때 다른 친구들과 다른 방법으로 한다.				

26	나는 새롭고 신기한 일에 흥미를 가진다.				
27	나는 화가 나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는다.				
28	나는 교과서나 책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사전을 찾는다.				
29	나는 어려운일이 생기면 쉽게 포기한다.				
30	나는 내 또래 친구들과 만나는 것을 좋아한다.				
31	나는 기분이 나쁜 경우에도 마음의 안정을 빨리 찾는다.				
32	나는 모르는 것이라면 누구에게 물어서라도 알려고 한다.				
33	나는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없다.				

성인 발달장애인 당사자 주도 자립생활에
대한 서비스 확대를 위한 욕구조사
-양천해누리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중심-

자립지원팀

1. 연구의 필요성

- II.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개념 정의
 1. 자립의 개념
 2.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3.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준거틀
 4. 자립생활 관련 법령

- III.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조사
 1. 서울시 자립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2.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자립 관련 프로그램 조사
 3. 양천해누리복지관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 IV. 양천해누리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방법
 2. 연구도구
 3. 분석방법
 4. 분석결과

- V. 결론 및 제언
- VI. 연구의 한계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015년 11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되도록 당사자의 사회참여와 권리보호가 중요시 되고 있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은 오랜 기간 소외되어 왔으며, 누군가의 지원이 없으면 지역사회 내에서의 자립생활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역사회에서의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더욱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의 전환서비스는 특수교육기관에서 수행하는 전환교육을 중심으로만 논의되어 왔고, 실제 발달장애인이 평생 동안 자립생활을 이뤄나가야 할 지역사회와의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대다수의 발달장애인이 특수교육기관을 마친 후 지역사회에 나왔을 때는 실질적인 전환서비스 부재로 인해 정상화와 사회통합, 발달장애인의 권리 옹호, 사회적 역할 가치 등의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가치를 실현하지 못하고 탈시설화를 중시하는 장애인패러다임과 달리 가정에 머물러 있거나 생활시설에 방치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발달장애인의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 진로 및 취업만을 목표로 진행하게 되면, 불완전한 고용상태나 실업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 처하게 되고,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격리되어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저해하는 결과를 낼 수도 있다. 이에 단순히 취업이나 고용만을 강조하는 것보다 지역사회 내에서 성인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반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며, 자립생활·성인교육·지역사회참여 등 성인생활의 모든 측면을 포괄해야 한다.

2018년 양천해누리복지관 사례지원팀에서 진행한 『지역사회 내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체계적인 모색방안』 사례연구를 살펴보면 ‘자립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이 있었다. 이처럼 기관 내에서는 지속적으로 자립에 대해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하는 노력이 있었으며 2020년 직업지원팀에서 자립지원팀으로 팀명을 변화하여 지역사회 내에서 생활하는 성인발달장애인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구상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 향후 지역사회 내에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부분이 어떠한 것인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례연구를 통해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준비 및 욕구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자립지원팀의 역할을 모색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하고자 한다.

II. 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개념 정의

1. 자립의 개념

자립생활 이념의 태동과 발전은 1960년의 미국의 인권운동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흑인이나 여성과 마찬가지로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교육, 고용 등 삶의 영역에서 받는 차별과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다른 시민과 동일한 인권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일상생활에서의 자립’이라 보는 것에서 출발했다.

자립생활은 기존의 재활패러다임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단지 장애인 운동 차원이 아닌 장애인 정책에 한 개념부터 서비스 내용과 체계 그리고 장애인당사자와 전문가들의 역할과 자세까지 장애인복지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 자립생활 운동이 전 영역의 장애를 포함하여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이 주도가 되어 태동되었던, 더불어 지나치게 장애인당사자만의 독립인 생활에 초점을 둔 것은 한계로 지적되었다.

자립생활은 사회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기반으로 장애인 자신이 삶을 선택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 능동적인 주체가 된다는 것을 뜻한다. 즉, 자립생활은 장애를 가진 당사자가 삶의 전반적인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참여하고, 동시에 지역사회 내의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과도 상호작용하며, 또한 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역량강화를 이루고, 자조·자립의 실현에 따른 주도적 사회참여와 통합을 가능케 하는 생활실천 철학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립생활에 대한 개념은 매우 다양하나, 공통적인 관점으로는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선택하고, 선택에 대한 위험 감수,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 및 적극적인 참여 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게 있어 자립은 아무런 도움 없이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소극적 의미보다는 필요한 원조와 지원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활 전반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주체가 되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2.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자립생활이 모든 장애인들에게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은 지금까지도 현실적인 측면에서 일부 지체장애인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이유는 자립생활 운동의 이념과 가치에서 추구하고자 했던 스스로 자신의 삶에 참여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자기주도권(self-direction)과 자기결정권(self-determination), 선택권(choice)의 확보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완전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행사에 제한을 갖기 때문이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에 대한 논의의 시작은 1960년 말 유럽에서 제기된 ‘정상화’와 ‘탈시설화’ 이념에서 그 배경을 찾을 수 있다. 발달장애인으로서 자기권리옹호를 주장한 Nirie는 정상화를 모든 발달장애인의 생활방식과 하루하루의 생활이 그 사회의 일반적인 환경과 생활방식에 가장 가깝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장애인의 정상으로써의 치료가 아닌 생활조건의 정상화를 주장했다. 울펜스버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역할 지원의 강조와 이를 통한 사회통합, 자기권리옹호, 사회역할 가치화 등을 발달 장애인 자립생활의 핵심가치로 보고 있다.

최근 포괄적인 자립영역에서 '상대적 자립(relative independence)'이란 개념이 도입되면서 발

달장애인의 자립생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지고 있다. 상대적 자립이란 완전한 자기결정권에 기반을 둔 자립생활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이전의 생활보다 상대적으로 더 자립인 생활이 가능하다면 이것도 자립으로 볼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발달장애인들의 자립생활은 보통 지원생활(supported living)을 의미하는데, 지지적인 환경을 만들어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며, 이와 더불어 당사자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 지원을 받으면서, 누구와 살 것인지 선택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소득, 주택, 개인돌보미, 후견인, 권리옹호 제도 등과 같은 지지적인 환경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3.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준거틀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 준거틀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Harvey, Moxley, Gate의 욕구영역을 근거로 종합한 권중돈(2007)의 자립생활 준거틀은 소득보장, 주거, 고용, 일상생활훈련, 평생교육(교육 포함), 사회네트워크, 정신건강 포함한 의료지원, 여가 및 문화생활, 권익옹호 등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다. 성민복지관의 평생과정설계에서는 소득재정, 직업, 주거,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법률, 결혼, 출산의 영역을 언급하고 있으며,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에서는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영역을 건강하게 지내기, 돈 관리하기, 나를 보호하기, 직업 갖기, 여가활동하기로 분류했다.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은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통합모델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차년도에 건강, 사회, 인권, 평생교육, 생계의 5개의 영역을 분류했다.

자립생활 준거틀은 “성인발달장애인 당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으로 실현가능성이 있는 것”을 중심으로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제시한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의 건강하게 지내기, 돈 관리하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이성 친구 사귀기, 나를 보호하기, 직업 갖기, 여가활동하기 영역에 주거영역을 포함하여 총 8개 영역별 지원과제를 대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1]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생활의 주요내용과 지원과제

영역	주요내용	지원과제
건강하게 지내기	집안 정리정돈, 빨래, 쓰레기배출, 음식, 건강한 식사, 치아 관리, 몸관리, 단정한 옷, 멋내기, 매일운동, 잠 잘자기, 병원·약국이용, 약 먹기, 생활용품수리, 술·담배조절	· 발달장애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거정병원” 등 제도적 실효성 방안 · 발달장애인 의료복지서비스(예산, 법령 등)
돈 관리하기	계산기 사용, 수입지출 관리, 먹거리, 생활용품구입, 은행이용, 생활요금 관리	· 이동지원의 경우, 현장체험 중심의 체계적 훈련지원 필요 · 당사자의 재정 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신탁제도 등 지원방안 필요 · 공공후견제도를 활용한 자기결정권과 선택권, 통제 강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기본적 의사소통, 자신의 장애 이해시키기, 친구 사귀기, 여러 대상과의 관계, 종교활동, 우체국이용, SNS이용, 외출, 도움요청하기	· 돌봄 관련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등 법령개선 필요 · 대중교통 등 사회기술은 현장훈련 및 실전경험 중심의 지원 필요

영역	주요내용	지원과제
이성친구 사귀기	이성친구에게 의사표현, 데이트, 결혼 설득, 성생활, 아이양육	· 이성교제, 연애, 결혼, 출산, 육아 등 관련 정보와 교육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 · 평생교육지원센터 확충 & 예산 지원 등 필요
나를 보호하기	내가 가진 권리 이해, 차별대처, 놀림·무시·장난 대처, 사기예방·대응	· 장기적·체계적 자기옹호훈련, 자조집단 운영지원 필요 · 장기적·체계적 자기옹호집단모임 운영 지원 필요
직업찾기	내가 하고 싶은 일 찾기, 취업에 필요한 능력 갖추기, 취업정보, 면접, 직업유지, 직장 인간관계	·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산업체와 공공기관 등의 연계를 통한 직업훈련 및 고용기회 증대 필요
여가활동하기	여가활동 정보, 컴퓨터·모바일 게임, 문화·여가시설 이용, 여행	· 여가/문화영역의 경우에는 개인별지원 계획(자기주도 지원)에 의한 지원 필요 · 다양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위한 지원 필요
주거	자립하여 살 수 있는 공간(집) 지원 필요	· 그룹홈 체험기회 확대 · 주택지원, 소득보장 등 최우선 현안에 대한 지원 확충 필요

4. 자립생활 관련 법령

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목적은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권리보장,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동법 제3장 제18조에서 제29 조까지 복지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으며 복지서비스 신청,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계좌관리, 조기진단 및 개입, 재활 및 발달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 소득보장,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명시되어 있다.

나) 장애인차별금지법

동법 제4조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 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라고 정의하였다. 동법 제7조에서는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장애인은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다) 장애인복지법

동법 제35조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가 또는 지자체로 하여금 장애유형·장애 정도별 자립

지원서비스에 관한 정책을 강구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자립생활의 지원 규정을 두고 있으며 자립생활지원(제53조),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제54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제55조), 장애동료 간 상담(제56조) 등 특히 중증장애인의 자기결정에 의한 자립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서비스를 구체화하고 있다. 동법 제49조에서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서 필수적인 사항인 장애인의 소득보전을 위한 장애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의 장애정도 와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

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1년 3월 개정된 활동지원법에서는 주간보호 서비스가 시설서비스이기 때문에 활동지원법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주간보호는 다양한 낮 시간 활동서비스(day services or day activities)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환이 필요하며 주간보호 서비스가 개인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김용득, 2016).

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1조에서는 통합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 받은 일반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조정, 보조인력의 지원, 학습보조기기의 지원,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제23조에서는 중학교 과정 이상의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 및 요구에 따른 진로 및 직업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평가·직업교육·고용지원·사후관리 등의 직업재활훈련 및 일상생활적응훈련·사회적응훈련 등의 자립생활훈련을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 있는 진로 및 직업교육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에 있어서도 제31조에서 대학의 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의 교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 2에서 제33조의 7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달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한다. 제33조의 2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과 친족 및 관계인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 33조의 3은 서비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복지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요구 조사를 하게 하도록 한다. 제33조의 4에 따르면 복지요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서비스 제공 실시여부와 그 유형을 결정하여야 하며, 제33조의 5에서는 지역복지협의체의 의견을 들어 보호대상자별 서비스 제공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보호대상자나 친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하며 대상자에 대한 개별적 서비스 계획을 수립토록 한다.

Ⅲ.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문헌 조사

1. 서울시 자립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조사

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정부는 2018년 9월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영유아기 때부터 중노년기까지 정부가 생애주기에 맞춰 케어 할 수 있는 종합적인 서비스 방안을 제시했다.

- 최종증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낮시간 집중케어서비스 지원으로 낮 시간에 의미 있는 생활(주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간활동 바우처를 주 22시간(월 88시간) 제공한다.
- 재가 발달장애인의 자립체험 지원 : 재가 발달장애인이 주거생활코치를 통해 자립생활을 경험해볼 수 있는 자립체험 임대주택을 지원한다.
- 시설거주 발달장애인의 탈시설 자립생활 지원 : 장애인 돌봄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 추진하고 탈시설 체험주택 운영, 공공임대주택 연계 및 자립정착금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의 안정적 주거를 지원한다.
- 발달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 발달장애인의 취업의욕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이 ‘동료지원가’로 함께 참여하는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실시한다.
- 발달장애인 맞춤형 직업 훈련과 일자리 지원 :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하고 맞춤 훈련과정을 연간 2천명까지 참여하도록 확대한다. ‘현장중심 직업재활센터’를 2021년에 2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훈련-취업 연계로 중증장애인 지원고용사업의 지원인원(5천명)을 확대한다.
- 고용 유지 지원 · 사업장 인식 개선 : 발달장애인의 근무를 도와주는 근로지원인을 확대하고, 직장 내 장애인 고용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장애인 강사 활동을 지원한다.

[표 2]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

영유아기	· 발달장애정밀검사 지원 확대(1,000명→7,000명)로 조기진단 강화 · 통합유치원(1개→17개) 및 특수학급 확대(731학급→1,131학급) · 양육 정보제공 및 부모교육 지원, 부모 자조모임 양성
학령기	· 청소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신설 (2019년 4,000명 → 2022년 2만 2,000명) · 특수학교 · 학급 확대(174교, 1만325학급 → 197교, 1만 1575학급) · 발달장애인훈련센터 확대(2018년 7개소 → 2019년 13개소)
청장년기	· 주간활동 서비스(학습형, 체육형 등) 신설 (2019년 1,500명 → 2022년 1만 7,000명)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 확대(2018년 2500명 → 2019년 5000명) ·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2018년 1200명 → 2019년 3000명)
중노년기	· 장애인검진기관 확대, 건강주치의제 등 건강관리체계 강화 · 발달장애인 소득보장 체계 구축(공공신탁제 도입 등)
전주기	· 권역별 거점병원 · 행동발달증진센터 확대(2개소 → 8개소) · 공공후견인 · 법률지원 확대, 권익옹호 및 성교육 전문가 양성 · 가족부담경감을 위한 휴식지원서비스(1만명 → 2만명)

나) 주거지원

서울시는 현재 170호(2019년 기준) 규모인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을 2022년 총 459호까지 3배 가까이 늘려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본격화하려고 한다. 당사자의 다양한 욕구와 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해 각자 필요한 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계획하는 자립지원 주택 3종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생활서비스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급형 지원주택’ (2022년 248호)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주거생활서비스만 받을 수 있는 ‘비공급형 지원주택’ (2022년 120호) ▲지역사회로 정착하기 전 자립생활을 체험해볼 수 있는 중간단계 주거형태인 ‘자립생활주택’ (2022년 91호)이다.

[표 3] 서울시 장애인 자립지원 주택 3종

구분	① 장애인 지원주택 (SH 공급형)	② 발달장애인 지원주택 통합서비스(SH 비공급형)	③ 장애인자립생활주택
개념	공공임대주택 + 주거서비스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주거서비스만 제공	공공임대주택, 민간주택 + 주거서비스 (코디네이터 인력 지원)
이용대상	만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발달장애인 우선)	만18세 이상 발달장애인 (탈 시설 장애인인 경우 타장애 가능)	탈 시설 욕구가 있는 서울시 거주시설 이용장애인
입주인원 (주택 당)	1인 원칙 (2~3인 공동거주 가능)	1인 (2~3인 공동거주 가능)	2인 (가형*, 나형*은 3인 가능)
공급목표	68호(2019)→128호(2020) →248호(2022)	26호(2019)→40호(2020) →120호(2022)	74호(2019)→81호(2020) →91호(2022)

*자립생활주택 가·나형은 지체장애인 및 경증 발달장애인 대상 / 다형은 중증 발달장애인 대상

SH공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이 가사(설거지·분리수거 등), 금전관리(은행업무 등), 투약관리 등 다양한 주거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주대상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로 자립생활이 필요한 장애인과, 독립생활을 위한 주거서비스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이다. ① 장애인 지원주택은 현관·욕실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센서 등 리모컨, 음성인식 가스차단기, 핸드레일 등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완비한 다세대 주택이다. ② 비공급형 지원주택은 본인이 거주하는 집에서 주거서비스만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공급일정과 지역이 제한적인 공급형 지원주택의 한계점을 보완한 것이다. ③ 자립생활주택은 완전한 자립에 두려움이 있는 당사자가 2년간(최장 4년) 거주체험을 할 수 있는 지역사회 정착 전 중간단계의 주거형태이자, 시설과 지역사회 사의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며 자립에 대한 두려움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의 자립 관련 프로그램 조사

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는 타 복지관의 훈련반과는 다르게, 훈련반이 매우 세분화 되어있다. 만 40세 이상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중장년직업적응훈련반, 지원고용을 준비하는 지원고용준비반, 바리스타를 중점으로 진행하는 카페, 중증장애인인턴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활동을 준비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표 4]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낮 활동	시니어리더 대학리더양성	성인등록장애인	리더쉽 및 역량강화 교육, 워크샵, 운영회의 등	월2회
직업 지원	직업적응훈련A반 (중장년 직업적응훈련반)	만 40세 이상 발달장애인	개인·사회생활 및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활동 준비	월-금 09:00~17:00
	직업적응훈련B반	만 19~40세의 발달장애인	개인·사회생활 및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활동 준비	월-금 09:00~17:00
	지원고용준비반	만 18세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개인·사회생활 및 직업역량 강화를 통한 취업활동 준비훈련	월-금 09:00~17:00
	발달장애인 바리스타 훈련카페	바리스타 취업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이론교육 및 카페 현장훈련을 통한 바리스타 취업 준비	월-금 09:00~17:00
	중증장애인 인턴제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	사회복지 실무(행정, 회계업무 등)와 복지관 내 프로그램 진행 지원	월-금 09:00~17:00

나) 성민복지관

성민복지관은 평생과정설계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중심계획의 관점을 공유하고 평생계획 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포괄적인 영역을 지속적으로 설계하고 실행,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표 5] 성민복지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평생 과정 설계 준비	오픈강좌	성인 발달장애인 (20~35세)	당사자 중심의 미래설계 준비를 위한 장애수용, 영역별 교육 및 연계활동	월 13:30-16:00
	평생과정설계 발달장애인 자조활동 '꿈틀꿈틀'	평생과정설계 아카데미 수료자 (발달장애인)	평생과정설계 준비·실천을 위한 지역사회 중심의 자조활동	연 중 (월1회)
교육 영역	성민교양대학	성인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현장직무, 직업탐색 및 흥미, 선택교양, 자조직 등 성인기 전환 및 자립을 위한 역량강화활동	월~금 10:00-16:00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발자국	성인 발달장애인 (23세~34세)	의미 있는 낮생활, 개인별 역량 강화 활동, 생애주기에 맞는 문화여가활동	150,000원/월
문화여가영역	중·장년 성인발달 장애인 사업	성인 발달장애인 (35세 이상 50세 이하)	의미있는 낮생활을 위한 자치회의, 음악·요리·체육·원예·지역사회 이용 등	월, 화, 목, 금 10:00~15: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성인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내 협력기관을 활용한 문화여가 및 자립생활 지원 (기본형)	월~금 10:00~15:00
직업영역	성민자립대학	성인 발달장애인	현장중심 직무교육, 일상중심 자립활동, 일상확장활동	월~금 10:00~16:00

다) 충현복지관

충현복지관은 성인 발달장애인, 중·장년, 주거지원 총 3개의 분류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성인기에는 권익증진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충현비전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사회복지 전문학사 취득과 예술적인 재능 발굴 및 작가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장년, 노년기 발달장애인의 행복한 노후 설계를 돕기 위한 ‘뉴스타트 아카데미’와 ‘뉴라이프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의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안정된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체험형 지원주택 통합지원 서비스’와 ‘자가형 통합지원 서비스’, ‘독립인큐베이팅 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독립계획 수립, 주택마련 지원, 독립생활 지원서비스 등 여러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주거마련을 지원한다.

[표 6] 충현복지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충현비전대학	사회복지학과	20세~26세 발달장애인	대학연계 및 사이버 강좌를 통한 전문학사 취득,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학위과정 진행, 고등학교 졸업 이후 대학경험 및 대학문화 경험 (전문학사, 사회복지사 2급 취득)	09:00~16:00 주5회(월~금)
	문화예술학과		순수미술 훈련을 통한 작가 양성, 미술 및 디자인 활동을 통한 전시회 개최, 디자인 등 다양한 문화 예술 활동 지원	
	디자인학과		문화예술학과 졸업 후 심화 전공과정, 타이포그래피, 일러스트레이션 등 시각디자인 전문과정, 미술 및 디자인 활동을 통한 전시회 개최, 개인 포트폴리오 교육 및 제작	
	바리스타학과		취업을 위한 서비스 관련 전공 수업진행, 에스프레소 추출, 음료제조 기능습득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지원(바리스타 2급 자격증 취득)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스포츠학과		건강과 체력증진, 비만관리와 합리적인 영양섭취, 신체활동 교육,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하여 개인의 삶의 질 향상, 레저문화 전문 인력 양성 교육 진행 (생활스포츠 지도사, 레저스포츠 전문지도자 등 자격 등 취득)	
	사진학과		영화, 문학, 미술, 음악 등의 학습을 함께 하는 전인 교육, 스마트 기기와 카메라를 활용한 사진 촬영 기법 교육, 사진을 통한 자유로운 자기표현 활동 및 사진작가 양성	
성인 아카데미	미래설계 아카데미	당해 연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성인전기 방향성 설정, 정신적 자립강화 및 성인기 역할인식, 미래계획수립	09:00~16:00 주5회(월~금) ※ 주3~5일 선택가능
	문화생활 아카데미	39세 이하 발달장애인	권익옹호, 건강, 자립, 직업, 문화, 경제 등 종합영역 다양한 활동경험을 통해 당사자의 자립능력역량강화	
	자립생활 아카데미		자립계획수립, 정신적 자립 및 자립생활능력 강화	
	건강스포츠 아카데미		건강프로파일링, 건강관리 다양한 운동 및 스포츠 활동	
	직업준비 아카데미		직종탐색 및 전문훈련 직업적 개인역량강화 ※ 훈련수당 월10만원 지원	
	직장인 아카데미		취업자대상 개인 역량개발 직업유지훈련, 문화여가활동	
뉴스타트 아카데미	직업양성과정	40세~49세 발달장애인	① 모델 양성과정 ② 티 소물리에 양성과정	09:00~16:00 주5회(월~금)
	문화조성		동아리(종이접기, 캘리그래피, 스트링아트) 문화여가(수납정리, 원예, 당일여행, 캠프) 평생교육(한자, 한글, 스마트폰교육) 음악(난타, 핸드벨, 합창)	
	뉴스포츠		플로어컬링, 한궁, 트레킹, 건강교육 및 검진	
	온푸드		요리활동 및 맛집탐방을 통한 다양한 음식문화 경험 (기업봉사조직과 연합활동)	10:00~12:00 주1회
뉴라이프 아카데미	배움존	50세 이상 발달장애인	생활상식, 인문학, 컴퓨터, 건강교양, 안전 및 위생 교육	09:00~16:00 주5회(월~금)
	라이프존		도신 속 숲여행, 텃밭 가꾸기, 아트갤러리(컬러비즈, 스트링아트), 캠프 및 나들이, 음악활동	
	커뮤니티존		동호회(게이트볼/독서/정리수납/요리)	
	사회참여존		나눔활동(꽃꽂이/뜨개질/캘리그래피), 자원봉사단 '희로' 활동	
	헬스온존		운동처방(식이상담), 생활체육, 피지컬 피트니스, 댄스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주거 지원	독립 인큐베이팅 홈	성인 발달장애인	독립생활 체험, 개인별 주거지원 계획 수립, 자가형 독립생활 전이	6개월 ~ 1년
	체험형 지원주택	1년 이내 자가주택을 마련하여 독립을 희망하는 성인발달 장애인	자기결정과 선택에 의한 개인별 생활패턴 형성 지원인력의 상시지원을 통한 맞춤형 주거지원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내 주택마련을 통한 독립생활 실행지원	1년 이내
	자가형 통합지원 서비스	독립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나 주거지원 저시브제공 이 필요한 성인발달장 애인	개인별 독립상황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주거지원 서비스 제공 지원인력의 정기적 가정방문을 통한 안정적인 주거 생활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한 통합 환경 구축 권역별 주거지원 서비스 대상자 간의 자조모임 운영	상시 운영

라)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은 평생교육과 직업지원 두 분야에서 연령별, 기능별에 맞춘 프로그램이 세분화 되어있다. 평생교육 영역은 연령에 맞춰 낮활동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있으며, 직업지원 영역은 기능별 고용 목표에 따른 반 운영과 발달행정보조사,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등 특화된 직무를 연결하기 위한 준비과정이 되어있다.

[표 7]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평생 교육	굿데이 레드	30~40대 발달장애인	건강, 사회, 자립, 인권, 직업 5개 영역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중장년 발달장애인 낮활동 프로그램	주 5회
	굿데이 블루			
	굿데이 옐로	50대 이상 발달장애인		
	체험홈	성인발달장애인		
문화 여가	성인아카데미	성인발달장애인	요일별 다양한 취미활동	주1회
직업 지원	직업준비과정	만 18~35세 발달장애인	직업에 대해 알아가고 보호고용 단계로의 진입을 준비하는 직업준비훈련	연중
	직업기초과정		보호고용을 목표로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직 업기초훈련	
	직업적응과정		일반고용을 목표로 직업생활을 준비하는 직 업기초훈련	

영역	프로그램	대상	내용	시기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취득과정	고등 2~3학년 발달장애인	발달행정보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직 업준비 이론 및 실습교육	12회기
	요양보호사 보조직무 교육과정	현재 요양보호사 보조직무근로자	요양보호사 보조직무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15회기

3. 양천해누리복지관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

양천해누리복지관에서는 살맛나는 2단계를 통해 미션, 비전, 운영목표가 새롭게 수립되었다. 실천전략 1-3-3을 살펴보면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마련]이 수립되었으며 이에 자립지원팀이 신설되어 보다 체계적으로 준비하고자 하고 있다. 우선 2020년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각 팀별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 별도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권익옹호팀에서는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보다는 지역사회 내에서 안정적으로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사업방향이 수립되어 “권익옹호활동” 과 “작은공동체” 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자립지원팀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직업적인 부분으로 “직업적응훈련”, “고용” 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그램과 평생교육을 위한 “해누리청년대학” 이 운영되고 있다. 평생교육팀에서는 평생교육프로그램(가죽공예, 한글, 요가, 국악), 행복총전소(연극), 뷰티클래스, 정보화교육 등 다양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주로 문화여가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전문 강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주민자조직사업도 운영하여 당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표 8] 양천해누리복지관 프로그램

팀	사업명	사업 내용
권익 옹호팀	권익옹호	권리침해, 부당대우, 차별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가정에 대한 독립적 옹호 활동을 통해 전문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중심으로 적극적 지원
	작은공동체	장애인과 지역주민의 욕구에 따른 자조모임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내 소속감 증진
자립 지원팀	직업적응훈련 /전문직종훈련	작업훈련, 직업준비훈련, 문화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직업능력 향상
	해누리청년대학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 기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성향상
	자조모임 (나무그늘, 취업자 자조모임)	청년, 취업자 대상으로 모임활동을 통해 다양한 여가활동 진행
평생 교육팀	평생교육	가죽공예, 한글교실, 요가교실, 국악교실, 연극교실, 뷰티클래스 등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보화교육	개인의 능력에 맞는 컴퓨터교육을 통해 정보사회에 적응하고 컴퓨터활용능력 향상

팀	사업명	사업 내용
	주민자조직활동	보치아동아리, 탁구동아리, 요리동아리, 옥상정원, 서예자조모임, 여행동아리 등 다양한 자조직활동

3개의 사업팀에서 성인발달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적인 내용으로는 주로 직업훈련과 문화여가 관련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자립을 준비하기 위한 직접적인 프로그램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직업훈련 과정에서 일상생활, 대인관계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단순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기관차원에서 자립생활을 위한 지원체계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IV. 양천해누리복지관 성인발달장애인 자립에 대한 인식 조사

1. 연구방법

자립지원팀 성인 발달장애인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직업훈련생, 해누리청년대학 학생들을 18명을 대상으로 7월27일 ~ 8월14일까지 대면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당사자 중심으로 진행하되, 직접 응답이 안되는 2명은 보호자가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자료수집방법으로는 대면설문조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한 명의 연구자가 직접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질문과 답변으로 의사표현을 하였으며, 설문지 내용 이외에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여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2. 연구도구

지적장애인복지관이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으로 2014년 10월부터 수행하고 있는 ‘성인기 발달장애인 자립을 위한 통합모델화 지원사업’의 실천사례를 정리하고,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과 지원을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 매뉴얼”을 살펴보면 일상생활, 건강한 생활, 사람들과 친해지기, 돈 관리, 이성과사귀기·결혼생활, 나의권리, 취업·직장생활, 여가생활, 내가 살 곳 총 9 분야로 나누어 혼자 할 수 있는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 할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어서 140문항을 확인하였다.

[표 9] 설문 문항

영역	분야	내용
일상생활	청소와 정리하기	집안청소하기, 설거지하기, 화장실 청소하기 정리하기 : 이부자리, 옷장, 옷, 탁자·서랍장, 싱크대, 냉장고
	빨래하기	세탁기사용하기, 손빨래하기, 세탁소이용하기
	쓰레기 버리기	재활용, 음식물, 일반쓰레기
	음식 만들기	양념알기, 음식재료알기, 요리기구 사용하기, 밥솥사용하기
	단정하게 옷 입기	옷 고르기, 깨끗하게 옷 입기, 결혼·장례식 때 옷 입기

영역	분야	내용
	멋내기	머리정돈하기, 손발톱 관리하기, 화장하기, 약세사리 사용하기
	고장난물건고치기	라디오나 핸드폰이 고장 났을 때 서비스센터 이용하기
건강한 생활	건강한 음식 먹기	물마시기, 밥 잘먹기, 음식 골고루먹기, 식중독 조심하기
	몸을 깨끗이 하기	손 씻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건강한이관리하기	양치질하기, 칫솔·치약 고르기, 치과가기
	매일운동하기	적절한 운동시간알기, 운동하는 방법알기
	잠 잘자기	잠에 도움 되는 것 알기, 방해가 되는 것 알기
	병원, 약국가기	병원이용하기, 아픈 데 이야기 하기, 약국에서 약 짓기
	약잘먹기	매일 먹는 약 챙기기, 정해진 만큼 먹기, 약보관하기
	술과 담배 조심하기	술 양을 조절하기, 담배를 피울 때 주의할 점 알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사람들과 대화하기	대화할 때 맞는 행동알기, 좋은 말 사용하기, 나의 어려운 점 이야기하기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취미생활 함께하기, 모임에 참석하기, 집에 초대하기, 비밀 지키기, 약속 지키기
	이웃들과 함께 살기	이웃에게 인사하기, 질서 지키기, 피해주지 않기, 버스·지하철 예절 지키기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기	명절(설, 추석)에 만나기, 가족행사(결혼·장례식)가기, 어른에게 전 화하기
	활동보조인 활용하기	만나는 시간 정하기, 해야 할 일 정하기, 활동보조인을 보내주는 곳의 직원에게 이야기하기
	공무원과 만나기	주민센터 위치알기(구청, 군청, 시청), 공무원을 만나 이야기하기
	우체국 이용하기	우체국 찾기, 우체국 이용하는 순서알기, 우편물 종류알기, 우편물 보 내기
	페이스북, 카카오톡 사용하기	들어가는 방법알기, 글 쓰는 방법 알기, 친구되는 방법 알기
	원하는 곳으로 외출하기	내가 갈 곳 찾기, 버스·택시·지하철을 이용하는 방법 알기, 길 묻기
돈관리	계산기사용하기	더하기, 빼기 계산하기, 곱하기, 나누기 계산하기
	버는 돈에 맞춰쓰기	내가 버는 돈, 쓰는 돈이 얼마인지 알기, 돈 아껴 쓰기, 가계부쓰기
	먹을거리 사기	필요한 음식재료알기, 유통기한 살펴보기
	생활용품사기	청소용품, 주방용품, 화장실용품 구입하기
	은행이용하기	통장과 카드 만들기, 비밀번호 관리하기, 현금지급기 사용하기
	생활요금내기	전화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내기, 핸드폰요금 아껴 쓰기
이성과 사귀기·	이성친구이해하기	남녀차이알기, 만날 때 준비할 것 알기, 대화 잘하기, 헤어질 때 예절 알기

영역	분야	내용
결혼생활	데이트하기	데이트신청하기, 데이트준비하기
	결혼하기	결혼하는 순서알기, 결혼계획 세우기
	스킨십과 성생활하기	스킨십 방법알기, 스킨십 예절알기, 남자와 여자의 성 알기, 피임하는 방법 알기
	아이 기르기	임신에 대한 정보알기, 임신했을 때 건강관리하는 방법 알기, 아이 키우는 방법알기
나의 권리	나의 권리알기	내가 가진 권리에 대해 알기, 차별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 알기
	놀림, 무시, 장난에 대처하기	놀림을 받을 때 할 수 있는 행동 알기
	복지서비스 이용하기	전기요금할인, 인터넷요금할인, 지하철요금할인, 장애연금에 대해 알기
	피해상황 대처하기	범죄가 일어났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기,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신고하기, 성희롱과 성폭력 대처방법 알기
취업·직장생활	좋은 직장 찾기	내가 좋아하는 것, 급여, 직원복지, 직장위치를 생각하고 준비하기
	취업준비하기	취업을 위해 취미생활하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을 만나보기, 내가 잘하는 것을 정하기
	취업정보 찾기	일자리를 안내하는 곳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정보 찾기
	면접하기	면접 준비하기, 면접장에서 해야 할 일 알기
	직장생활하기	직장에서 할 일과 예절, 노력해야 할 것 알기
여가활동	여가계획알고 계획하기	여가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기, 여가활동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알고 준비하기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오락하기	오락할 때 시간정하기, 건강을 지키면서 오락하는 방법 알기
	체육센터 이용하기	체육센터 등록하기, 체육센터를 이용할 때 조심할 것 알기, 이용료내기
	등산하기	등산준비하기, 산에 오를 때 조심해야 할 것 알기
	여행하기	여행계획하기, 여행준비하기, 여행할 때 조심해야할 것 알기
내가살곳	생활할 집 계획하기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중 어떤 집에서 살지 계획하기
	공공임대, 임대주택 신청하기	나라에서 빌려주는 집을 이용하기 위해 신청하기, 집계약금, 전세금 임대료 내기
	생활에 필요한 물품 준비하기	집에서 사용할 장롱이나 전자제품 구입하기
	생활하는 집 관리하기	고장난 곳을 고치는 방법 알기, 관리비내기

3. 분석방법

총 9개의 분야 53개 항목을 140개의 질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해서 “혼자 할 수 있음.”, “도움이 필요함”, “할 수 없음”으로 분류하여 응답하였다. “경험없음”은 결측값으로 평균에서 제외하였다.

4. 분석결과

가) 일반적인 사항

총 18명의 응답자가 설문에 참여했으며 남자 13명(72%), 여자 5명(28%)이었다. 장애는 지적장애 16명(89%), 자폐성장애 2명(11%)이 응답하였다. 취업여부는 취업자는 4명(22%), 미취업자 14명(78%)이었다. 연령으로는 20세~25세가 11명(61%)이며 25세 이상이 7명(39%)로 나타났다.

[표 10] 성별

구분	남	여
성별	13명(72%)	5명(28%)

[표 11] 장애유형

구분	지적	자폐성
장애명	16명 (89%)	2명 (11%)

[표 12] 취업 여부

구분	취업	미취업
취업여부	4명 (22%)	14명 (78%)

[표 13] 연령대

구분	20세 ~ 25세	25세~
연령	11명 (61%)	7명 (39%)

나) 설문사항

1) 일상생활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은 총 7개의 분야 2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단정하게 옷입기”, “도움이 필요함”은 “고장난물건고치기”, “할수없음”에서는 “빨래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멋내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4] 일상생활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청소와 정리하기(9)	0	16.1%	19.1%	64.8%
빨래하기(3)	1	26.8%	22.5%	50.6%
쓰레기버리기(3)	1	7.7%	22.3%	69.9%
음식만들기(4)	5	16.64%	28.0%	55.5%
단정하게 옷입기(3)	0	3.7%	20.4%	75.9%
멋내기(4)	19	22.4%	16.1%	61.5%
고장난물건고치기(1)	1	11.8%	52.9%	35.3%

[표 15] 일상생활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1번	햇반을 직접 전자레인지에 2분 돌려서 반찬이랑 먹어본 적 있어요
4번	계란, 햄 간단한건 할 수 있으나 찌개, 국 종류는 어려워서 할줄 몰라요.
8번	네! 할 줄 알아요. (의미없는 대답이었음)
11번	할순 있는데 하기 귀찮아요.

2) 건강한 생활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일상생활에 대한 질문은 총 8개의 분야 2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술과담배조심하기”, “도움이 필요함”은 “병원이나 약국가기”, “할수없음”에서는 “매일운동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술과 담배조심하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6] 건강한 생활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건강한 음식먹기(4)	0	1.4%	9.7%	88.9%
몸을깨끗이하기(3)	0	0%	3.7%	96.3%
건강한이관리하기(3)	4	0%	22.2%	77.8%
매일운동하기(2)	0	21.9%	34.4%	43.8%
잠잘자기(2)	0	19.4%	33.3%	47.2%
병원이나 약국가기(4)	0	8.3%	50.0%	41.7%
약 잘 먹기(3)	0	11.1%	16.7%	72.2%
술과 담배 조심하기(2)	31	0%	0%	100%

[표 17] 건강한 생활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1번	다 알고 있어요. (관찰된 사항으로는 도움이 필요해 보임)
6번	운동은 경험은 있지만 방법과 시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7번	병원은 혼자가지 않아요. 부모님과 함께 가요.
8번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조절이 어려워요.

3)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분야 대한 질문은 총 9개의 분야 29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이웃들과 함께 살기”, “도움이 필요함”은 “원하는 곳으로 외출하기”, “할수없음”에서는 “우체국이용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활동지원사 활용하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18]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사람들과 대화하기 (3)	0	1.9%	25.9%	72.2%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기 (4)	21	12.6%	20.3%	67.2%
이웃들과 함께 살기(4)	2	1.6%	5.9%	92.5%
친척들과 친하게 지내기(3)	3	11.8%	27.5%	60.8%
활동지원사 활용하기(3)	36	33.3%	16.7%	50.0%
공무원들과 만나기(2)	3	28.4%	27.2%	44.5%
우체국 이용하기(4)	22	38.7%	28.3%	33.0%
페이스북, 카카오톡 사용하기(3)	4	8.1%	16.4%	75.5%
원하는 곳으로 외출하기 (3)	1	9.7%	33.8%	56.5%

[표 19]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1번	나의 어렵고 힘든게 느껴지나 어떻게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번	친구들을 만나지 않아요.
7번	친구도 없고 참여하는 모임도 없어요.
8번	친구를 사귀는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11번	믿을만한 사람이 없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14번	친구들이 바빠서 만날 사람이 없어요

4) 돈관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돈 관리에 대한 질문은 총 6개의 분야 13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 할수 있음”은 “먹을거리사기”, “도움이 필요함”은 “생활용품사기”, “할 수 없음”에서는 “생활요금내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생활요금내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0] 돈 관리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계산기 사용하기(2)	0	22.2%	16.7%	61.1%
버는 돈에 맞춰 쓰기 (3)	6	35.7%	32.6%	31.7%
먹을거리 사기 (2)	0	19.4%	16.7%	63.9%
생활용품 사기 (1)	0	11.1%	44.4%	44.4%
은행 이용하기(3)	0	35.2%	22.2%	42.6%
생활요금내기(2)	11	44.9%	27.6%	27.6%

[표 21] 돈관리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4번	직접 사본적은 없지만 부모님 심부름으로 사본적은 있어요.
7번	엄마가 관리해서 몰라요
13번	돈 계산이 어려워요. 대부분 부모님이 대신해줘요. 도움 주시면 할 수 있어요.

5) 이성과 사귀기 · 결혼생활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이성과 사귀기 · 결혼하기에 대한 질문은 총 5개의 분야 1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이성친구이해하기”, “도움이 필요함”은 “아이기르기”, “할수없음”에서는 “결혼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스킨십과성생활하기”, “아이기르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2] 이성과 사귀기 · 결혼생활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이성친구 이해하기 (3)	6	26.0%	17.4%	56.7%
데이트하기 (2)	16	30.0%	35.0%	35.0%
결혼하기 (2)	17	42.2%	31.7%	26.1%
스킨십과 성생활하기 (4)	28	29.2%	20.5%	50.2%
아이기르기 (3)	28	42.1%	50.5%	7.4%

[표 23] 이성과 사귀기·결혼생활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2번	남녀의 차이는 알지만 다른건 몰라요.
4번	결혼 안할거예요.

6) 나의 권리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나의 권리에 대한 질문은 총 4개의 분야 7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피해상황대처하기”, “도움이 필요함”은 “놀림, 무시, 장난에 대처하기”, “할수없음”에서는 “복지서비스 이용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나의 권리 알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4] 나의 권리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나의 권리 알기(2)	8	44.8%	32.7%	22.5%
놀림, 무시, 장난에 대처하기(1)	0	16.7%	50.0%	33.3%
복지서비스 이용하기(1)	2	56.3%	25.0%	18.8%
피해상황 대처하기(3)	1	17.4%	19.1%	63.5%

[표 25] 나의 권리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1번	저는 그런일이 생기면 그냥 피해요.
3번	원지는 모르지만 도움이 필요하다면 엄마에게 얘기해요.
9번	(권리라는 단어를 말하자 정색을 하며, 권리 = 정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음)
11번	나를 괴롭히면 욕하고 때리면 되요.

7) 취업·직장생활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취업·직장생활 대한 질문은 총 5개의 분야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 수 있음”은 “면접하기”, “직장생활하기”, “도움이 필요함”은 “직장생활하기”, “할수없음”에서는 “좋은직장찾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취업준비하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6] 취업·직장생활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좋은직장찾기(1)	1	52.9%	35.3%	11.8%
취업준비하기(3)	10	43.5%	40.6%	15.9%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취업정보찾기(1)	2	37.5%	37.5%	25.0%
면접하기(2)	4	37.5%	31.3%	31.3%
직장생활하기(1)	2	18.8%	50.0%	31.3%

[표 27] 취업·직장생활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1번	혼자하기는 어려워요. 도움이 필요해요.
3번	취업은 하고싶어요. 뭘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13번	저의 장래희망은 “유지컬 배우예요”

8) 여가활동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여가활동에 대한 질문은 총 5개의 분야 12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등산하기”, “도움이 필요함”은 “여행하기”, “할수없음”에서는 “체육센터이용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육센터이용하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28] 여가활동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여가활동 알고 계획하기(2)	0	19.4%	25.0%	55.6%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오락하기(2)	6	10.0%	30.0%	60.0%
체육센터 이용하기(3)	18	33.3%	38.9%	27.8%
등산하기(2)	4	3.1%	28.1%	68.8%
여행하기(3)	0	20.4%	55.6%	24.1%

[표 29] 여가활동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9번	등산은 싫고, 여행을 좋아요. 혼자 스스로 준비한 적은 없어요.
13번	혼자 여행을 준비하는 것은 어려워요. 하지만 여행은 좋아요. 라스베이거스와 만리장성 등 여행가고 싶어요.

9) 내가 살 곳

자립생활에 필요한 분야 중 내가 살 곳에 대한 질문은 총 4개의 분야 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다. “혼자할수 있음”은 “생활할집 계획하기”, “도움이 필요함”은 “생활에필요한 물품 준비하기”, “할수없음”에서는 “공공임대, 임대주택 신청하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공공임대, 임

대주택 신청하기” 분야에서는 “경험없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30] 내가 살 곳 분야별 점수

분야	경험없음	할수없음	도움이 필요함	혼자할수있음
생활할집 계획하기	2	31.3%	31.3%	37.5%
공공임대, 임대주택 신청하기(2)	12	66.7%	33.3%	0%
생활에 필요한 물품 준비하기	2	31.3%	50.0%	18.8%
생활하는 집 관리하기(2)	8	46.4%	39.3%	14.3%

[표 31] 내가 살곳 인터뷰 내용

응답자	답변
1번	혼자 살아갈 생각도 안해봤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요.
3번	37살에 결혼해서 아이 네명(아들3, 딸1)을 낳고 전원주택에서 살고 싶어요.
8번	자립이 원지 몰라요.
10번	혼자 사는 것보다는 방 4개 있는 방에서 가족들과 살고 싶어요.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성인발달장애인의 당사자 주도 자립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위해 설문 조사를 진행하였다. 자립지원팀 이용자 중심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나 의미 있는 결과를 몇 가지 도출해 낼 수 있었다.

첫째, 9개의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거나 할 수 없다는 항목이 골고루 분포되어있었다. 실질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을 때에도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이 관찰되었다.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이로 인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발생하여 연쇄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을 발휘할 기회도 비장애 또래 성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서는 평소에 해보지 못했던, 해볼 기회가 적었던 능력들을 개발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여러 경험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라고 분석되었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자립준비반에서는 건강, 금융, 일상생활, 지역사회탐방, 주거체험 5가지의 테마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을 직접 계획해서 해보고, 그러한 성공경험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자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기 위해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안에서 꼭 헬스장이나 체육센터를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도 충분히 실천할 수 있

도록 영상매체를 활용한 홈트레이닝과 스트레칭, 명상 등을 진행해보고자 한다.

또한 자신의 고정적인 수입과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분석해서 자신의 계획 하에 소비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나에게도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여 새로운 취미나 강점, 좋아하는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상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리의 경우에도 복잡한 도구 없이 즐길 수 있도록 레토르트 식품의 종류, 조리법, 정리 등의 이론 수업을 바탕으로 그룹홈에 방문하여 직접 만들어 먹고 청소와 빨래 등도 실습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발달장애인들의 경험치 향상과 더불어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잠재된 역량도 새롭게 발견되거나 강화될 것이다. 또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됨에 따라 자존감이 향상되고, 타인의 의도에 따라서가 아닌 욕구와 감정에 따라 자신의 의견과 생각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경험이 없어 도움이 필요한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수치가 많이 있다. 더욱이 의사표현의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주 보호자가 면밀하게 살피거나 주변인의 관심이 필요하다. 하지만 보호자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맞벌이가정이어서, 보호자가 더 이상의 의지가 없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개인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개발시켜주는데 어려움을 호소했다.

따라서 자립지원반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거나 배우고 싶은 것들을 직접 계획해서 해보고, 그러한 성공경험과 성취감을 바탕으로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지원하고자 한다. 사람중심계획(PATH)을 바탕으로 함께 행동하면서 배우고자 한다.

기존의 프로그램처럼 담당자가 준비하고, 담당자가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주체가 되고,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자립지원 코디네이터를 매칭함으로써 내가 잘하고,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해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연습을 하고자 한다.

셋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기 항목에서 경험 없음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만나는 사람이 많이 있고 이들과 친하게 지낸다는 것은 사회구성원으로써 관계망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다. 지역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직업준비반에서는 직업적인 능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에서 확장하여 보호된 공간이 아닌, 실제 그들이 살아가는 지역사회에서 다수가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아닌, 가능한 경우 그룹을 나누어 소그룹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본인이 함께하고 싶은 훈련생과 그룹을 지어, 활동을 계획하여 동아리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대화도 해보고, 그룹 활동을 함께하는 훈련생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 내에서 함께 도움을 줄 수 있는 외부 업체들과 연계하여 교육, 현장체험을 함께 진행하고자 한다.

타인과의 만남을 위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성공적인 경험이 쌓이게 된다면, 그들도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이렇듯 긍정적인 대인 관계를 형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VI. 연구의 한계

첫째, 설문에 참여한 대상자는 조사자가 임의 표집한 대상으로 진행하였으며, 조사자가 1대 1로 면접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성인기를 준비하는 발달장애인 가정을 대표성을 띠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추후 자립을 희망하는 장애가구에 대한 욕구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둘째, 자립을 준비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자립지원팀에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민하였다. 하지만 자립을 준비한다는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고 준비해야하는 사항으로 한 팀에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아닐 것이다. 이의 향후 기회가 될 때 복지관에서 자립을 준비시키기 위한 접근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진우 외 11인. 2014. 『발달장애인 개인별 지원계획수립 연구보고서』. 덕성여자대학교·보건복지부.
- 김용득 편저. 2016. 『장애인복지』. 서울:EM 커뮤니티
- 정소연 외 6인. 2016. 『성인발달장애인자립생활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서울시복지재단. 한국장애인개발원. 2013. 성인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방안 연구 -전환서비스 중심으로-.
- 서울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2016. 발달장애인중심의 자립생활 계획 및 지원 매뉴얼.
- 서울복지재단. 2015. 발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 매뉴얼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초 연구

평생교육팀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연구의 방법

II. 본론

1. 문헌적 검토
2.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분석
3. 양천해누리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욕구조사 분석

III.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UN의 세계인권선언 26조는 ‘모든 사람은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UN에서 모든 사람의 교육권을 강조하는 이유는 교육이 인성의 완전한 발달,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강화할 수 있음은 물론 인간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관용과 세계 평화를 촉진하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박은주, 2005).

이러한 평생교육은 특정 시기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전 생애를 대상으로 하며 모든 사람이 지닌 기본적 교육권으로서 평생학습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볼 때, 장애인 역시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이유로 평생학습권으로부터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2000년부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연구는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이 관련 기관의 정책보고서적 성격의 연구로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와 현황을 밝히는 정도에 불과 했으며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의 대상이 주로 발달장애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우리 복지관에서도 지난 2017년 양천구 장애인실태조사를 통하여 서비스 욕구에 대해 살펴본 바가 있다. 이를 살펴보면 가장 마지막 제언에서 중복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다양화를 권고하고 있으나 “양천구 장애인의 평생교육 서비스 이용 욕구 및 실태에 대한 현황은 살펴볼 수 없는 제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성인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조사분석하고 향후 복지관의 성인장애인 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여 교육의 기본권 확보와 다양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장애인복지관의 평생교육, 문화여가지원사업 등 그룹프로그램이 제한됨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비대면 서비스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진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을 설정하였다.

첫째, 복지관의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성과 실태를 조사분석한다.

둘째, 복지관의 평생교육 목적, 적절한 운영 기간 및 시간, 시설, 프로그램 선호도 등의 욕구를 조사분석한다.

셋째,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하여 중복적 서비스를 제한하고 다양화를 도모한다.

넷째, 감염병우려로 인한 서비스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대면서비스 기회 확보 및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도모한다.

3.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 분석에 관한 연구로서 문헌 연구와 실증적 조사 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적 검토를 통하여 평생교육의 개념과 필요성, 장애인 평생교육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에 필요한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복지관의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에 관련한 욕구조사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단, 응답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 설문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스스로 욕구를 표현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II. 본론

1. 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에 대한 선행연구

평생교육이 전 생애에 걸쳐 삶 전체 영역에서 이루어짐으로 볼 때, 장애인 평생교육은 교육분야에 한정되어 다루어지기보다 관련 분야와 협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발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교육과 복지가 갖고 있는 역할과 기능이 다를 수 있고 평생교육이 교육의 본질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는 특수교육이 연구와 실천 영역에서 장애인 평생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역할을 감당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극소수이긴 하지만 1998년 이래도 평생교육연구자들에 의해 먼저 장애인 평생교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제기되었고(기도수, 1998;한준상, 1999), 특수교육계 연구자들에 의해 많지는 않지만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박희찬, 2001;정동영, 정동일, 정인숙 2003), 2007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전면 개정과 함께 논의가 조금씩 확장되었고, 2015년 한국장애인평생교육복지학회 출범과 더불어 2016년 평생교육법 개정으로 관심과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연구의 급증으로 이루어졌다(주재승, 윤지현, 김두영, 2016).

이러한 흐름 가운데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동향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남진, 박재국의 연구(2007)와 김두영, 박원희, 김호연의 연구(2013)가 평생교육을 학교교육을 제외한 교육으로 정의하고 대학을 포함한 정규교육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특수교육관련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물을 선정하여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는 특수교육 뿐만 아니라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도 실행되고 있었지만 그 수가 매우 적은 편이었다.¹⁾

2. 문헌적 검토

1) 평생교육의 개념 정의

평생교육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그 개념이나 특성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며 21세기를 대비할 새로운 교육으로서 대안적 교육이념으로 제시되고 있다. 평생교육이란 흔히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에 걸친 배움을 강조하는 이념으로, 또는 ‘가정교육과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교육 통합

1) 이하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평생교육학 연구』, 2019

론으로 이해되고 있다(황중건,1992). 또한 평생교육은 ‘교육’ 그 자체와 동의어적인 성격을 지니는 개념으로, 교육의 모든 것을 총칭하는 본질론적 이념이며 이러한 점에서 사회교육이나 학교교육과 같이 특정의 실체적 영역을 지니는 명확한 개념이라기보다는 이를 하나로 묶는 이상향적인 이념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김중서,1987). 2)

우리나라 평생교육의 개념은 실정법상의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우리나라 ‘평생교육법’ 제 2조의 개념으로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동법 제 21조 2(장애인 평생교육과정)에 의하여 계속교육의 대상인 장애 성인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였다. 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의 평생교육은 학교교육과 학교 외의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습현상을 총칭하는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 수직적으로 통합한 교육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및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 이해주 외(2003)는 평생교육의 개념을 7가지로 정의하였다.

- 1) 평생교육은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되는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 2) 평생교육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교육활동이다.
- 3) 평생교육은 일정한 시기에만 한정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인간의 일평생에 걸쳐서 평생학습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활동이다.
- 4) 평생교육은 특정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활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다.
- 5) 평생교육은 교육자와 피교육자, 그리고 피교육자와 피교육자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행동의 변화를 추구하는 상호교육활동이다.
- 6) 평생교육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다.
- 7) 평생교육은 실생활 중심의 다양한 교육활동이다.

또한 차갑부(2004)는 평생교육 대신 평생학습(lifelong learning)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는 교육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관리하고 강제적으로 지도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으므로 평생에 걸쳐 사람들을 관리하거나 강제로 공부를 시키는 것은 곤란하며, 아동이나 청소년과는 달리 성인은 원리 자발적·자주적으로 공부해야 하는데 수동적인 평생교육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일생에 걸친 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개인학습이 중심이 된다. 더구나 학습은 어디까지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의지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하므로 평생학습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평생학습이란 일생동안 삶의 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학습이며, 평생교육은 평생학습을 바람직스럽게 마련해주고 육성해주는 일이다. 평생학습은 교육자 중심의 교육이 아니 학습자 중심의 학습을 의미한다(박은주,2005).

이상에서 살펴본 개념을 정리하면, 평생교육이란 학교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서 개인 및 집단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전문적 발달을 도모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즉, 평생교육은 인간의 최대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직적 교육활동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학습사회(learningsociety)또는 교육사회(educativesociety)라고 하는 것도 이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성낙돈 외,2009).

2) 김두영, 박원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2013

2)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성

평생교육의 개념적 특성에 대해서는 학자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Dave(1976)는 평생교육의 개념으로써 20가지를 제시하기도 하였으며 조화태(2003)는 "개인의 계속적인 성장과 사회 적응을 기하기 위해 개인의 일생에 걸쳐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개방적인 교육의 기회를 모든 개인에게 균등하게 제공하며, 또한 개인의 일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모든 시간적, 공간적 형태의 교육을 상호 연계하여 균형적이며 통합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모든 교육적 노력과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논어에 나타나 있는 평생교육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이념추구를 위하여 태교에서부터 시작하여 죽을 때까지 전 생애에 걸쳐 행하여지는 교육을 총칭하며 인간의 발달단계에 따라 유아교육, 아동교육, 청년교육, 성인교육, 노인교육을 수직적으로 통합한 것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을 수평적으로 통합한 교육"이라고 정의하였다(한국교육개발원, 2005).

3) 평생교육의 필요성

제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기술이 기존 산업과 융합되거나 여러 분야의 신기술과 결합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능정보사회는 사회적으로는 공감사회로 변화하고 기술은 지능정보기술로 진화하며 경제는 서비스 경제화, 공유경제, 체험경제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듯 지능정보기술이 생활과 결합되는 현대 사회에서는 학교교육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평생 교육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급속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의 평생교육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다. 인간의 교육적 욕구 충족, 자기계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교육제도는 절실하며, 평생교육은 새로운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교육이념이자 새로운 교육제도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평생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필요성을 랭그랑은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측면으로 정리하고 있다(Lengrand, 1975). ① 인간의 이상·관습·개념의 가속도적 변화 ② 인구의 증가와 평균수명의 연장이 교육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를 초래한 점 ③ 과학기술의 진보와 산업·직업구조의 변화 ④ 정치의 변동 ⑤ 대중 매체의 발달과 정보처리능력의 필요성 증대 ⑥ 여가의 증대와 활용 ⑦ 생활양식과 인간관계의 위기 ⑧ 현대인의 정신과 육체의 부조화 ⑨ 이데올로기의 위기에 있어서 정체감(identity)의 혼란이라고 하였다.

권이종 등(2001)은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학교교육의 한계로 인한 대안적 교육체제의 필요성 대두,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른 지식사업 시대의 도래, 인간의 자기성장과 자아실현 욕구 충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직업세계의 변화,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한 가정의 교육기능 약화, 교육의 기회 균등 보장 측면, 생애주기의 변화와 여가 시간의 증대, 노령화 사회 대비,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청소년의 올바른 이해와 육성, 인류의 생존을 위한 환경교육의 측면에서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권이종(1995)은 이러한 평생교육의 필요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① 민주복지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사회의 일환으로 평생교육을 희구하는 국민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데 있다.
- ② 삶의 질 향상과 윤리학적 위기극복을 대처할 수 있기 위하여 또한 새천년의 인류는 이러한 심각한 위기의식 하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극복을 위한 교육의 과제로 평생교육이 중대하고도 필연적이다.
- ③ 정규 학교교육의 한계성과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다. 인간교육이 상실된 입시위주 교육의 기계적이고 도구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안적인 인간화 교육으로서의 평생교육이 필연적으로 요청된다.
- ④ 평생교육에 대한 시대적 필요성이다. 지식의 폭증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요즈음 계속 배우지 않으면 곧 퇴보자가 되고 만다. 현대 사회에서의 교육에는 졸업이나 끝이 있을 수 없다.
- ⑤ 사회 각종 기관 및 산업체의 인적·물적 교육자원을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력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 ⑥ 학교의 교육자원의 활용과 활성화를 통해 지나친 학교교육 의존도와 부담을 경감함은 물론 학교교육에 투자되는 막대한 교육요원과 시설의 신설 및 확충을 위한 교육예산을 절감하고 교육수혜자 부담의 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
- ⑦ 평생교육체제를 통해 학생·입학 시기·수학년 한 등을 융통성 있게 운영하여 개인의 사정·형편·능력에 따라 적합한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선택·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수요자 중심 교육체제의 구축과 사회구성원의 교육권과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권이종·이상오, 2010).

위와 같이 여러 학자들 사이에서 견해 차이는 있으나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사회의 변화에 따른 적응을 위해 학교교육 이후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을 공통으로 주장하고 있다.

4) 장애인 평생교육의 필요성

대한민국 ‘헌법’ 제 31조 제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교육의 기회 균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법’ 제 3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학습권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 4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평생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평생교육의 이념을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 제18조(교육)1항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능력·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의 각자 능력에 맞는 학습을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제4항에서는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애를 이유로 입학의 지원을 거부하거나 입학시험 합격자의 입학을 거부하는 등의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여 장애인이 평생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제5항에서는 장애인이 불편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학교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장애인의 학습권을 위한 편의시설m 제공을 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고, 그 결과 배움이 삶을 충만하게 하여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보장이 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의 필요성으로 인간의 자아실현 욕구 충족과 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함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면, 장애인이 사회 속에서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장애인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 조흥식(2001)은 평생교육은 지식과 기술의 증진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신뢰와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참여의 요소가 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필요한 능력과 자심감 및 여러 가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장애인의 평생교육은 일반인과 다르지 않다. 이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공공의 차원에서 실제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저절로 장애인 평생교육이 일반인 평생교육에 포함되어 행해질 수 없다는 점도 명심해야 한다. 장애인이나 일반인이나 출생에서 죽을 때까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은 똑같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개관적 지표는 마찬가지로이기 때문에 평생의 기본 개념을 전제로 하여 장애인의 평생교육 모형도 생성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의미에서 평생교육은 인간의 배움 본능을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실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배움의 과정이다(한준상,2003). 또한 장애인에게 평생학습이 필요한 것은 첫째, 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생의 수단이자 목표이기 때문이다. 둘째,장애인의 평생학습은 재활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셋째,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은 장애인복지가 성취된 현실적 완성도이기 때문이다. 장애인들은 대체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장애 특성으로 인한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므로 타인의 도움 없이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에 적응하여 독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평생교육은 필수 불가결하며,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을 위한 특별한 지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5) 평생교육의 분류

한국의 평생교육법 제2조의 정의에 근거하면 평생교육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6개로 분류되어 있다. 이는 곧,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분류와 일맥상통하는 개념으로써,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환하기 위하여 프로그램들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김두영, 2013)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현대사회에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로 가치가 새롭게 재조명되고 있고, 현대인의 문화생활 및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용한 문화콘텐츠로 확산되면서 이것을 학습자의 요구에 맞게 보다 쉽고 빠르게 제공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 사회에서 무수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현대인이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서 각자의 필요와 요구에 맞게 즉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목적과 내용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시켜 정보가치를 향상시켜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김진화·고영화,2009).

① 기초문해교육

기초문해교육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과 이를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고,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기초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기초문해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한글문해 프로그램, 한글생활문해 프로그램,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한글문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이고, 한글생활 문해프로그램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 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은행이용법, 대중교통수단 이용법, 가전제품 사용 설명서 보기 등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초자립생활 프로그램은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및 지역사회적응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정의	예시
한글문해프로그램	장애 성인들 중 비문해자가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는 문자해득능력을 갖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한글교실, 문해교실, 늘배움교실, 장애인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도전문맹 등
한글생활문해프로그램	문자를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문해활용능력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급문해반, 발달장애 컴퓨터반, 컴퓨터 문해교육반, 한올다리 문학회, 푸르메 문화학교, 등
기초자립생활프로그램	중증의 발달장애 성인을 대상으로 신변처리기술, 일상생활기술, 사회성 기술 및 지역사회적응 기술을 익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자립생활기술 프로그램, 자립역량강화프로그램, 행복한 교실 프로그램 등

<표 1>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기초문해교육

※ 출처: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② 직업능력향상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은 다양한 직업에 대한 인식과 직업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술과 태도, 의사소통 기술, 사회생활기술 등을 익히도록 하는 하고, 자기의 적성, 흥미, 능력에 알맞은 일을 택하여 그것에 필요한 지식, 기능, 태도, 판단, 습관 등을 개발하고 이런 능력을 계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직업능력향상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 자격인증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기초직업교육 프로그램은 직업 생활을 수행하는 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식(직업 흥미, 가치관, 의욕 등)과 작업 태도 및 습관(책임감, 자발성, 안전수준, 작업의 준비 및 마무리, 출결 등) 그리고 직업 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포괄적인 교양교육 프로그램이며, 전문직업교육 프로그램은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이다. 또한 자격인증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본 작업 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정의	예시
기초직업 교육프로그램	직업생활을 수행하는데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직업의식과 작업 태도 및 습관 그리고 직업지식 및 정보 등을 습득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직업적응훈련, 직업전환서비스, 취업준비프로그램, 자립지원훈련, 보호작업훈련, 인성·사회성 함양 교육 등
전문직업 교육프로그램	특정한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준비하거나 현직에 있는 근로자들이 직무수행 상 필요한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원하는 프로그램	바리스타교실, 빵 굽는 교실, 쿠키반, 헬스키퍼반, 캐리커처 디자이너 양성반, 기능경기대회 준비반 등
자격인증프로그램	장애인들이 주로 종사할 수 있는 표준 작업 기능을 익혀 소정의 자격을 제도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컴퓨터 자격증 취득반, 평생 공예 지도자 양성과정, 점역 교정사 양성과정 등

<표 2>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직업능력향상교육

※ 출처: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③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은 장애인 평생교육 분야에서도 핵심적인 실천 영역으로서 다양한 교육적 가치와 효과가 여러 연구들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문화예술교육은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한 스포츠 활동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문화예술교육 중분류 영역은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여가스포츠 프로그램은 레저스포츠는 물론,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프로그램	정의	예시
여가스포츠 프로그램	레저스포츠를 포함하여 체력증진과 건강한 생활을 목적으로 여가 시간에 행할 수 있는 자발적인 신체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파크골프, 스케이트, 볼링, 승마, 탁구, 보치아, 배드민턴, 요가, 댄스 등
문화예술향유 프로그램	장애인들의 문화예술 접근 기회를 확충하고, 문화예술을 일상생활에 접목하여 삶의 문화를 보다 풍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미술교실, 노래교실, 생활공예, 리본아트, 풍선아트, 사진교실 등
문화예술숙련 프로그램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문화 예술적 가치가 높은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도하는 프로그램	서예교실, 난타교실, 도자기공예, 가죽공예, 합창단, 연극동아리, 영상미디어교실 등

<표 3>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문화예술교육

※ 출처: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④ 인문교양교육

인문교양교육은 장애인이 소속한 사회에서 하나의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적·감각적·지적·정서적 및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돕고,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인문교양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사회재활 프로그램, 생활소양 프로그램,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사회재활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신체적·감각적·지적·정서적 및 사회적 기능의 회복을 돕고,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 교육을 말한다. 생활소양 프로그램은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인문학적 교양 프로그램은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역사·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여기에는 문화예술 관련 이론 및 전문지식을 다루는 아카데미형 강좌 프로그램, 예컨대 서양미술사, 클래식 감상과 이해, 영화예술의 이해 등의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프로그램	정의	예시
사회재활 프로그램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의 생활에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준 높은 자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련의 재활 교육 프로그램	지체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중도 시각장애인 재활프로그램, 수화교실, 보조기기활용 교육 등
생활소양 프로그램	건강한 삶과 생활을 위한 심리적 안정을 촉진하며, 현대인이 갖추어야 할 다양한 소양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원예교육, 외국어교실, 생활요리, 성교육, 수지침 등
인문학적 교양프로그램	현대인으로서 인문학적 교양과 상식을 확장하며 문학, 역사, 철학과 관련된 체험과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지역문화탐방, 문화작품의 이해, 생활과학, 건강강좌, 인문학강좌, 역사탐방 등

<표 4>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인문교양교육

※ 출처: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⑤ 학력보완교육

학력보완교육은 장애 또는 가정환경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학력을 취득하지 못한 장애인들에게 학교 이외의 교육을 통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학력보완교육의 경우 평생교육 분류체계에 의해 특별히 분류가 어렵거나 새로운 중분류영역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없어 한국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 체계의 중분류 영역을 그대로 따랐으며,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등학력보완프로그램,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의 세 가지 중분류 영역이 있다

프로그램	정의	예시
초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초등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 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하는 소정의 프로그램	중입검정고시반, 초등교과 연계 강좌 등
중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중·고등학교 학력의 보완 및 인증 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고입검정고시반, 대입검정고시반, 대학수능 준비반 등
고등학력보완 프로그램	전문학사 및 학사 학력의 인증규정에 의해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에서 운영되는 소정의 프로그램	학점은행제 과정, 독학사 강좌 등

<표 5>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학력보완교육

※ 출처: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⑥ 시민참여교육

시민참여교육은 시민교육과 참여교육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시민교육은 현대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 데 목적을 둔 교육을 말하며, 참여교육은 사회에 참여함으로써 국가의 발전을 꾀하는 공익적인 활동을 유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따라서 시민참여교육은 현대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능력을 개발하며,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을 말한다. 시민참여교육의 중분류 영역은 시민의식 프로그램, 시민역량 프로그램, 시민활동 프로그램으로 분류된다.

프로그램	정의	예시
시민의식 프로그램	현대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무성을 개발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찾게 하며, 전반적인 사회문제를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애인권교육, 장애인 선거참여 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여성장애인의 성주권 교육, ourvoice 등
시민역량 프로그램	공익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민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장애인활동가 양성과정, 장애인인권강사 양성과정, 수화통역사 양성과정 등
시민활동 프로그램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익적 차원에서 개인 및 집단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	수화교실, 지역나눔활동 프로그램, 장애인 봉사활동 동아리 등

<표 6> 장애인 평생교육에서의 시민참여교육

※ 출처: 김두영(201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연구

4)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현황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기관에 포함되는 시설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학교는 물론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 수련시설, 사회 복지시설, 직업훈련시설, 고용지원시설 등이 모두 성인장애인을 위한 교육시설에 해당하며,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학원, 장애인복지

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고용지원시설 등도 모두 장애인 평생교육시설에 포함된다(국가인권위원회, 2004). 성인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은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송소연 외(2011)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중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체육시설, 수련시설, 점자도서관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보호작업장과 근로사업장 등 총 9가지 영역을 장애인 평생교육 기관 실태 파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 주장하며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기관의 범주를 <그림 1>과 같이 도식화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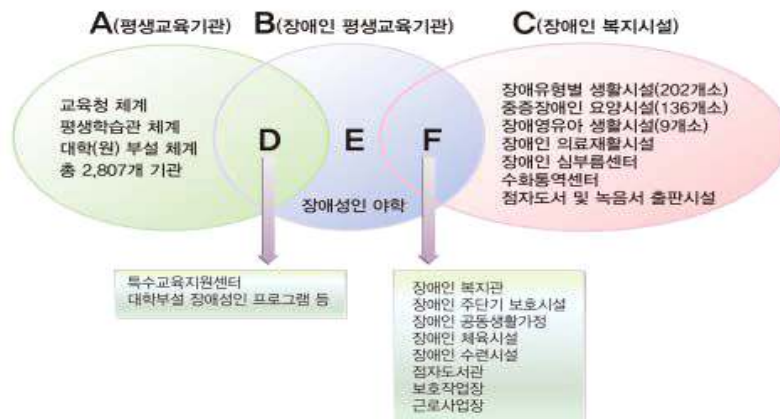


그림 32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범주에 대한 개념도

※ 출처: 송소연 외, 2011

위의 도식에 의하면 교육부 소속의 장애성인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 교육청의 특수교육지원센터와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제시되었다. 이것은 지역 사회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요구를 수용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대학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하여 장애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합한 운영 방법을 마련한다면 성인장애인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이다(김석진, 2013) 국립특수교육원(2012)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 장애인들은 장애인 지역 사회재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야학, 장애인 직업훈련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에서 평생교육 6가지 영역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분	전체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전체	3,812	203	383	761	542	1,807	116
생활시설	1,031	67	84	146	145	568	24
직업시설	311	5	21	141	47	94	3
재활시설	2,110	76	238	349	301	1,066	80
직업훈련기관	104	0	0	101	3	0	0
야학	181	53	40	8	34	37	99

구분	전체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지원센터	75	2	3	16	12	42	0

<표 62>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기관별 이용 대상 및 프로그램 내용

2. 서남권역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분석

1) 설문 조사 분석 방법 및 결과

본 항목에서는 서남권역장애인복지관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3기관에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에 대하여 공문을 통한 협조를 진행하였다. 13개 기관 중 11개 기관이 응답 하였으며 각 기관별로 항목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 유의미한 값만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설문기관	회수기관	조사기간
서남권역장애인복지관	13기관	11기관	2020년 8월 27일 ~ 9월 3일

<표 63>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설문조사 기관 현황

2) 설문의 구성

설문의 구성은 프로그램 분류, 내용, 참여대상, 운영내용(기간, 횟수, 주기, 요일, 진행시간), 이용료, 감사여부, 실인원, 비대면서비스 가능 여부에 대한 항목으로 실시되었다.

3) 자료분석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따라 사업분류를 요청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분류	주요내용	사업수	백분율(%)
기초문해교육	한글을 읽고, 쓸 수 있도록 하는 문자해독능력과 생활 속에서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며 주어진 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 문해 활용능력을 계발하고 초등학력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15	13
학력보완교육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에 명시된 소정의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이수 단위 및 학점과 관련된 학력 인증 평생교육	-	-
직업능력교육	직업에 필요한 자격과 조건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주어진 역할과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	-
문화예술교육	문화예술적 상상력과 창의력을 촉진하고 문화예술 행위와 기능을 숙련시키는 일련의 과정과 일상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접목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평생교육	85	74

분류	주요내용	사업수	백분율(%)
인문교양교육	특정 직업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기술 획득을 위한 학습보다는 교양을 갖춘 현대인으로서 전인적인 성품과 다양한 소양을 개발하고,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경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평생교육	7	6
시민참여교육	현대의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과 역량을 개발하며, 사회통합 및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시민참여를 촉진하고 지원하는 평생교육	-	-
복합	일상생활 문화여가 평생교육에 대해서 그룹을 구성하여 그룹 원에게 일정표대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	8	7
합계		115	100

<표 64>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분류에 따른 사업현황

총 115개의 프로그램이 조사되었으며 세부 프로그램 분류는 다음과 같다.

기초문해교육	프로그램	총 개수
	기초문해교실, 한글교실, 정보화교실, 스마트폰교실, 작문교실 등	15개

<표 65>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기초문해교육 세부 프로그램 현황

기초문해교육의 주기로는 주 2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주 1회가 3개로 많았고, 주1~2회, 주3회, 주5회, 연2회도 있었다.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8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 30,000원과 월 10,000원 순이었다. 이용료의 평균은 8,333원이며, 장애유형은 무관이 가장 많았다.(무관11, 뇌성마비1, 청각1, 발달2)

이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3개, 나머지는 성별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장애인이 아닌 그 외 참여자로 보호자, 장애가족 등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은 3개로 나타났다.

기초문해교육 중 비대면 서비스 가능한 프로그램은 7개, 불가능은 7개, 기타 1개(코로나 장기화 시 고려)로 나타났다.

15개의 프로그램 중 강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10개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서비스 가능한 사업은 7개, 불가능은 7개, 기타(코로나 장기화 시 비대면 고려)1개로 나타났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명	총 개수
	종합공예교실, 노래교실, 댄스교실, 미술교실, 캘리그래피교실, 요리교실, 국악교실, 탁구교실, 연극아카데미, 솔런, 보치아, 원예교실, 문화탐방 등	85개

<표 66>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문화예술교육 세부 프로그램 현황

문화예술교육의 주기로는 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주2회, 월2회가 많았고, 매일, 월1회, 연2회 연3회도 있었다.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가장 많았으며, 월 10,000

원, 월 20,000원, 월 30,000원, 월 40,000원도 많이 나타났고, 이용료의 평균은 19,676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무관이 36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발달장애가 29개로 많았다. 이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3개, 나머지는 성별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장애인이 아닌 그 외 참여자로 보호자, 장애가족, 지역주민 등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은 11개로 나타났다. 85개의 프로그램 중 강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49개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서비스 가능한 사업은 18개, 불가능은 62개, 기타(코로나 장기화 시 비대면 고려)5개로 나타났다.

인문교양교육	프로그램명	총 개수
	문학테라피, 땀땀이교실, 인권동아리활동, 보라매회, 역사여행, 성인권교육, 세상을바꾸는1시간	7개

<표 67>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인문교양교육 세부 프로그램 현황

인문교양교육의 주기로는 주 1회가 가장 많았으며, 매일, 월1회 도 있었다.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4개로 가장 많았으며, 월 10,000원, 월 20,000원도 있었으며, 이용료의 평균은 5,000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무관이 3개, 발달장애가 2개, 지체·뇌병변장애가 2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개, 나머지는 성별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장애인이 아닌 그 외 참여자로 장애가족 등이 참여가능한 프로그램은 2개 나타났다. 7개의 프로그램 중 강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4개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서비스 가능한 사업은 3개, 불가능은 4개로 나타났다.

복합	프로그램명	총 개수
	아카데미, 인생은아름다워, 자립생활교실, 심리지원, 굿데이프로그램, 해누리청년대학 등	8개

<표 68>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복합교육 세부 프로그램 현황

우리복지관의 해누리대학과 같이 복합적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주기로는 주 5회가 가장 많았으며, 주 1회, 주 2회도 있었다. 이용료는 무료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은 없었으며, 월 5,000원 ~ 월250,000원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시간당 10,000원도 있었다. 이용료의 평균은 89,375로 나타났다. 장애유형은 발달장애가 7개, 무관이 1개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은 1개, 나머지는 성별 무관하다고 답했으며 장애인이 아닌 그 외 참여자는 불가하다고 답했다. 8개의 프로그램 중 강사를 활용하는 프로그램은 7개로 나타났으며, 비대면 서비스 가능한 사업은 1개, 불가능은 7개로 나타났다.

11개 기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문화예술프로그램이 74%에 해당하며, 기초문해교육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시민사회교육은 1개 기관도 없어 아쉬움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올해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대면 전환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평생교육 사업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많은 편이었다. 직업능력교육에 응답 항목이 없는 것은 대부분의 기관이 “직업재활팀”과 “평생교육팀 혹은 서비스지원팀”으로 구분되면서 직업재활팀에서 진행되는 직업능력 교육에는 응답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양천해누리복지관 프로그램 이용자 욕구조사 분석

1) 설문 조사 분석 방법 및 결과

본 연구에서는 표집 목표를 150부 이상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장기간 그룹프로그램, 특히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면서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상태에서 조사를 실시하여 표집인원이 매우 적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이용자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 하였으며 총 33부가 회수되어 94%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회수분 중 4부는 부실 작성으로 분석에서 제외 하였다.

조사대상	표본	유효표본	조사기간
지역 장애인	35부	29부	2020년10월26일~30일

<표 69>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현황

2) 설문의 구성

설문은 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천해누리복지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계되었다.

설문은 모두 2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문당사자의 일반적 사항, 이용현황, 평생교육에 대한 욕구를 묻는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3) 자료분석

① 일반적 사항(성별, 연령, 응답자)

구분	빈도	백분율	
응답자	본인	19	66%
	부	0	0%
	모	6	21%
	활동지원사	1	3%
	기타	3	10%
성별	남	15	52%
	여	14	48%
연령	청년기(19세~29세)	16	55%
	장년기(30세~45세)	3	10%
	중년기(46세~64세)	8	22%
	노년기(65세 이상)	2	7%

<표 70>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일반적 사항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 15명(52%) 여자14명(48%)으로 나타나 남녀응답자가 고른 분포를 나

타냈다. 설문응답자는 본인 19명(66%), 모 6명(21%), 기타 3명(10%), 활동지원사 1명(3%) 순으로 나타나, 본인 작성 비율이 높아 본인의 의견이 잘 반영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연령대는 청년기 16명(55%), 중년기8명(22%), 장년기 3명(10%), 노년기 2명(7%) 순으로 청년기와 중년기 응답자가 7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② 최종학력

구분		빈도	백분율
최종학력	초등학교 중퇴 이하	0	-
	초등학교졸업	0	-
	중학교졸업	0	-
	고등학교졸업	24	86%
	전문학사(2, 3년제)	2	7%
	학사(4년제이상 대학졸업)	2	7%
	석사이상	0	-
합계		28	100%

<표 71>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최종학력 사항

응답자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졸업이 24명(86%), 전문학사2명(7%), 대학졸업 2명(7%) 순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졸업이 83%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③ 수급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수급여부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9	32%
	조건부 수급자	0	-
	차상위 계층	1	4%
	해당 없음	18	64%
합계		28	100%

<표 72>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수급여부 사항

수급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9명(32%), 차상위 계층1명(4%), 해당없음 18명(64%)으로 나타났으며 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이 전체의 34%의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④ 장애유형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명	지체	4	21%

구분		빈도	백분율
	뇌병변	5	26%
	시각	0	-
	청각	1	5%
	언어	0	-
	정신	2	11%
	발달	7	37%
합계		19	100%

<표 73>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장애유형 사항

응답자의 장애유형을 보면 발달장애 7명(24%), 뇌병변 5명(17%), 지체장애 4명(14%), 정신장애 2명(7%), 청각장애 1명(3%) 등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이중 5명은 중복 장애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⑤ 장애정도

구분		빈도	백분율
장애정도	중증	25	86%
	경증	4	14%
합계		29	100%

<표 74>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장애정도 사항

응답자의 장애정도는 중증이 25명(86%), 경증이 4명(14%)으로 중증장애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⑥ 거주지

구분		빈도	백분율
거주지	목동	3	10%
	신정동	17	59%
	신월동	3	10%
	기타지역	6	21%
합계		29	100%

<표 75>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거주지 사항

응답자의 거주 지역은 신정동 17명(59%), 기타지역 6명(21%), 목동 3명(10%), 신월동 3명(10%)으로 복지관이 위치한 신정동이 과반 이상으로 나타났고 양천구 외 기타지역(강서구, 영등포구, 구로구)의 응답자도 다수 참여 하였다.

⑦ 이용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이용기간	1년미만	2	7%
	1년이상~2년미만	5	17%
	2년이상~3년미만	5	17%
	3년이상~5년미만	5	17%
	5년이상	12	41%
	이용한적없음	0	-
합계		29	100%

<표 76>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이용기간 사항

응답자들의 이용기간을 보면 1년미만 2명(7%), 1년이상~2년미만 5명(17%), 2년이상 3년미만 5명(17%), 3년이상~5년미만 5명(17%), 5년이상 12명(41%)으로 응답자 모두는 복지관 이용경험이 있고 5년이상 41%, 1년이상 5년미만이 총 51%를 나타내 응답자의 대부분은 장기 복지관 이용자로 구성 되어 있다.

⑧ 교육의 필요성

구분		빈도	백분율
평생교육의 필요성	매우 필요하다	22	76%
	조금 필요하다	4	14%
	보통이다	3	10%
	필요 없다	-	-
	전혀 필요 없다	-	-
합계		29	100%

<표 77>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교육의 필요성 사항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 “매우필요하다” 22명(76%), “조금필요하다” 4명(14%), “보통이다” 3명(10%)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90%가 평생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답하여 평생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이 동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⑨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경험

구분		빈도	백분율
이용경험	있다	19	66%
	없다	10	34%
합계		29	100%

<표 78>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프로그램 이용경험 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이용 경험을 묻는 질문에 “있다” 19명(66%), “없다” 10명(34%)로 응답하여, 평생프로그램 이용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⑩ 이용한 적이 없다면 이유는?

구분		빈도	백분율
평생교육을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	정보가 부족해서	5	39%
	필요 없어서	2	15%
	시간이 없어서	4	31%
	경제적부담	-	-
	먼 거리	1	8%
	기타 사유	1	8%
합계		13	100%

<표 79>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정보가 부족해서” 5명(39%), “시간이 없어서” 4명(31%), “필요 없어서” 2명(15%), “거리가 멀어서” 1명(8%), “기타사유(기회가 없어서)” 1명(8%) 순으로 조사되었다. 응답 중 “정보가없어서” 가 38.5%로 높게 나타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과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⑪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만족도

구분		빈도	백분율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	매우 만족	6	32%
	만족	12	63%
	보통	1	5%
	불만족	-	-
	매우 불만족	-	-
합계		19	100

<표 80>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프로그램 내용 만족 사항

참여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설문에서 “만족” 12명(63%), “매우만족” 6명(32%), “보통” 1명(5%) 순이었으며, 참여한 프로그램에 만족한 응답자가 전체의 95%로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⑫ 만족도에 대한 응답 이유

구분		빈도	백분율
만족도에 대한 응답 이유	강사(담당자)의 역량	2	12%
	수업내용	15	88%
	시설	-	-
	기타	-	-
합계		17	100

<표 81>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만족도에 대한 응답 이유

만족도에 대한 응답 이유에 대한 설문에는 “수업내용” 15명(88%), “강사의 역량2명(12%)의 순으로 조사되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를 좌우하는 요소는 대부분 수업의 내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⑬ 수강한 프로그램

구분		빈도	백분율
수강한 프로그램	정보화교육	7	28%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5	20%
	요가	3	12%
	노래	2	8%
	공예	5	20%
	기타	3	12%
합계		25	100

<표 82>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수강한 프로그램 현황

수강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에 정보화교육 7명(28%), 여성장애인프로그램 5명(20%), 공예 5명(20%), 요가 3명(12%), 기타3명(12%), 노래 2명(8%)으로 수강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정보화교육, 여성장애인 프로그램, 공예 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⑭ 교육 받은 기관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받은 기관	복지관	29	94%
	주민센터(관공서)	-	-
	직업훈련기관	1	3%
	문화센터	1	3%

구분	빈도	백분율
기타	-	-
합계	31	100

<표 83>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교육 받은 기관

교육받은 기관에 대한 질문에 복지관29명(94%), 직업훈련기관1명(3%), 문화센터1명(3%)로 나왔으며, 응답자의 대부분이 복지관에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높게 나타났다.

⑮ 평생교육 프로그램 욕구

구분	빈도	백분율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등)	1	2%
	정보화교육(컴퓨터, 스마트폰교실 등)	6	15%
	건강관리교육(건강강좌, 요가 등)	8	20%
	인문교양교육(인권, 인문학 교육 등)	5	12%
	여가·취미교육(공예, 요리교실, 국악교실 등)	12	29%
	직업능력교육(자격증 취득, 이미지메이킹 등)	7	17%
	기타	2	5%
	없음	-	-
합계	41	100	

<표 84>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참여하고 싶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여가·취미교육”가 12명(29%), “건강관리교육” 8명(20%), “직업능력교육” 7명(17%), “정보화교육” 6명(15%), “인문교양교육” 5명(12%), “기타” 2명(5%), “기초문해교육” 1명(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가·취미교육”의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⑯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의 목적

구분	빈도	백분율	
교육의 목적으로는 ?	건강관리	11	28%
	취미동호	6	15%
	교양함양	2	5%
	여가선용	10	26%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7	18%

구분		빈도	백분율
	배움의 기쁨	3	8%
	기타	-	-
합계		39	100

<표 85> 이용자 프로그램 욕구분석 참여를 희망하는 교육의 목적

참여를 희망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적으로는 “건강관리”가 11명(28%), “여가선용” 10명(26%), “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7명(18%), “취미동호” 6명(15%), “배움의 기쁨” 3명(8%), “교양 함양” 2명(5%)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의 프로그램 이용에 대한 목적 중 “건강관리”가 가장 높게 드러났다.

⑰ 프로그램 희망 요일

구분		빈도	백분율
희망 요일은?	월요일	10	18%
	화요일	10	18%
	수요일	14	25%
	목요일	14	25%
	금요일	7	12%
	토요일	2	4%
합계		57	100%

<표 86> 이용자 프로그램 희망 요일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참여희망요일은 “수요일”과 “목요일”이 각각 14명(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뒤로 “월요일” 10명(18%), “화요일” 10명(18%), “금요일” 7명(12%), “토요일” 2명(4%) 순으로 드러났다. 주말인 토요일보다 평일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⑱ 프로그램 희망 시간대

구분		빈도	백분율
희망 시간대는?	오전 9시~12시 사이	17	59%
	오후 1시~4시 사이	11	38%
	오후 4시~6시 사이	1	3%
	그 외 시간	-	-
합계		29	100%

<표 87> 이용자 프로그램 희망 시간대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 시간대로 설문 참여자 절반이상이 “오전 9시~12시 사이” (59%)의 오전 시간에 가장 높은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뒤로 “오후 1시~4시 사이” 11명 (38%), “오후 4시~6시~ 사이” 1명(3%)의 순으로 드러났다.

⑱ 프로그램 희망 이용기간

구분		빈도	백분율
희망 이용 기간은?	1회성 교육	1	3%
	1~3개월 미만	6	20%
	3~6개월 미만	6	20%
	6~9개월 미만	2	7%
	9~12개월 미만	5	17%
	1년 이상	10	33%
합계		30	100%

<표 88> 이용자 프로그램 희망 이용 기간

평생교육 이용기간으로 “1년 이상” 이 10명(33%), “1~3개월 미만” 6명(20%), “3~6개월 미만” 6명(20%), “9~12개월 미만” 5명(17%), “6~9개월 미만” 2명(7%), “1회성 교육” 1명(3%)의 순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이 가장 높게 드러났다.

㉔ 프로그램 개선사항

구분		빈도	백분율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은?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5	14%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6	17%
	프로그램의 다양화	13	37%
	강사의 전문성	2	6%
	재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	7	20%
	공간의 안정화	1	3%
	기타	1	3%
합계		35	100%

<표 89> 이용자 프로그램 개선사항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선사항으로 “프로그램의 다양화” 이 13명(37%), “재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 7명(20%),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6명(17%),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5명(14%), “강사의 전문성” 2명(6%), “공간의 안정화” 1명(3%), “기타” 1명(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강사 및 공간의 문제보다 프로그램 자체의 개선점들에 욕구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㉑ 프로그램 주당 희망 회기

구분		빈도	백분율
주당 희망 회기	주 1회	5	17%
	주 2회	12	41%
	주 3회	7	24%
	주 4회	3	10%
	주 5회	2	7%
	기타	-	-
합계		29	100%

<표 90> 이용자 프로그램 주당 희망 회기

평생교육 프로그램 희망하는 주당 회기로 “주 2회”가 12명(41%), “주 3회” 7명(24%), “주 1회” 5명(17%), “주 4회” 3명(10%), “주 5회” 2명(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주 2회”의 희망자가 가장 높게 드러났다.

㉒ 수강료 지불 의사 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지불 의사	있다.	22	76%
	없다.	7	24%
합계		29	100%

<표 91> 이용자 프로그램 수강료 지불 의사 여부

프로그램 이용료 지불 의사로 “있다”가 22명(76%), “없다”가 7명(24%)로 나타났으며,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할 시에 이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가 과반수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㉒-1 희망 이용료

구분		빈도	백분율
희망하는 이용료는?	월 1만원 이하	10	40%
	월 1만원~2만원	10	40%
	월 2만원~3만원	3	12%
	월 3만원~4만원	1	4%
	그 밖 금액	1	4%
합계		25	100

<표 92> 이용자 프로그램 희망 이용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이용료를 납부할 시에 희망하는 이용료로 “월 1만원 이하” 10명(40%), “월 1만원~2만원” 10명(40%), “월 2만원~3만원” 3명(12%), 월 3만원~4만원 1명(4%)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월 1만원 이하”와 “월 1만원~2만원”이 설문참여자 25명 중 각각 10명으로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㉔ **비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희망여부**

구분		빈도	백분율
비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할 경우 어떻습니까?	매우 좋음	10	35%
	좋음	12	41%
	보통	3	10%
	싫음	3	10%
	매우 싫음	1	3%
합계		29	100%

<표 93> 이용자 프로그램 비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희망 여부

비장애인과 함께 프로그램 참여 희망여부로 “좋음” 12명(41%), “매우 좋음” 10명(35%), “보통”과 “싫음”이 각각 3명(10%), “매우 싫음”(3%)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장애인과 프로그램에 참여의사가 있는 응답자가 22명(76%)로 높게 드러났다.

㉕ **평생교육 프로그램 관련 기타의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제시, 여행 프로그램, 가족공예 프로그램을 선호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한 방면으로 개설하여 보다 마음 편히 이용하면 좋겠고,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III. 결론 및 제언

1. 제한점

위 연구는 문헌연구를 토대로 평생교육의 개념 및 영역을 정리하고, 서남권역의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현황을 조사한 뒤 복지관 서비스 이용자 중 성인장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서비스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다각적 연구 설계 및 진행에도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따랐다.

1) 시기적 어려움

작년 12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로 인하여 6월까지 복지관의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

히 개인의 건강 및 재활치료가 아닌 문화여가적 욕구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었고, 특히 보건복지부 권고에 따라 그룹프로그램의 운영은 1년 내내 제한적으로 운영되었다. 시기적으로 10인 이하 프로그램으로 완화된 적은 있으나 기관에 머무르는 시간이 매우 적었다. 이로 인해 연초에 사전 제작된 설문지가 7월이 되어서도 진행이 되기 어려웠다. 이에 표집목표 인원인 150명에 30%만 실시가 가능하여 아쉬움이 남으며 타당도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2) 응답률 저하 및 배포의 문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로 인하여 복지관의 출입 인원이 제한됨에 따라 응답이 가능한 이용자의 수가 매우 적었다. 특히 설문조사의 대상이 성인장애인으로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역시 매우 적었다. 사업이 부분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7월부터 배포를 시작하였으나 표본이 매우 적고 응답률 적었다. 또한 내방객이 줄어들어 표집인원의 확보를 위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문항이 길고 다양하여 설문조사에 집중하기가 어렵고 성인장애인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구의 설계 당시에는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설문조사 시기를 미뤘으나 응답률이 적고 배포가 어려워 아쉬움이 남았다.

3) 해석이 어려운 질문

평생교육프로그램의 다양한 욕구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 문항을 다양화하였으나 앞서 진행된 한국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 욕구 조사로 복지관 설문 문항과 중복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설계한 설문지에서는 장애를 가진 이용자가 단독으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해석이 다소 어려웠다고 판단되며 추후 진행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설문조사지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2. 결론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당사자와 가족의 삶에 있어서 여가 선택, 사회적 관계 향상 등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우리 복지관은 재활운동실로 인하여 하루 평균 300여명의 장애인과 가족의 이용이 있었으며 다양하고 폭 넓은 이용자층은 평생교육 사업 안정적인 운영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프로그램과 안정된 이용자층은 사업의 다양성 또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시도하는데 어려움을 발생시켰다. 이러한 이유로 지난 2019년 살맛나는 세상 TF회의에서는 우리복지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2020년 사업계획 시에는 새로운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시도가 어려웠는데 이는 바로 “평생교육”을 주제로 실시된 자세한 욕구조사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평생교육사업의 다양성을 도모하고자 지역기관의 프로그램 현황 조사와 관내 이용자 욕구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의 설계, 배포, 분석 등의 과정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하여 각 기관에서는 휴관 또는 비상운영체제 돌입으로 인한 그룹프로그램의 제한으로 정상적인 사업운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관현황 조사가 실시되던 8월 말에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 사업계획으로 현황을 제출한 기관도 많았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하여 비대면

프로그램 전환 가능 유무를 살펴보고 5개 기관에 대하여 전화인터뷰를 실시하였으나 현재까지 유튜브 또는 가정용 재활, 교육 키트 제공 등에 그쳐 비대면 프로그램이 활성화 된 기관은 매우 극소수였다.

또한 초기 설문조사의 표본인원은 최소 100명으로 하였으나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하여 관내 출입 이용인 및 가족이 매우 적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이후 즉시 귀가해야하는 상황으로 설문조사에 응답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설문조사의 표본이 매우 적은 것이 한계점으로 보이거나 소수의 설문조사에서도 유의미한 내용들이 분석되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고자한다.

3. 제언

1) 기초문해교육 외 시민사회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 기관현황조사에서는 대부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여러해 동안 진행해온 우리 복지관에서도 문화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는 늘 높은 순위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설문조사에서는 한글교실 등의 기초문해교육이 필요하다는 욕구가 나타났으며, 기초문해교육의 방법, 내용적인 부분에서 다양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서남권역장애인복지관에서 시민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 없었다. 서울시는 지난 8년동안 마을 주민을 지역의 주체자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리복지관에서도 장애아동 부모를 장애인식개선 강사로 양성하여 지역주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들 중 시민사회교육이 없다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에 우리 복지관에서는 기존에 진행해왔던 강사양성교육 또는 지역주민을 리더로 양성하여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 건강관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

코로나 19는 우리의 삶을 많이 변화시켰다. 집이 아니면 언제 어디서든 마스크를 써야하며 작은 기침에도 주변사람들을 안색을 살펴야한다. 환절기에 경험하는 작은 감기몸살에도 코로나가 아닌지 의심해야하는 “건강염려증”이 생긴 사람들처럼 우리는 모두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설문조사에서도 많은 응답자들이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를 드러내었다. 이는 빈번한 감염병으로 인해 최근에 더 두드러진 특징으로 특히 장애인 가정에서는 건강관리에 타 가정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하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개인의 건강을 강화시키고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통하여 장소에 한정 짓지 않는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3) 여가, 취미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본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선호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문항에서 “여가취미교육(공예, 요리교실, 국악교실) 등”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가 여가시간 향유 및 자기개발이라고 응답한 사항과 일맥하는 부분으로 2020년 사업계획은 총 4개(가족공예, 요가교실, 국악교실, 연극교실)로 여가, 취미생활을 영유

를 위한 사업으로는 부족함이 있었다. 앞서 언급한 건강관리, 문화예술 프로그램 강화를 통하여 욕구가 충족되면 잔여 욕구인 여가, 취미를 위한 교육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파악됨. 평생교육사업의 분산된 욕구를 통합하여 여가와 취미생활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4) 비대면 전환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는 복지관의 프로그램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룹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각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모두 중단되었으며 담당자들은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하여 온라인교육,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19는 감소되지 않은 채 장기화 되었으며 우리는 비대면 교육을 고민해야하는 시점에 왔다.

서남권역 장애인복지관에서 2020년 사업 계획 당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로 관례처럼 기관운영 평생교육사업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2021년 프로그램에서는 “장소에 한정 짓지 않는 프로그램 운영”을 깊게 고민하여 준비해야한다고 생각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복지관을 내방하는 이용객들도 상당수이다. 때문에 모든 프로그램을 언택트 프로그램, 개별화로 진행하기는 어려우나 상황적으로 가정, 기관에서 모두 수행가능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비대면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장애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스마트교육을 실시하는 방법도 비대면 서비스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1) 이하영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국내연구 동향분석: 1998년부터 2018년까지”, 「평생교육학 연구」, 2019
- 2) 김두영, 박원희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분류체계 개발 기초연구”, 「특수교육학연구」, 2013
- 3)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 평생교육 현황조사”, 2012

<부록-설문조사지>

설문번호			
------	--	--	--

2020년 성인장애인 평생교육 욕구 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은 2004년 10월에 개관하여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자립생활능력 증진과 지역사회의 환경개선을 통한 삶의 질과 복지향상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7년 실시한 양천구 장애인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유형별, 중복장애인에 대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다양화가 도모되어야 한다고 제안되었습니다. 이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다양화를 시도하였으나 욕구를 근거로 프로그램 안착을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설문은 복지관 평생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욕구 및 만족도와 관련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양천해누리복지관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 13조에 의해 엄격히 비밀이 보장되며, 통계적 목적 외의 어떠한 형태로도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평생교육팀(070-4804-6030)
조현서, 오경옥, 김보름, 오현지, 곽성준, 박영지



※ 이 설문은 장애인 당사자가 응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 응답할 때, 장애인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사항이 없을 때에는 기타에 표시하시고 귀하의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적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1. 성 별	① 남 ② 여
2. 연 령	① 청년기(19세~29세) ② 장년기(30세~45세) ③ 중년기(46세~64세) ④ 노년기(65세 이상)
3. 최종학력	① 초등학교 중퇴이하 ② 초등학교 졸업 ③ 중학교졸업 ④ 고등학교졸업 ⑤ 전문학사(2, 3년제 대학 졸업) ⑥ 학사(4년제 이상 대학 졸업) ⑦ 석사 이상
4. 수급여부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② 조건부 수급자 ③ 차상위계층 ④ 해당사항 없음
5. 장애명 및 등록 여부	① 지체장애 ② 뇌병변장애 ③ 시각장애 ④ 청각장애 ⑤ 언어장애 ⑥ 정신장애 ⑦ 신장장애 ⑧ 심장장애 ⑨ 간장애 ⑩ 안면장애 ⑪ 장루·요루장애 ⑫ 뇌전증장애 ⑬ 호흡기장애 ⑭ 미등록 ⑮ 기타() ⑯ 해당사항 없음
6. 장애정도	①정도가 심한[중증](1급~3급) ② 정도가 심하지 않은[경증](4급~6급)
7. 거주지	① 목동 ② 신정동 ③ 신월동 ④ 타지역(시 구)

다음은 이용 현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8. 설문당사자와 설문지 작성자는 어떤 관계입니까?

- ① 본인 ② 부 ③ 모 ④ 활동지원사 ⑤ 기타()

9. 귀하께서는 양천해누리복지관을 이용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 2년 미만 ③ 2년 이상 ~ 3년 미만
④ 3년 이상 ~ 5년 미만 ⑤ 5년 이상 ⑥ 이용한 적 없음

다음은 평생교육 욕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설문 당사자를 기준으로 해당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교육활동
(※ 예 :요가교실, 노래교실, 컴퓨터교실, 독서강좌) 등을 말 합니다.

10. 귀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조금 필요하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 없다. ⑤ 전혀 필요 없다.

11. 귀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있으면 13번으로 가세요.) ② 없다.(없으면 12번으로 가세요.)

12.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한 적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응답하시고 17번으로 가세요)

- ① 정보가 부족해서 ② 필요하지 않아서 ③ 시간이 없어서
④ 경제적 부담 때문에 ⑤ 거리가 멀어서 ⑥ 기타 사유(_____)

13.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교육 내용에 만족 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매우 불만족

13-1. 13번과 같이 응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강사(담당자)의 역량 ② 수업내용 ③ 시설 ④기타(_____)

14. 귀하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용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수강한 프로그램은 어떤 것 입니까?

(_____)

15. 귀하가 교육을 받은 기관은 어디입니까?

- ① 복지관 ② 관공서 및 주민자치센터 ③ 직업훈련기관 ④ 문화센터 ⑤기타(_____)

16. 귀하는 어떤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고 싶으십니까?

- ① 기초문해교육(한글교실 등) ② 정보화교육(컴퓨터, 스마트폰교실 등)
③ 건강관리교육(건강강좌, 요가 등) ④ 인문교양교육(인권, 인문학 교육 등)
⑤ 여가취미교육(공예, 요리교실, 국악교실 등) ⑥ 직업능력교육(자격증 취득, 이미지메이킹 등)
⑦ 기타(_____) ⑧ 없음

17. 참여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없으시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_____)

18. 다음 보기 중 참여하고 싶은 교육은 주로 어떤 목적으로 듣기를 원하십니까? ()

- ① 건강관리 ②취미동호 ③교양함양 ④여가선용 ⑤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⑥배움의 기쁨 ⑦기타

19.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요일은 언제입니까?(중복 가능)

- ① 월요일 ② 화요일 ③ 수요일 ④ 목요일 ⑤ 금요일 ⑥ 토요일

20. 희망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시간은 언제입니까?(중복 가능)

- ① 오전 9시~12시 사이 ② 오후 1시~4시 사이 ③ 오후 4시~6시 사이 ④ 그 외 시간(_____ 시)

21.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얼마입니까?

- ① 1회성 교육 ② 1~3개월 미만 ③ 3~6개월 미만 ④ 6~9개월 미만 ⑤ 9~12개월 미만 ⑥ 1년 이상

2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에서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단계별 프로그램 지원 ② 장애유형별 프로그램 개발 ③ 프로그램의 다양화
④ 강사의 전문성 ⑤ 재활 및 직업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강화 ⑥ 공간의 안정화
⑦ 기타(_____)

23.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주당 회기는 얼마입니까?

- ① 주 1회 ② 주2회 ③ 주3회 ④ 주4회 ⑤ 주5회 ⑥ 기타(_____)

24.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 ① 있다. ② 없다

24-1. 적절한 하다고 생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회당 이용료에 ✓표시해주세요.

- ① 월 1만원 이하 ② 월 1만원~2만원 ③ 월 2만원~3만원 ④ 월3만원~4만원 ⑤ 그 외(_____ 원)

25. 비장애인과 함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좋음 ② 좋음 ③ 보통 ④ 싫음 ⑤매우 싫음

26. 양천해누리복지관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관련하여 기타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긴 설문 문항에 응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다양하고 질 높은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

보드게임을 활용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이 의사소통 표현 향상에 미치는 영향

기능향상팀 언어재활사
오정용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목표 및 과제

II. 이론적 배경

1.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화용론적 언어특성
2. 보드게임의 교육적 기능
3. 의사소통 특성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
3. 연구절차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2.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의사소통 표현능력 분석 기록표
2. 보드게임 활동 진행 구성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인간은 누구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상호관계를 형성하고 성장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언어, 인지, 사회성이 발달하게 된다. 또한 상호작용을 통해 생활 습관을 형성하고 집단 생활을 영위해 나가며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해 나가게 된다.(박은경, 2011)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데 많은 조건들이 필요하지만 개개인의 정보를 교환하고 생각을 전달하는 의사소통 능력은 그 조건들 중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아동에게 또래 간 의사소통 능력의 발달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박경란, 2010) 또래관계를 통해서 아동은 많은 정보를 분류조직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지각을 발달시키고 집단에 대한 소속감,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킨다.(Coie & Penningtons, 1976) 결국, 아동들은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의사소통능력을 발달시켜 나가며, 이는 주변의 다양한 언어자극을 이해하고 주변 상황을 말소리로 표현함으로 주변의 다양한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윤희정, 2017)

아동은 또래들과의 많은 의사소통 속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훈련되어져서 정상적인 언어발달을 이루지만,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에게는 극복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켜 나가지만 많은 제한이 따른다. 또한 관계를 형성하고 경험을 체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자발적인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키기가 어렵다.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은 대화에서 주제를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능력이 부족하며(Abbeduto, 1991), 정신 연령이 같은 또래아동에 비해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부적절한 말을 하기도 하고 다양한 의사소통 표현을 반복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또래아동보다 자발적인 대화를 시도하는 데에도 적극적이지 않으며(Fischer, 1987),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구사하는 능력이나 의도성 및 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의사소통을 시도할 목적으로 담화나 몸짓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서문 혜자, 2011)

이처럼 언어발달이 지연된 아동들의 의사소통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언어 중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다양한 언어중재방법들이 연구되고 소개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아동의 상황에 맞는 언어중재방법을 선택하는 것이다. 언어중재 활동은 아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흥미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구체적인 경험이나 조작 등을 통하여 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 놀이활동은 여러 가지 언어형태나 기능을 학습하게 하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며 다양한 언어행위를 시도하게끔 촉진한다. 또한 놀이는 일정한 규칙에 따른 타인과의 접촉과 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아동은 사회적 관계를 발달시키고 문제해결력과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켜 나간다.

보드게임이란 적어도 두 명 이상의 사람이 직접 대면하여 보드, 카드, 타일, 말판 유형의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하여 일정한 룰에 따라 승패를 가리는 놀이이다.(김수미, 2006) 보드게임은 제한된 공간에서 둘 이상의 아동들이 직접 대면하여 게임을 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이 원활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박경민, 2018), 다양한 게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아동들은 의사소통 주제에 대한 부담감, 단순한 상호작용 방법에 의한 지루함, 긴장감 등을 없

애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을 신장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임지연, 200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저학년 또래 대상으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 시 구조화된 보드게임활동을 통해 중재한 실험군과 비구조화된 자유놀이활동을 통해 중재한 대조군과 비교하여 보드게임활동이 또래와의 의사소통 표현능력인 산출 빈도, 산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하고자 하였다.

2. 연구의 목표 및 과제

본 연구의 목표는 보드게임을 활용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이 또래아동의 의사소통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하고자 하며, 향후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 프로그램 및 타 팀 사회성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보드게임을 활용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실험군과 자유놀이활동을 통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대조군의 또래아동과의 의사소통 표현 산출 빈도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둘째, 보드게임을 활용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실험군과 자유놀이활동을 통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대조군의 또래아동과의 의사소통 표현 산출 의도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및 화용론적 언어 특성

사회적 기술이란 다른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고, 진행 중인 놀이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등, 특정한 사회적 과제를 성공적으로 능숙하게 해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구체적인 행위를 말한다(Gresham, Sugai, & Horn, 2001). 또 사회적 기술은 인간이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자신이 소속된 사회에서 적절한 기술을 사용하면서 필요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달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Bricker와 Waddell(1996)은 사회적 기술을 주어진 환경 안에서 상황에 맞게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고 상대방의 의사를 잘 파악하여 바람직한 방법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기술로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능력이라고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 기술은 또래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능력, 주변 사회 환경을 효과적으로 다루고 적응하는 능력이다(허수연, 2008). 이 사회적 기술을 유아기에는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신 안에 맞추는 자기중심적 단계에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여 상대에게 맞추는 단계로 발달한다(이혜진, 2011). 언어발달지연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은 자기중심적 사회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떻게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가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또래들과 관계를 가지기 시작하면서 또래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최민영, 2012). 하지만 언어발달지연 아동은 이러한 사회적 기술의 어려움을 보이고 있다. 발달지연 아동의 사회적 기술 특성은 Caldarella과 Merrell(1997)가 제시한 5가지 범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발달지연 아동들은 또래 관계에 어

려움을 보인다(Gresham, 1998; Guglielmo & Tryon, 2001; Horner, Gresham & Sugai, 2001; Odom, 2000). 둘째, 발달지연 아동들은 자기 관리 기술이 부족하다. 셋째, 발달지연 아동들은 연령에 적합한 학문적 기술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넷째, 발달지연 아동들은 순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인다. 다섯째, 발달지연 아동들은 주장하는 기술에 결함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발달지연 아동들은 또래아동과 비교했을 때 그들이 지닌 특성 때문에 사회적 기술의 습득과 수행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Gresham, Sugai & Horner, 2001)

인간은 언어를 수단으로 사회적 생활을 하며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 아동들은 이러한 의사소통적 상호작용을 거쳐 사회적 환경을 조절하고 통제하며 여러 사회적 기술과 언어 수준을 향상해 나간다(Goldstain & strain, 1988). 언어 발달지연 아동도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언어를 통해 학습하며 발달해가지만 언어적 경험의 확장과 결합 과정에 있어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며 지연된 형태로 언어를 사용하거나 비정상적인 언어규칙을 통해 언어를 사용한다(이승환 외, 2001). 언어발달지연 아동은 언어의 사용 측면인 화용론적 결함을 살펴보면 일반아동에 비해 전체적인 의사소통 빈도와 의사소통 기능이 낮게 나타나며(조미라, 이윤경, 2010) 대화 상대와 대화 상황에서 발화를 통해 대화차례 주고받기, 대화를 시작하고 이를 유지해나가는 주제 운용 능력과 같은 상호작용 기술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낸다. 때문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시작하거나 지속하는 기술과 대화 과정에 적합한 반응을 산출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보인다(Fey, 1986; Rescorla et al., 2001). 언어발달지연 아동은 중재를 통해 언어의 의미론적, 구문론적 부분의 향상을 이루더라도 상호작용 기술의 사용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음으로써 관계형성 및 학업 성취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에(Owens, 2004)언어를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화용론적 측면의 중재 또한 중요하다.

2. 보드게임의 교육적 기능

놀이는 새로 습득한 개념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며,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인지적 능력을 기르는데 큰 도움을 준다(김명배, 2004). 게임은 이러한 놀이의 기본 요소로 게임에 참여하는 아동들에게 재미를 주고 현실에서 갖지 못하는 다양한 경험을 갖도록 한다. 그리고 경쟁이라는 요소가 있어 승부 결과가 중요시 되고, 서로 도전하게 되며, 2명 이상의 대인 관계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적 활동이 게임 중에 이루어진다(유미숙, 1997). 게임을 통해 사회적 상호작용과 자율성 등 아동으로 하여금 다양한 능력을 기르게 하며 자유로운 놀이와 달리 정서적 통제, 지적 · 사회적 기술, 개인 간의 상호작용 기술을 더 요구하며 실제 생활과 더 가깝다. 그러면서 구성원들 사이에 상호작용과 모방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자발적이고 경쟁적인 요구를 가지게 함으로써 개인적 성장 및 발달을 도와주며 문제 해결을 포함하는 과제들을 경험하고 시도하며, 그 반응들을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이현숙, 2008). 게임의 장점을 살펴보면 학생들로 하여금 선의의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킴으로써 학습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동기와 흥미를 유발시키며 오래 지속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며, 성취동기를 유발시킴으로써 자신감을 가지고 상호간에 의사소통 하려는 의욕을 갖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임지연, 2004). Case(1992)는 게임을 통하여 학습자가 언어에 집중하면서도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게임활동이 즐겁고 만족스러우며 자기성찰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기 때문으로 보아 언어학습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McCallum(1980)도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학습목표인 자의적이고 창조적인 언어사용은 게임 활동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보드게임에 대한 정의는 다양한데, 한선희(2012)는 두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진행되는 게임으로 정의하였으며, 오승택(2004)은 판 위에서 카드나 말을 놓고 정해진 규칙에 따라 진행되는 게임으로, 규칙을 위반할 시 수반되는 벌칙이 있고, 게임이 종료된 후 획득한 점수를 환산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등 약속된 절차에 따라 게임이 진행된다고 하였다. 또한 박성현(2008)은 보드게임에 대해 2명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하고 상호작용 하며 진행되는 게임이며, 사람들이 바닥이나 테이블에 둥글게 모여 앉아 그 가운데에 판(Board)을 놓고 그 위에 말이나 주사위, 카드 등의 게임에 사용되는 도구들을 펼쳐두고 진행되는 게임이라고 하였다(권희연, 2014). 이 때 중요한 점은 게임에 참여하는 아동은 게임 중에 발생 가능한 갈등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행동의 제약이나 차례를 지키고 규칙에 따르는 것과 이기고 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지적·정서적 조절능력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소향미, 2014). 그러므로 너무 어린 유아보다는 각 보드게임에 맞는 연령의 아동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보드게임은 의사소통 방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 우선, 보드게임은 서로 마주 앉아 직접 상대방을 바라보며 게임을 진행한다. 의사소통도 상대방과 서로 간에 마주보고 상호작용 한다. 또한 보드게임은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고, 자신의 차례가 되면 주사위를 돌리거나 화살표를 돌리는 등의 활동을 한다. 의사소통 또한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을 듣고, 자신의 차례가 되었을 때 말을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드게임은 활발한 상호작용을 한다. 내 차례가 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활동에 임하고 상대방이 할 때도 서로 상호의사교환을 한다. 의사소통의 특성 또한 서로간의 상호작용이다. 마지막으로 보드게임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게임활동 방식이다. 상대방의 말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상대방이 가진 카드가 무엇인지에 따라 나의 행동 대응방식도 달라진다. 의사소통 방식 또한 상대방의 의사표현과 의사수용에 따라 자신의 대응방식이 달라진다. 이와 같이 보드게임은 의사소통방식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다(임지연, 2004).

김미정(2009)은 보드 게임을 활용한 효과를 교육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먼저 교육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좌뇌와 우뇌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자극하여 양쪽 뇌의 평형적 발달에 도움을 준다. 둘째, 흥미를 통하여 자발적인 동기 유발을 이끌어내 집중력 발달에 도움을 준다. 셋째, 문제해결을 위한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효율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길러준다. 넷째, 다른 사람들과 지속적인 대면 방식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다섯째, 현상을 판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전략적 사고의 발달에 도움을 준다. 여섯째, 게임 상황에서 다양한 응용을 통하여 규칙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응용력과 융통성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인지적 측면은 다음과 같다.

첫째, 흥미를 통한 교육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고와 행동을 유도할 수 있다. 둘째, 자연스러운 대화와 공감대형성을 통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친밀감을 높여준다. 셋째, 주변 사람들과 건전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넷째, 이기고 지는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 결과에 대해 수긍하고 차후 보다 나은 결과를 위해 고민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수용적인 태도를 배울 수 있다.

이와 같이 보드게임은 아동들에게 상호작용 활동 안에서 의사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어휘

를 이해하고 게임의 방법, 규칙을 숙지하여야 게임을 진행할 수 있다(윤희정, 2017).

3. 의사소통 특성

1) 의사소통 표현의 산출 빈도

의사소통 표현의 산출 빈도는 의사소통 표현을 양적으로 측정하여 평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Wilcox(1993)의 연구에서 언어이전기의 의도적 의사소통 빈도는 언어적 준비의 예측 지표이고, 또한 표현언어지체 아동에게도 유용한 예측의 지표이기에 비구어적일지라도 의사소통 행위 빈도가 높은 아동의 경우 의사소통 지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의사소통 행동을 양적으로 연구하여 분당 의사소통 횟수를 측정한 임현숙 외(2001)의 연구에서는 한낱말단계 아동이 적극적인 촉진 놀이와 소극적인 촉진놀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2차에 걸쳐 30분씩 60분 동안 관찰하였는데, 12개월에서 19개월까지의 한낱말단계에 있는 정상 아동의 분당 의사소통 횟수는 평균 2.0회로 나타났다. 홍경훈, 김영태(2000)는 아동이 1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나타내는 의사소통 횟수를 각 월별로 1회 총 40분씩 측정한 결과, 24개월을 제외하고는 19개월에서 23개월까지 꾸준한 증가를 보였는데, 각 월별로 분당 5.375, 6.425, 7.05, 10.025의 산출 빈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언어 능력이 언어이전단계에서 복합낱말단계로 발달함에 따라 아동의 의사소통 표현의 산출 빈도는 증가한다.

2) 의사소통 표현의 산출 의도

아동의 의사소통 표현의 산출의도를 분석하기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각기 다른 분류와 정의를 포함한 분석체계를 제시하였다.

연석정(2001)에 의하면 Holliday(1975)는 생후 10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나타나는 의사소통 행위들을 그 기능에 따라 도구적(instrumental)기능, 조정적(regulation)기능, 상호작용적(interactional)기능, 개인적(personal)기능, 발견적(heuristic)기능, 가상적(imaginative)기능으로 분류하였다고 한다. 도구적 기능은 자신의 물질적 필요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이고, 조정적 기능은 다른 사람을 조절 또는 통제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또한 상호작용적 기능은 다른 사람과 교류 또는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의사소통 행위이다. 개인적 기능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하는 의사소통 행위이고, 발견적 기능은 환경을 탐구하고 정리하려는 의사소통 행위이며, 가상적 기능은 가상의 상황을 만드는 의사소통 행위이다.

Roth & Spekman(1984)은 아동들의 화용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언어 발달상 3단계로 나누어 의사소통 의도를 분류하였다. 그가 분류한 의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언어이전 단계에서는 주의 끌기, 요구하기, 인사하기, 건네주기, 저항하기, 반응하기, 정보 제공하기가 있다. 둘째, 한 단어 단계에서는 이름 부르기, 언급하기, 사물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정보요구하기, 반응하기, 저항하기/거절하기, 주의끌기, 인사하기가 있다. 셋째, 다단어의 수준에서는 정보요구하기, 행동요구하기, 요구에 반응하기, 진술하기 혹은 평하기, 대화 시에 행동 조절하기 및 기타 수행들이 있다.

홍경훈 · 김영태(2001)은 Dore(1978)의 분석체계를 수정하여 요구(requests), 반응(responses), 객관적 언급(comments), 주관적 진술(Statements), 메시지 수신표현(acknowledge) 구성요소, 발전

된 표현으로 구성된 7가지 상위 범주의 분석체계를 제시하였다. 요구하기 범주는 상대에게 정보, 행위, 사물 또는 허락을 요구하는 기능을 말한다. 반응하기 범주는 상대의 질문이나 요청 또는 이전 발화에 적절히 답하고 대응하는 기능을 말한다. 객관적 언급하기 범주는 객관적 사실에 대한 언급으로 현재 관찰 가능한 사물 또는 사건에 대해 인지 또는 묘사하는 것을 말하고, 아동이 의도적으로 사물이나 행위에 상대의 주의를 끄는 행동을 포함한다. 주관적 진술하기 범주는 직접적으로 관찰이 가능하지 않은 사실, 규칙, 태도, 느낌, 믿음에 대한 발화를 말한다. 메시지 수신표현 범주는 상대의 앞선 의사소통 메시지를 받았음을 나타내는 반응을 말한다. 구성요소 범주는 의례적인 인사나 부르기, 화자선택 등과 같이 개별적 접촉과 대화 흐름을 조절하는 기능을 말한다. 발전된 표현 범주는 말 산출만으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기능으로 다소 높은 수준의 의사소통 의도를 말한다. 각 하위 범주별로 총 39개의 하위 기능이 있다.

의사소통 분류체계는 연구자들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의사소통 의도의 종류와 범위가 증가된다는 점에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인다.

III. 연구의 방법

1. 연구대상

보드게임활동 실험군(2020년)은 본관 언어활동 대기자 중 그룹 활동이 가능한 이용자 개별 상담 및 준거참조검사를 실시한 후 3명 선정하여 2020년 8월부터 진행하다 8월18일부터 9월10일까지 활동이 중단되었고 9월11일부터 9월29일까지 개별 활동으로 진행하였으며 2020년 10월부터 주 2회 50분으로 그룹 활동 진행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2019년)도 본관 언어활동 대기자 중 그룹 활동이 가능한 이용자 개별 상담 및 준거참조검사를 실시한 후 3명 선정하여 2019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주 2회 50분으로 그룹 활동 진행하였고 연 2회 외부활동을 진행하였다. 이용자별 특성은 <표1, 2>와 같다.

<표1> 보드게임활동 실험군(2020년) 이용자 정보

대상아동	연령	성별	진단명	의사소통 특성
A	8세	남	자폐 중증	- 또래에 대한 관심이 적으며 먼저 의사소통하려는 욕구가 적음. 놀이 활동 시 또래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주로 혼자 놀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규칙에 대한 이해에 어려움이 있고 자신의 틀에서 벗어나면 힘들어하며 짜증내는 모습을 보임.
B	8세	남	미등록	- 언어가 또래에 비해 느려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음. 또래에 대한 관심이 생겨 의사소통하려는 시도를 보이나 또래와의 놀이상황에서 자신이 집중하고 있는 활동 시 또래의 질문이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C	8세	남	미등록	- 질문에 반응하는 속도가 느리며 모르는 질문 시 회피하거나 엉뚱한 대답을 자주함. 또래에 관심이 많으나 자신이 또래친구들보다 말이 느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 또래 친구들과 상호작용하기 보다는 자신보다 어린 친구와 주로 상호작용하려는 모습을 보임.

<표2> 자유놀이활동 대조군(2019년) 이용자 정보

대상아동	연령	성별	진단명	의사소통 특성
D	8세	남	언어 경증	- 발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음명료도가 좋아져서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함. 자기중심적인 성격으로 고집이 세고 승부욕이 강하여 게임 등의 활동 시 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화를 내거나 우는 모습을 보여 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있음.
E	8세	남	미등록	- 부정교합으로 조음에 어려움이 있어 또래들이 표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타인에 대한 관심이 있으나 자신의 관심사에 대한 일방적인 질문을 자주 하는 편이며 또래의 말에 반응을 보이는데 큰 어려움이 있음.
F	9세	남	미등록	- 또래와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주로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또래에게 의사소통을 하려는 시도를 보이거나 언어능력의 제한으로 지속적인 대화를 유지해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음.

2. 연구도구

1) 의사소통 표현능력 분석 기록표

본 연구에서는 의사소통 표현 빈도와 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의사소통 표현능력 분석 기록표를 사용하였으며 놀이 환경 40분 동안 아동들의 의사소통 시도를 3회기 직접관찰을 통해 측정하여 평균값으로 분석하였고 분석 시 앞, 뒤 5분씩을 제외하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30분만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이 되는 의사소통 시도는 Wetherby & Prizant(1990)의 기준을 사용하여 몸짓/발성 또는 발화로 구성되는 경우, 다른 사람을 향해 이루어진 경우, 의사소통의 기능을 지닌 경우의 조건을 만족하는 행동으로 제한하였고 의사소통 표현 의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Dore(1978)의 대화기능 분석표를 기초로 홍경훈과 김영태(2001)가 재구성한 의사소통기능 분석기준 중 박경란(2010)이 사용한 항목에서 대상아동에게 적합하게 선정된 네 가지 상위기능인 요구하기, 반응하기, 객관적 언급, 주관적 진술과 그에 속하는 하위기능이 포함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아동이 의사소통 시 표현 의도 없이 한 혼잣말 또는 행동과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의사소통 표현 의도 정의 및 예는 <표3>과 같다.

<표3> 의사소통 표현의도에 대한 정의

상위기능	하위기능	정의 및 예
요구	정보 요구	- 상대로부터 ‘예/아니오’의 반응을 요구하는 질문 예) 사탕이야? - 의문사를 이용한 질문 예) 이거 뭐야? - 상대의 이전 발화에 대해 명료화를 요구하는 질문 예) 아동1: 가자 / 아동2: 뭐라고? - 아동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 예) 이거 얼음이지?
	행위 요구	- 상대에게 어떤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동 예) 잡아줘

상위기능	하위기능	정의 및 예
	사물 요구	- 상대에게 사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동 예) 동전 줘, 동전 가리키기
	허락 요구	- 상대에게 허락을 요구하는 행동 예) 먼저 해도 되?
반응	예/수용	- 상대의 질문이나 요구에 긍정적으로 대답이나 응하는 행동을 하는 경우 예) 아동1: 먹을래? 아동2: 응
	아니요/저항 또는 부정	- 상대의 질문이나 요구에 부정적으로 대답이나 거부나 저항하는 행동 하는 경우 예) 아동1: 먹을래? 아동2: 아니
	의문사 대답	- 상대의 의문사 질문에 대한 적절한 반응 예) 아동1: 이거 뭐야? 아동2: 공
객관적 언급	사건·상태	- 행위/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에 상대의 주의를 끄는 행동 예) (자동차를 밀어 움직이도록 한 후) 저것 봐
	고유의 특성	- 아동이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장소에 있는 대상에 대해 그 대상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외형적 특성을 기술하는 기능 예) (공을 보며) 동그라네
	기능	- 사물의 기능을 나타내는 행동이나 언급 예) (축구공을 보며) 뺑 차는 거야
	위치	- 공간적 관계에 대한 행동이나 언급 예) (장난감을 가리키며) 저기 있다
	시간	- 시간적 관계에 대한 행동이나 언급 예) 잠깐만/ 이따 봐
주관적 진술	규칙	- 규칙에 대한 행동이나 진술 예) (~하면) 안 돼
	평가	- 상대 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주관적인 진술 예) 잘했어
	내적 보고	- 자신의 생각 또는 느낌을 표현 예) 그거 좋아
	주장	- 자신이 의견 또는 주장을 표현하거나 청구하는 기능
	설명	- 현재의 장소에 없거나, 현재에 존재하지 않는 사물 또는 상황/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 또는 이유를 설명하는 기능 예) (원가를 그리고 나서) 이건 공이야

3.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보드게임활동이 또래와의 의사소통 표현능력인 산출 빈도, 산출 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의사소통 표현능력 분석 기록표를 활용하여 보드게임활동 실험군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2020년 8~10월)에 자유놀이상황에서 3회기 40분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

표현 빈도와 의사소통 표현 의도 항목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소수점의 경우 0.5이상 시 반올림하고 0.5미만 시 버림하여 사전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사의 경우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아 측정하지 못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은 프로그램 시작 직후(2019년 3~4월)에 자유놀이상황에서 3회기 40분 직접관찰을 통해 의사소통 표현 빈도와 의사소통 표현 의도 항목의 평균값을 계산하고 소수점의 경우 0.5이상 시 반올림하고 0.5미만 시 버림하여 사전검사 결과를 분석하였으며 종결 시점(2020년 1~2월)에 맞추어 사전검사와 동일하게 의사소통 표현 빈도와 의사소통 표현 의도 항목의 평균값을 측정하여 사전-사후검사 변화도를 통해 중재에 따른 증가한 평균 수치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IV. 분석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보드게임 활동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그룹언어활동(교감언어)이 의사소통 표현 향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보드게임활동 실험군과 자유놀이활동 대조군의 자유놀이상황에서 의사소통 표현 능력(빈도, 의도)를 의사소통 표현능력 분석 기록표를 활용하여 직접관찰을 통해 각 3회기 평균값을 사전-사후로 측정하여 비교 분석하였고 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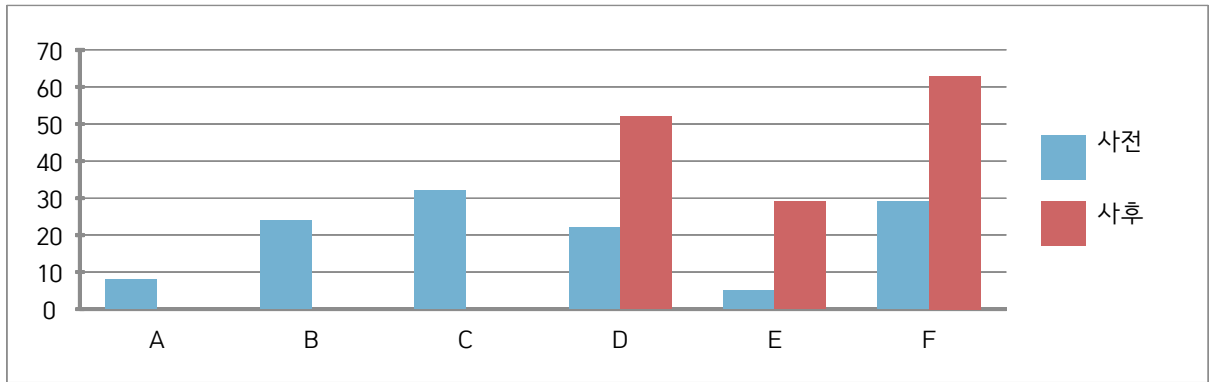
1. 의사소통 표현 빈도 변화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A, B, C와 자유놀이활동 대조군 D, E, F의 의사소통 표현 빈도의 변화는 <표4>와 같다.

<표4> 의사소통 표현 빈도 변화

중재군		A	B	C
보드게임활동	사전	8	24	32
	사후	-	-	-
중재군		D	E	F
자유놀이활동	사전	22	5	29
	사후	52	29	63

의사소통 표현 빈도를 사전-사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사전검사의 경우 대상아동 A는 8회, 대상아동 B는 24회, 대상아동C는 32회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 대상아동 D는 표현 빈도가 사전 22회에서 사후 52회로 30회 증가하였다. 사전단계에서 가장 낮은 의사소통 표현 빈도를 보였던 대상 E는 사전 5회에서 사후 29회로 24회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F는 가장 많은 증가를 보였는데 사전 29회에서 사후 63회로 34회 증가하였고 대상아동 D, E, F의 빈도 증가 평균 수치는 29회로 나타났다.



<그림 1> 의사소통 표현 빈도 변화

2. 의사소통 표현 의도 변화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A, B, C와 자유놀이활동 실험군 D, E, F의 의사소통 의도의 변화는 <표5,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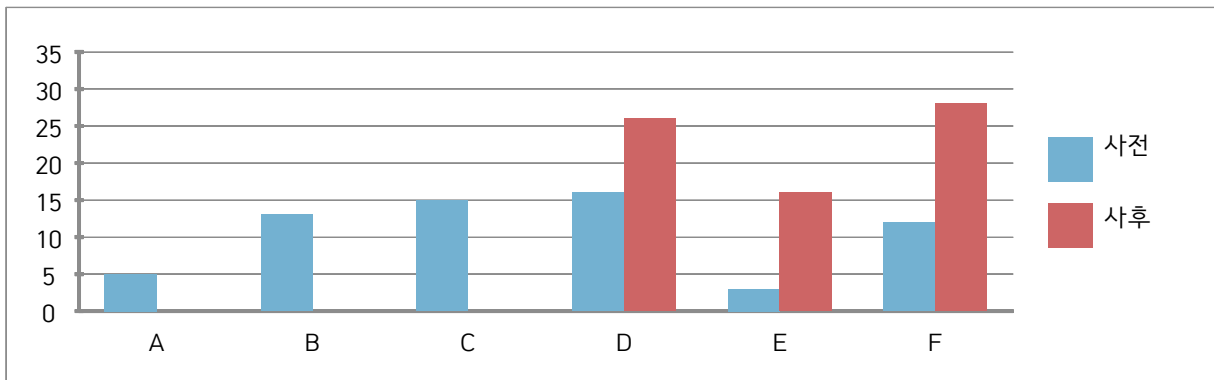
<표5> 보드게임활동 중재군 의사소통 표현 의도 변화

상위기능	하위기능	A		B		C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요구	정보 요구	0	-	5	-	7	-
	행위 요구	0	-	0	-	2	-
	사물 요구	5	-	8	-	6	-
	허락 요구	0	-	0	-	0	-
반응	예/수용	1	-	4	-	2	-
	아니요/저항 또는 부정	2	-	2	-	5	-
	의문사 대답	0	-	2	-	3	-
객관적 언급	사건·상태	0	-	3	-	4	-
	고유의 특성	0	-	0	-	0	-
	기능	0	-	0	-	0	-
	위치	0	-	0	-	0	-
	시간	0	-	0	-	3	-
주관적 진술	규칙	0	-	0	-	0	-
	평가	0	-	0	-	0	-
	내적 보고	0	-	0	-	0	-
	주장	0	-	0	-	0	-
	설명	0	-	0	-	0	-

<표6> 자유놀이활동 중재군 의사소통 표현 의도 변화

상위기능	하위기능	D		E		F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요구	정보 요구	8	9	3	4	12	14
	행위 요구	2	6	0	4	0	5
	사물 요구	5	7	0	6	0	6
	허락 요구	1	4	0	2	0	3
반응	예/수용	0	4	0	1	2	7
	아니요/저항 또는 부정	4	6	2	6	3	5
	의문사 대답	0	3	0	1	2	3
객관적 언급	사건·상태	0	1	0	0	2	2
	고유의 특성	0	2	0	0	1	2
	기 능	0	0	0	0	1	4
	위 치	2	3	0	1	0	0
	시 간	0	1	0	0	2	2
주관적 진술	규 칙	0	1	0	2	3	5
	평 가	0	2	0	1	0	1
	내적 보고	0	0	0	0	0	1
	주 장	0	2	0	0	0	1
	설 명	0	1	0	1	1	2

1)요구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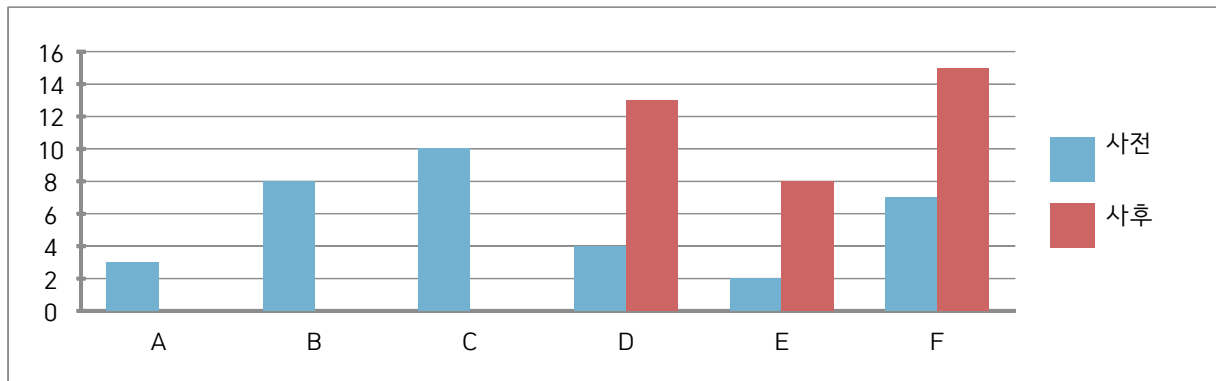


<그림 2>요구하기 변화

의사소통 표현 의도 상위기능인 요구하기 변화를 사전-사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사전검사 시 대상아동 A는 5회로 사물 요구만 나타났고 대상아동 B는 13회로 정보 요구와 사물 요구가 나타났으며 대상아동 C는 15회로 정보 요구와 행위 요구, 사물 요구가 나타났다. 실

험군의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 대상아동 D는 사전 16회에서 사후 26 회로 10회 증가하였고 대상아동 E는 사전 3회에서 사후 16회로 13회 증가하였으며 대상아동 F는 사전 12회에서 사후 35회로 23회 증가하였다. 대조군 대상아동 D, E, F 모두 정보 요구, 행위 요 구, 사물 요구, 허락 요구가 증가하였으며 요구하기 증가 평균 수치는 15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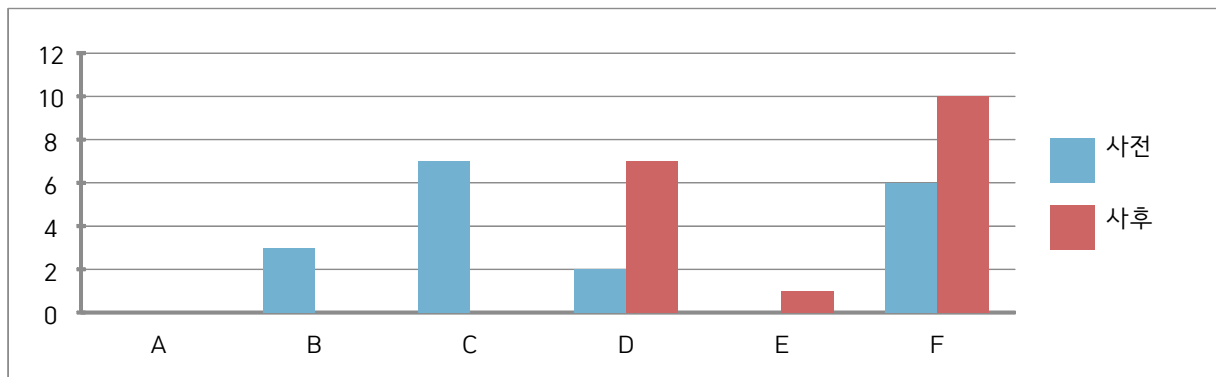
2) 반응하기



<그림 2> 반응하기 변화

의사소통 표현 의도 상위기능인 반응하기 변화를 사전-사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사전검사 시 대상아동 A는 3회로 예/수용, 아니요/저항 반응을 보였고 대상아동 B는 8회로 예/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답 반응을 보였으며 대상아동 C는 10회로 예/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답 반응을 보였다. 실험군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 대상아 동 D는 사전 4회에서 사후 13회로 아니요/저항 반응만 보였으나 예/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 답 반응이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E는 사전 2회에서 사후 8회로 아니요/저항 반응만 보였으나 예/ 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답 반응이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F는 사전 7회에서 사후 15회로 예/ 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답 반응이 사전검사에서 모두 나타났으며 모든 반응이 증가하였다. 대조군 대상아동 D, E, F 모두 예/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답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였으며 반응하기 증가 평균 수치는 8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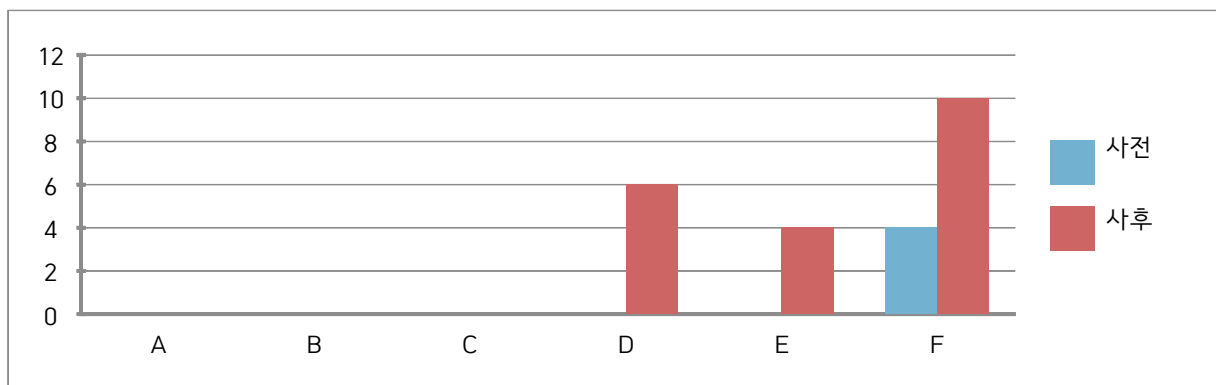
3) 객관적 언급



<그림 3> 객관적 언급 변화

의사소통 표현 의도 상위기능인 객관적 언급 변화를 사전-사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사전검사는 대상아동 A는 0회로 나타나지 않았고 대상아동 B는 3회로 사건·상태 언급만 나타났으며 대상아동 C는 7회로 사건·상태와 시간 언급만 나타났다. 실험군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 대상아동 D는 사전 2회에서 사후 7회로 위치 언급만 나타났으나 사건·상태, 고유의 특성, 위치 언급이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E는 사전 0회에서 사후 1회로 위치 언급만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F는 사전 6회에서 사후 10회로 사건·상태, 고유의 특성, 기능, 시간 언급이 나타났으며 위치 언급을 제외한 언급에서 증가하였다. 대조군 대상아동 D, E, F 객관적 언급 증가 평균 수치는 3회로 나타났다.

4)주관적 진술



<그림 4>주관적 진술 변화

의사소통 표현 의도 상위기능인 주관적 진술 변화를 사전-사후로 분석하여 본 결과 보드게임활동 실험군 사전검사는 대상아동 A, B, C 모두 0회로 나타났으며 실험군 사후검사는 실시하지 못하였다. 자유놀이활동 대조군 대상아동 D는 사전 0회에서 사후 6회로 규칙, 평가, 주장, 설명 진술이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E는 사전 0회에서 사후 4회로 규칙, 평가, 설명 진술이 증가하였다. 대상아동 F는 사전 4회에서 사후 10회로 규칙, 평가, 내적보고, 주장, 설명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였다. 대조군 대상아동 D, E, F 주관적 진술 증가 평균 수치는 5회로 나타났다.

위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유놀이활동 비교군의 의사소통 표현 산출 빈도는 평균 29회 증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보드게임활동 실험군의 사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산출 빈도 평균 증가 횟수를 분석하여 두 그룹의 의사소통 표현 산출 빈도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둘째, 자유놀이활동 비교군의 의사소통 표현 산출 의도 중 요구하기 상위기능에서는 평균 15회 증가하였고 하위기능인 정보 요구, 행위 요구, 사물 요구, 허락 요구 모두 증가하였다. 반응하기 상위기능에서는 평균 8회 증가하였고 하위기능인 예/수용, 아니요/저항, 의문사 대답 모두 증가하였다. 객관적 언급 상위기능에서는 평균 3회 증가하였고 하위기능 모두 대상자별로 다른 증가 횟수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진술 상위기능에서는 평균 5회 증가하였고 하위기능인 규칙, 평

가, 설명 진술에서 대상자별로 모두 증가하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보드게임활동 실험군의 사후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 연구를 통해 산출 의도 각 상위기능 평균 증가 횟수를 분석하여 두 그룹의 의사소통 표현 산출 의도의 변화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두 그룹 대상으로 비교하여 제한되어 있어 중재 효과를 일반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러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자가 학령기 저학년 아동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발달 연령에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언어발달 지연 아동 간에 나타난 의사소통 표현 능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일반아동과의 대화에서 언어발달 지연 아동들이 나타내는 의사소통 표현능력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윤경, 임진섭 (2018). 의사소통 기능성 보드게임이 ADHD 아동의 자기통제력, 자아존중감, 가족 기능 및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공공정책연구 제35집 1호.
- 정혜은 (2016). 사회적 기술 중심의 보드게임활동이 발달지체 유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광운대학교 교육대학원 장애통합교육전공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라, 손현동 (2016). 보드게임 놀이 대집단 활동이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교육혁신연구 제26권 3호.
- 노현지 (2016). 보드게임 놀이가 ADHD 성향 아동의 주의집중력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특수교육대학원 특수교육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 서문혜자 (2011). 보드게임을 이용한 놀이 활동 프로그램이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어휘 및 의사소통 능력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란 (2010). 보드게임을 이용한 그룹놀이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의사소통 표현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은경 (2011). 게임놀이를 이용한 소그룹 언어치료 중재가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의 사회적 의사소통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경민 (2018). 보드게임을 활용한 집단놀이치료가 아동의 사회성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재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다영 (2018). 보드게임이 유아의 확률적 사고와 친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유진 (2018). 보드게임 활용을 통한 훈련이 실행 기능과 언어 처리 능력에 미치는 효과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윤희정 (2016). 보드게임을 이용한 놀이활동이 지적장애아동의 수용·표현어휘력과 의사소통기능에 미치는 효과.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소현, 박은혜 (1998).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송영혜 (1998). 놀이치료 적용. 경상: 대구대학교 출판부.
- 송영혜, 이승희, 김현주 역 (2000). 놀이치료 이론과 실제. 서울: 시그마프레스.
- 송미경, 이영철 (2007).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발달지체아동의 의사소통행동에 미치는 효과. 정신지체연구 제9집 3호.
- 강명순 (2020). 강화된 환경중심 언어중재가 언어발달지체 아동의 언어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임지연 (2004). 보드게임을 이용한 통합놀이활동이 발달장애 아동의 의사소통기술 습득에 미치는 효과.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부록 1. 의사소통 표현능력 분석 기록표

상위기능	항위기능	몸짓/발성 or 발화	
		사전	사후
요구	정보 요구		
	행위 요구		
	사물 요구		
	허락 요구		
반응	예/수용		
	아니요/저항 또는 부정		
	의문사 대답		
객관적 언급	사건·상태		
	고유의 특성		
	기 능		
	위 치		
	시 간		
주관적 진술	규 칙		
	평 가		
	내적 보고		
	주 장		
	설 명		

부록 2. 보드게임 활동 진행 구성

회기	보드게임명
1회기~3회기	두근두근 점핑 토끼
4~6회기	텀블링 몽키
7~9회기	배터져 주방장
10~12회기	루핑루이
13~15회기	슈퍼 낚시게임
16~18회기	젠가
19~21회기	펍권 얼음깨기
22~24회기	치킨차차
25~27회기	개구쟁이 스머프 사다리게임
28~30회기	슈퍼 라이노

활동지원서비스 휴게시간에 관한 연구

사회서비스팀 팀장

김원종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문제

II. 이론적 배경

1. 휴게시간
2. 휴게시간의 특징
3.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4.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5.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자질

III. 연구방법

1. 자료수집
2. 자료분석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2. 제언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8년 7월 1일부터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인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근로시간 도중 휴게시간 사용이 의무화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을 막기 위해 휴게시간 내 가족 지원, 보조인력 등을 지원하여 서비스 내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비스 이용자를 두고 휴식을 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근로 환경을 보다 낮게 근로기준법을 개정했지만 오히려 활동지원사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처사임을 알아야한다. 활동지원사의 근무시간은 활동지원사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이용자를 만나는 순간부터 헤어지는 순간까지 근무시간이다. 근무시간 도중 서비스의 끊김이 발생할 경우 신체적·정신적인 활동과 판단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은 많은 위험과 불안요소가 존재한다. 서비스 이용자에게 문제가 발생할 경우 활동지원사의 책임이 크게 작용하므로 선불리 서비스를 중단하고 휴식시간을 가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2018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 시 휴게시간 적용배제 특례업종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등이 제외됨에 따라 활동지원사가 근로자로서 적절한 휴식권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고, 이를 통해 활동지원수급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급자의 ‘장애특성’ 및 ‘활동지원’이라는 직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에게 적절한 휴게시간이 제공되지 못하는 근무환경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래에서 문제점을 다루겠지만 하나의 예로 활동지원사들이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부여받지도 못하면서 퇴근시간만 1시간 더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역설은 근로기준법 개정 과정에서 사회복지사업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이에 본 연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휴게시간에 대한 문제점과 한계를 알아보고 현실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문제

본 연구는 2018년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에 대한 인식과 적용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적용실태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3.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의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휴게시간

● 휴게시간의 개념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하면 휴게시간이란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하며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휴게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헌법 제32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취지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는 휴게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된다. 사회복지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도 휴게시간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업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조항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매우 중요한 진전이다.

● 휴식 제도 비교(휴일, 연차휴가, 휴게)

현행 근로기준법 4장 ‘휴식’이라는 개념에 휴일, 휴가, 휴게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휴식제도의 공통요소로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여가시간을 확보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넓은 의미에서 근로시간의 규제 기능을 하도록 하는 제도적인 목적이 있다. 각각의 휴식제도(휴일, 연차, 휴게)는 그 취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휴일’은 근로계약상 근로의무가 없는 날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취업을 요구할 권리가 없으며 근로자의 심신보호 및 여가의 활용을 통한 인간으로서의 사회적·문화적 생활의 향유를 위하는 취지가 있다. ‘휴일’과 유사한 ‘휴가’는 당일에 근로할 의무가 없고 근로에서 해방된다는 점에서 비슷하나 근로자가 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의무를 면제받은 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근로자로 하여금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는 동시에 근로자의 ‘사회적·문화적생활’을 충분히 보장해 주려는데 기본적인 취지가 있다. ‘휴게’는 휴일, 휴가와 비슷하게 근로에서 해방되고 피로회복을 통해 사회적·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동일하다. 하지만 휴게는 근로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설정하고 비교적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피로의 회복에 중점을 둔다면 휴일과 휴가는 근로일의 중간에 설정하고 개인적, 사회문화적 활동을 위한 휴가 시간의 확보에 보다 중점을 두어 형태에 따라 상대적 기능 차이가 있다.

2. 휴게시간의 특징

● 도중부여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며 사용자는 근로 시업 시간과 종업 시간의 중간 어느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시작 전이나 종료 이후에 부여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 휴게시간을 근로하기 전에 여가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더라도 휴게제도의 목적인 육체적·정신적 피로 회복에는 의미가 없다. 또한 근로가 종료된 후에 부여한다면 피로 회복이라는 의미는 있지만 귀가 상태에 있어 강제할 수 없으며 휴게로서의 의미가 전혀 없다. 이 때문에 휴게시간은 근로 도중에 있어야 한다.

● 자유이용의 원칙

휴게시간은 관리·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 사용자는 부당한 간섭을 할 수 없다. 자유이용의 의의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하나는 휴게시간의 자유 이용은 피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이용이 자유이기만 하면 충분하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피로의 회복 외에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라도 자유로워야 한다는 견해이다. 본래 휴게시간의 자유이용이란 근로자가 선택한 제반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은 근로자가 시간적·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현재 작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자로부터 취업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태세로 대기하는 시간이다. 「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즉 사용자로부터 일정한 지휘·감독하에 대기하는 것으로 직무로부터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을 보장받은 시간이 아니므로,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의 공통점은 신체적·정신적인 휴식을 취하는 면이 있으며 차이점은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대기시간은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다음 작업을 기다리고 있고 작업이 시행될 때 곧바로 투입되는 점에서 차이를 알 수 있다.

3. 휴게시간의 특례규정

휴게시간 특례규정이란 업무의 특성이나 공중의 편리 등을 고려하여 휴게 시간 부여의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특례직종으로는 육상운송 및 파이프

라인 운송업, 수상운송,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이다.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주어야 한다. 휴게시간 특례조항은 2018년 3월 20일에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축소시키고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일이 종료된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는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업종) 개정

개정 전	개정 후(18.07.01)시행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운수업, 물품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2. 영화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연구 및 조사사업, 광고업 3. 의료 및 위생 사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4. 그 밖에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p>① 「통계법」 제22조 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1항에 따른 주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1항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p>②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신설)</p>

4.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

2018년 3월 20일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의 규제를 받지 않던 특례업종을 축소시키고 특례업종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일이 종료된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는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근로기준법 개정 전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사회복지사업으로 특례업종에 속하였으나 개정 후 휴게시간 특례업종이 축소되면서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는 모두 제외되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은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일부는 심각한 수준의 장시간 노동을 하고 있으며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근무환경과 복지후생제도 실효성을 높이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 (매일노동뉴스, 2017.09.11.)고 하였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 1일 시행일로부터 활동지원사는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 되었다. 활동지원사와 이용자들의 민원이 발생하자 대체인력 지원, 가족이 서비스 제공 가능하도록 하는 대책을 강구하였으나 가정과 거리에서 근무하는 특성으로 독립된 휴게공간의 제공이 어렵고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비롯

되는 감정노동의 특성으로 인하여 업무로부터 완전한 분리가 불가능하여 실질적 휴게시간을 보장 받기가 불가능하다.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활동지원사는 30분이나 1시간의 단시간 노동을 하고 다음 이용자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한다. 하루 3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여 초단시간 노동자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3회~6회의 노동을 하고 4회에서 7회의 이동을 해야 하므로 3시간을 유급노동을 하였지만 중간의 이동과 대기 시간이 추가되어 실 소요시간이 5시간 정도가 된다. 교통비 또한 통상 2회의 교통비를 부담해야하지만 3회~6회의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무급노동 시간과 부담된 교통비를 제하면 실질임금이 통상의 노동자의 50%정도밖에 되지 않아 대체인력으로 일하려는 노동자들의 거의 없다.

5. 활동지원사의 역할과 자질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면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활동지원인력이라 한다. 보통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서는 “활동지원사”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전국에 약 6만여 명이 활동지원사로 근무하고 있다. 중심적인 업무는 장애인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이다. 활동지원사는 혈연관계나 자원봉사자와는 달리 장애인의 사회활동을 비롯한 일상생활 등 모든 영역에서 지원하고 그 대가로 급여를 받으며 책임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일하는 전문직업인이며 중증장애인의 신체 기능적인 측면인 위생관리, 식생활 및 신변처리와 개인의 심리 및 안정을 위한 정신적 측면을 지원하여 더불어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력자이면서 노동자라 할 수 있다. 활동지원사는 중증장애인들이 각자의 장애정도에 따라 자신이 의도한대로 삶을 결정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벗어나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 등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새로운 환경이나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당황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도움을 주는 것은 활동보조인의 중요한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활동보조인을 비롯한 가족,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의 의사결정이 아니라 장애인 본인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활동지원사는 유급으로 일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와 다른 점이며, 이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유급이기 때문에 서비스의 모든 부분에서 결정권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있다. 활동지원사의 서비스에 대한 기술 능력이나 성격, 성향 등을 고려하여 고용여부를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결정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방법과 기간 등을 계획하여 제시한다.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이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파악해서 그 욕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자신의 가족이나 친척,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등의 의사결정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III. 연구의 방법

1. 자료수집

가. 활동지원사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준수하는 기관의 운영 실태
자료 수집을 위해 서울시 내 활동지원사업을 운영중인 제공 기관에 유선을 통해 휴게시간 운영 실태를 조사하였다.

- 1) A 기관 : 활동지원사 휴게시간 적용이 어려워 서비스 제공 월 계획서 문서상 30분 또는 1시간 휴게시간을 기재하고 있으나 실제 휴게 시간 없이 서비스 제공
- 2) B 기관 : 서비스 제공 도중 결재를 끊고 30분 또는 1시간 후 다시 서비스 제공 결재를 실행함. 그러나 실제로는 휴게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음
- 3) C 기관 : 법제화 후 휴게시간 실제로 운용하였으나 서비스 제공 과정중의 불편함으로 활동지원사와 이용자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여 1개월만에 운용 중단함
- 4) D 기관 : 대체인력으로 근무하길 희망하는 지원사가 없어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없음
- 5) E 기관 :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고 법 개정 이전처럼 사업을 운영중임

나. 사례

1) 중증장애인 A 경우

아침 8시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12시에 휴게시간을 가질 경우, 이 장애인은 점심을 먹는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활동지원사와 한 공간에서 휴게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중 이용자가 화장실에 가야하거나 물을 마시거나 할 때 부탁을 하는 경우가 생김. 이럴 경우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이므로 도와줄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

2) 이동장애인의 경우

돌발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이 다른 휠체어 이용자를 계단에서 밀어서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함. 돌발행동이 심한 장애인은 갑자기 뛰기도 하고 사람을 때리기도 하고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밀치기도 함. 그렇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사고가 발생할 경우 도의적인 책임과 죄책감은 활동지원사가 가지게 됨

3) 휴게시간 관련 판례

- 대법원 2017. 12. 13. 선고2016다243078 임금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아니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자료분석

가. 휴게시간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경과

근로기준법 제54조 휴게조항 자체의 개정은 없었으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시행2018.7.1.][법률 제 15513호, 2018.3.20. 일부개정]에서 특례업종을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은 2018년 7월 1일부터 특례업종에서 제외되어 ① 사회복지사업의 근로시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의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휴일을 포함한 7일(1주)간 12시간을 한도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며 ② 사회복지사업의 휴게시간은 2018년 7월 1일부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없다.

나. 휴게시간 부여에 따른 장애인의 위험 증가 가능성

장애인활동지원 업무는 1인 서비스 제공 업무라는 특성상 해당 장애인에 대한 지속적 업무가 필수적이다. 활동지원사가 잠시라도 긴장을 늦추게 되면 경우에 따라 해당 장애인은 생명까지도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실질적 휴게 공간 마련의 어려움

장애인활동지원 공간이 가정일 경우 활동지원사에게 실질적 휴게 공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는 장애인활동지원 공간이 야외나 시설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장애인복지관 등 공공시설에서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휴게 공간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전체 활동지원서비스 제공시간 중 일부에 불과하다.

라. 단기 대체인력 모집의 어려움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단기 대체인력으로 투입되는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초단시간근로자가 아닌 통상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 가급적 하루 3시간 이상의 근로시간을 확보하려 한다. 결국 30분 내지 1시간의 노동을 제공하고 이동하여 다시 노동을 제공하는 일을 수차례 반복해야만 하는데 무급인 이동시간과 비용까지 고려하면 이런 조건의 단기 대체인력 지원자를 찾는 것도 매우 어렵다.

마. 단기 대체인력 투입의 어려움

장애인활동지원과 같은 돌봄 노동은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존재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비스 노동에 비해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간 정서적 유대감 형성이 특히 중요하다. 즉, 돌봄 노동에는 서비스 제공자의 이용자에 대한 지속적, 연속적, 집중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돌봄 노동의 경우 단기 대체인력 투입에 어려움이 있다.

바. 휴게시간 문제

근로기준법상 4시간 노동에 30분, 8시간 노동에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보건복지부의 대책으로는 활동지원사의 휴게시간을 지원하기 위해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대체인력

은 아래 표와 같은 문제 및 한계가 존재한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기존의 활동지원사가 휴게 공간이 없어 실질적인 휴게가 보장되지 않음② 대체인력은 30분~60분 초단시간 노동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 (퇴직금, 4대보험 가입 불가)③ 초단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곳 이상의 대체인력으로 투입되어야 하며 근무지로 이동을 여러번 해야하기에 무급의 이동시간이 근로시간과 비슷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경우가 있음④ 대체인력으로 3회 근무하면 교통비가 약 4회 발생하게 되어 기존의 활동지원사보다 적은 시급을 수령함 |
|------------------------------------------------------------------------------------------------------------------------------------------------------------------------------------------------------------------------------------------------------------------------------------------------------------------------------------------------------|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아 기관장 또는 센터장이 법위반을 하여 처벌받거나 이용자가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1. 결론

활동지원사는 장애인의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를 최소화 시키고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활동지원사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근로자이다. 자원봉사자와 달리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의 요구와 결정에 의해 행위가 이루어진다. 즉, 자원봉사자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서비스를 중증장애인이 고마워해야 하는 부분이 아니라 중증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사회적 서비스로서 제공받는 것이다. 자원봉사자는 사회 책임이 적지만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에 단순한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하는 삶 자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의미를 알기에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활동지원사들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으로는 활동지원사들의 처우가 보장받고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나 현실은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제공기관들도 사업 수행이 어려운 상황일 것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이 계속 진행된다면 최대 피해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아야할 장애인 이용자들이 될 것이다. 활동지원서비스라는 본래 취지를 잊어서는 안된다.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 기관들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정부가 직접 활동지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한다. 활동지원서비스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과 해결책이 필요하다.

2. 제언

가. 개정 전 특례업종 재적용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휴게시간 적용이 제외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방안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휴게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휴게시간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활동지원사의 인간다운 삶,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반영하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나. 휴게시간 축적 후 일괄 사용 방안

휴게시간을 매일 사용하지 않고 모아서 무급 또는 유급으로 한꺼번에 사용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휴게시간을 모아서 차후에 사용한다는 방법이 하루에 연속된 근로로부터 활동지원사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지는 않으나 현실적으로 휴게시간을 근로일마다 가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적용해보는 것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다. 가산수당 지급 방안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과 같이 유사한 형태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도 고려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휴게시간을 강제하고 위반 시 사용자에 대한 처벌조항까지 두고 있는 현행법에서는 근로기준법과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가산수당 지급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아래의 표와 같이 활동지원수가 현실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가산 수당 지급은 불가능하다.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테이블]

(단위:원)

항목	2020년	2021년
	13,500	14,020
기본급(최저시급)	8,590	8,720
주휴수당	1,718	1,800
연차수당	567	736
퇴직적립금	906	938
4대보험료	1,028	1,030
운영비 및 사업비	1,691	2,116
합계	14,500	15,340
부족분	-1,000	-1,320

라.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휴게시간 보상

예를 들어 오전9시에 출근하여 오후5시에 퇴근하던 활동지원사가 휴게시간(1시간)을 가졌어도 실제 휴게를 하지 못하면서 오후6시에 퇴근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가산 수당을 지급 하자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오후4시에 퇴근을 하되 8시간분 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라면 대체인력 투입과 모집에서의 어려움 또한 일부 해결될 수 있다. 한계로는 1시간분에 대한 인건비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양천해누리복지관만의 조직문화 형성 및 발전방안 제시

전략기획팀 사회복지사
임소연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II. 이론적 배경

1. 조직문화에 관한 이론적 연구
2. 조직문화의 유형
3. 타 기관의 비교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2. 자료 분석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2. 제언
3. 연구의 한계성

부록

1. 설문지
2. 참고문헌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조직이란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정리한 체계화된 구조에 따라 구성원들이 상호작용하며 경계를 지니고 외부환경에 적응하는 인간들의 사회적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복지관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전문성과 책임성, 보편성 등을 기본 전제로 하며 이러한 기본 전제들은 조직 구성원들의 역할 및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 아닌 휴먼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조직은 서비스 전달과정에서 제공자와 수혜자 간의 신뢰 관계가 우선적으로 형성되어야 하며 이러한 신뢰를 바탕으로 클라이언트와의 대면접촉과 상호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복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이에 조직구성원들의 조직에 대한 적응도 및 만족도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 되어지는 서비스의 수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므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복지관이 역할과 기능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안정성 확보와 조직구성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 실천은 조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의 구성원은 조직 내의 문화에 따라 자신의 업무에 대한 태도 및 인식이 변화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조직에 있어서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태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올바른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직문화는 조직의 기관장과 구성원들이 조직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타나며, 이렇게 형성된 조직문화는 조직구성원의 직무성과 조직의 효과성을 향상시키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다. 더불어 조직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조직의 분위기를 변화시킴으로써 조직구성원들의 정서에 영향을 미쳐 동기부여 및 직무만족까지도 긍정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 조직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한 조직문화 형성을 통해서 이용자 서비스 만족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황순희, 2017).

점차 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형성을 사업 계획화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복지관도 2004년 10월 개관 이후 다양한 사업변화와 함께 조직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2018년부터 직원역량강화사업 안에 포함되었던 조직문화와 관련된 세부사업들을 정리하여 ‘조직문화사업’이라는 단위사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었던 조직문화사업에 대한 정리 뿐만 아니라 조직문화사업의 다양성 및 내실화를 위한 체계적인 운영이라고 볼 수 있다.

조직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지 등을 통해서 2017년(연구주제 :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를 활용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GWP(Good Work Place)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2019년(연구주제 :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생각하는 복지관의 현재와 미래) 연구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회에 걸쳐 진행된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다소 중복될 수 있는 연구내용이 결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우리복지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구체적인 인지 수준을 판단하고 방향성 제시를 위해서 실질적인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고자 한다. 또한 조직문화사업 담당자로서 구체적인 사업변화 및 방향성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우리복지관의 살맛나는 2단계 운영목표에 의거하여 건강한 조직문화 구축(공감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조직문화

구성, 함께 가는 가치지향 문화 조성, 윤리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수행)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본 연구사업을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우리복지관의 직원들이 인식하고 있는 조직문화 유형은 무엇이며 우리조직은 어떠한 조직문화를 추구하고 있는가?

연구문제 2. 우리복지관만의 특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서 우리조직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해야하는가?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는 우리복지관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구성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대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방법과 설문지를 사용하며 구체적인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헌연구는 기존에 실시했던 연구사업(2017년 신뢰경영지수(Trust Index)를 활용한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GWP(Good Work Place)조직문화에 관한 연구, 2019년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들이 생각하는 복지관의 현재와 미래)과 논문, 타 복지관의 홈페이지 및 보고서 등을 활용하였다.

둘째, 우리복지관에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조직문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우리조직의 조직문화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3. 연구의 범위와 한계

본 연구의 범위는 우리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유형을 파악하였기 때문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직문화의 방향성 도출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사대상의 한계성이다. 다양한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분석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조사대상에 대한 한계성이 존재하며 도출된 결과의 일반화에 있어서 제한점을 가진다.

둘째, 연구자가 조직문화사업의 담당자인 만큼 구체적인 사업변화 및 방향성 도출을 위해 필요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지만 담당사업의 평가로 마무리될 수도 우려가 있다.

셋째, 연구방법의 한계점이다. 현재 우리복지관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에 대한 결과분석을 통해 연구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주제 자체가 양적 연구방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심층적인 질적 연구방법인 병행될 때 연구의 타당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한계라고 보여진다.

II . 이론적 배경

1. 조직문화에 관한 이론적 연구

가. 조직문화의 개념

<표 1. 조직문화에 대한 정의(국내)>

연번	학자	내용
1	서인덕(1986)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신념 및 가치관
2	강홍구(2001)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대처하여 그러한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적응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를 통해 형성된 조직의 구조, 전략, 행동
3	손현중(2008)	조직의 신화, 패러다임, 고유의 의미체계, 그리고 공유의 언어체계로써 조직체 상황에서 조직구성원의 가치판단의 틀
4	함봉균(2008)	특정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이념, 신념, 관습, 지식, 그리고 상징물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개념
5	한봉주(2010)	주어진 외부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조직의 고유한 특성
6	최소연(2015)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대처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면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고유의 독특한 특성
7	추재엽(2017)	널리 공유되는 가치, 상징, 행위, 그리고 가정들로 구성되며 조직 내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

이와 같이 조직문화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여러 연구자들 간의 상이한 관점을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조직문화란 조직 구성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가치관과 신념 지식과 이념 전통과 규범 습관과 기술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인 개념이다. 조직이 어떤 상징 또는 가치를 추구하느냐에 따라 조직의 성격이 달라지며 이 상징성은 조직구성원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조직이 어떤 문화를 가지느냐에 따라 조직의 앞날이 달라질 수 있다. 조직문화는 정확하게 표현할 수 없는 다분히 정적인 것이면서도 조직을 이끄는 동인이며 조직의 바닥에 흐르고 있는 정신배경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사고와 행동에 방향과 힘을 제공하여 조직구성원들을 결집시키고 구성원들의 직장생활에 의미와 목적을 부여해 주면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문화는 조직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에 의해 조직의 성패가 좌우된다(안상희, 2004).

나. 조직문화의 구성요소

조직문화의 구성요소는 서로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조직문화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중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공유가치**라고 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조직목표, 보상, 의사소통 체계, 자율성과 책임감 등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있다.

<표 2. 조직문화 구성요소>

연번	구분	특성
1	공유가치	조직구성원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관, 전통가치, 이념, 기본목적을 포함
2	전략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과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3	구조	조직의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조직구조, 권한관계와 방침, 직무설계 등 구성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지배하는 공식적인 요소
4	제도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의사결정과 일상운영의 중요한 틀이 되는 제도와 절차 등의 각종 관리시스템
5	구성원	조직의 인력구성과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신념, 욕구와 동기, 지각과 태도, 능력과 전문성, 행동패턴
6	기술	조직을 운영하는 관리능력으로 구체적인 기술과 방법
7	스타일	조직구성원의 고유의 행동패턴

다. 조직문화의 기능

조직문화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이해와 그들의 결속을 촉진시켜 조직이 지향하는 목표를 실현시켜 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즉 조직문화는 조직전체에 공유된 가치를 부여하며, 조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간 관계 및 노사관계에 강력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

<표 3. 조직문화 기능>

구분	기능
순기능	① 조직구성원들에게 행동의 기준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구성원들의 행동이나 태도를 인도하고 규정함. 조직구성원들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관습적이고 규칙적인 방식
	② 조직원들에게 ‘우리’ 라는 정체성을 심어주며 자기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하여 어떤 특징과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주장할 수 있음
	③ 조직원들의 통합 또는 단결 을 촉진하는 기능을 함. 조직문화가 조직의 내부적 단합과 조화를 강화하는 이유는 특정조직의 독특한 신화, 의식, 관습 등은 다른 조직과의 이질감을 더욱 느끼게 하고, 조직구성원들 간의 동질성을 높여주기 때문임
	④ 조직구성원들이 조직의 공식적인 규정이나 지침을 일탈할 때 규제하여 조직구성원들이 조직목표에 합치되는 행동을 하도록 강요하는 통제 메커니즘 의 역할을 수행함
역기능	① 지나친 정체성이나 단결심의 강조로 조직구성원들의 감정을 자극하여 다른 조직을 비난하거나 방해하는 것과 같은 부작용 을 나타냄
	② 조직이 성장해 감에 따라서 역기능적이 될 수도 있음. 조직의 형성기에 조직문화는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조직 환경을 창출하며 일체감과 의사소통의 체계를 제공하여 성장을 위한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조직이 성장단계에 이르면 초기에 형성된 문화가 제도화되거나 조직구조의 과정 속에 정착하게 됨에 따라 조직문화를 의식하고 조직을 통합 유지하는 것이 어렵게 됨
	③ 조직이 성숙 및 쇠퇴단계에 이르게 되면 조직문화가 도리어 조직혁신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함. 조직문화는 조직이 과거에 거둔 영광을 보존하고 자부심 및 자기 방어의 원천이 되어 조직혁신을 거부 하게 됨.

2. 조직문화의 유형

조직문화는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인간중심적인 **관계지향문화**, 인간중심적인 업무방식을 지향하면서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혁신지향문화**, 통제 중심적이며 변화에 장기적인 반응을 보이는 **위계지향문화**, 과업 중심적이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과업지향문화**로 구분한다.

이들의 조직문화 유형별 특성은 <표 4>, <표 5>에 잘 나타나 있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표 4. 조직문화 유형>

연번	구분	특성
1	관계 지향문화 (합의문화)	<p>- 인간관계지향적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친밀감, 인간적 유대감, 집단의 결속력과 사기진작, 문제발생시 상호협력하고 배려하며, 참여적 의사결정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나지만,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행동에는 비교적 소극적인 경향을 나타냄. - 조직의 유연성과 내부 체제를 유지하는데 가치를 두고 있음. 신뢰관계 및 성실이 주된 가치이며, 동기부여 요인은 애사심, 구성원으로서의 자격 등으로 리더는 참여적이고 온정적임
2	혁신 지향문화 (개발문화)	<p>- 개방 시스템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외부환경 변화에 따라 조직의 유연성 확보를 강조하고, 조직이 직면하고 있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함. 구성원들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개발 및 개방적인 의사소통, 모험과 도전, 신속하고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를 통하여, 구성원들의 동기를 유발하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여 외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특징이 강하게 나타남 - 동기부여의 주요 요인으로는 지지, 성장, 창조성, 다양성 등 이 강조되며 리더는 창의력과 도전의식을 갖고 새로운 가능성과 이차적인 자원획득 그리고 외부지원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고 의사결정은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3	위계 지향문화 (위계문화)	<p>- 관료제의 특성이 강한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과정을 지향하며, 명확하고 공식적인 지시와 규칙, 집권화된 관리와 통제, 직권과 서열의식과 조직의 안정성을 강조하는 관료제의 특성이 비교적 강하게 나타남. 조직내부의 능력, 통일성, 조정, 평가를 강조하며 동기부여 요인으로 안전, 질서, 규칙 등이 활용됨. - 리더는 보수적이고, 공식적인 통제수단에 의한 조정과 조직화로 부하들을 관리한다. 공식화와 구조화된 정도가 매우 높은 구조적인 특성을 갖고 있음. 효율과 안전성을 추구하고 단순하고 안정된 환경하에서 일상적인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규모가 큰 조직에 효과적임. 안정과 통제를 강조하는 피라미드형, 관료조직에 부합하는 조직문화 유형
4	과업 지향문화 (합리문화)	<p>- 합리적 목적을 지향하는 문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관리를 추구하면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특성이 있음. 따라서 목표설정과 계획수립, 능률적인 과업달성, 성과에 대한 보상의 가치를 강조하는 특징을 가짐. 합리문화는 목표달성, 성과, 생산성 등을 강조함. 이 문화의 목적은 목표달성에 있으며, 동기부여 요인들로서는 경쟁과 목표의 성공적인 달성임 - 리더는 지속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며 지시적이고, 목표 지향적이고, 생산성 향상을 격려해야 하고, 논리적이며, 신속해야함. 또한 구성원들에게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되어 구성원들에게 오히려 조직에 대한 방어적인 태도와 개인주의적인 모습을 나타내기도 함. 계획성, 생산성, 능률성을 강조하는 시장형태나 미국형 조직이 합리문화 유형에 이상적인 조직임

<표 5. 조직문화 유형의 특징>

구분	관계지향문화 (합의문화)	혁신지향문화 (개발문화)	위계지향문화 (위계문화)	과업지향문화 (합리문화)
조직목적	집단유지	광범위한 목적	규정의 집행	목표의 추구
업적기준	응집성, 사기	외부지원, 성장, 자원획득	안정성, 통제	생산성, 능력
권위의 소재	구성원 자격	카리스마	규칙	상위자
권력의 기반	비공식적 지위	가치	기술적 지식	능력
의사결정	참여	직관적 통찰력	사실 분석	단호한 선언
추종	과정에의 몰입	가치에의 몰입	감시와 통제	계약적 동의
구성원 평가	관계의 질	노력의 강도	공식적 기준	유형적 산출
고유동기	친화	성장	안정	성취

III. 연구의 방법

1.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

가. 조사대상

<표 6. 조사대상>

구분	내용
자료수집	네이버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
조사범위	양천해누리복지관 직원 49명
조사기간	2020년 11월 9일(월) ~ 11월 11일(수)
응답자수	직원 총 35명
회신율	71%

나. 조사내용

<표 7. 조사내용>

구분	내용
조직문화 유형 관련 설문내용	<div style="display: flex;"> <div style="flex: 1;"> <p>관계지향 문화 (합의문화)</p> </div> <div style="flex: 4;">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성원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2. 구성원 간의 협조적인 근무 분위기를 중시한다 3. 조직 내에서 인간 친화가 강조된다 4. 상급자는 지휘, 명령하는 보스라기 보다 오히려 친근한 직장 선배로 느껴진다 5.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감싸주려고 한다. 6.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div> </div>

구분	내용	
	혁신지향 문화 (개발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창의적이다 2. 선도적인 위치에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인 강조된다 3. 업무처리 절차 및 규칙 등의 변경이 용이하다 4.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도 새로운 사업 활동에 과감하게 지원한다 5.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6. 제안제도나 창의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위계지향 문화 (위계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급자와 부하 간의 서열의식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2. 엄격한 결재과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통솔, 통제를 강조한다 3. 업무처리에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이 세심하게 정해져 있다 4. 상위관리자는 직권과 통제로써 조직을 이끌어간다 5. 새로운 방법의 모색보다는 규정을 철저히 따르면서 실수 없는 것이 강조된다 6. 변화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과업지향 문화 (합리문화)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조직에서 가장 강조하는 목표는 효율성이다 2. 모든 관리 조직 및 행동이 목표달성 위주로 되어있다 3. 구성원의 평가는 실적 위주로 한다 4. 모든 일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다 5. 조직에서 늘 강조하는 중요한 지침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6.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구성원은 조직에서 밀려난다
기타의견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평소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 응답자가 평소 생각했던 조직문화는 무엇인가요? 3. 조직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4. 우리복지관의 긍정적인 조직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우리복지관의 변화되어야 하는 조직문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6. 우리복지관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자료결과

가. 조사응답자

<표 8-1. 조사응답자 비율>

평가요소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합계
사회복지기관 총 근무경력	2(5.7%)	14(40%)	19(54.3%)	35(100%)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	4(11.4%)	16(45.7%)	15(42.9%)	35(100%)

나. 조직문화유형에 따른 결과

<표 8-2. 조직문화의 중요성 인지>

평가요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기본	1. 평소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	-	2 (5.7%)	16 (45.7%)	17 (48.6%)	4.42

<표 8-2> 조직문화의 중요성 인지 부분 관련하여 ‘평소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가 총 17명(48.6%)으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는 ‘그렇다’ 16명(45.7%), ‘보통이다’ 2명(5.7%) 순으로 나타났다. 과반의 직원들이 평소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8-3. 관계지향문화 설문 결과>

평가요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관계 지향 문화 (합의 문화)	1. 구성원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	3 (8.6%)	9 (25.7%)	15 (42.9%)	8 (22.9%)	3.80
	2. 구성원 간의 협조적인 근무 분위기를 중시한다	-	2 (5.7%)	10 (28.6%)	17 (48.6%)	6 (17.1%)	3.77
	3. 조직 내에서 인간 친화가 강조된다	2 (5.7%)	4 (11.4%)	10 (28.6%)	18 (51.4%)	1 (2.9%)	3.34
	4. 상급자는 지휘, 명령하는 보스라기 보다 오히려 친근한 직장 선배로 느껴진다	6 (17.1%)	12 (34.3%)	8 (22.9%)	9 (25.7%)	-	2.57
	5.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감싸주려고 한다.	6 (17.1%)	6 (17.1%)	10 (28.6%)	12 (34.3%)	1 (2.9%)	2.88
	6.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4 (11.4%)	8 (22.9%)	13 (37.1%)	8 (22.9%)	2 (5.7%)	2.88
평균							3.20

<표 8-3> 관계지향문화 설문 조사 결과 6가지 설문문항에서 평균 3.20점을 나타냈다. 우호적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 협조적인 근무분위기 중시, 인간 친화 강조의 설문문항에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평균 3점 대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상급자의 이미지, 문제 발생 시 대응, 구성원 간 교류를 묻는 설문문항에서는 평균 2점 대로 나타났다.

<표 8-4. 혁신지향문화 설문 결과>

평가요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혁신 지향 문화 (개발 문화)	7.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창의적이다	1 (2.9%)	10 (28.6%)	16 (45.7%)	8 (22.9%)	-	2.88
	8. 선도적인 위치에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인 강조된다	3 (8.6%)	5 (14.3%)	20 (57.1%)	6 (17.1%)	1 (2.9%)	2.91
	9. 업무처리 절차 및 규칙 등의 변경이 용 이하다	6 (17.1%)	16 (45.7)	8 (22.9%)	4 (11.4%)	1 (2.9%)	2.37
	10.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도 새로운 사 업 활동에 과감하게 지원한다	5 (14.3%)	13 (37.1%)	12 (34.3%)	5 (14.3%)	-	2.48
	11.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2 (5.7%)	6 (17.1%)	9 (25.7%)	13 (37.1%)	5 (14.3%)	3.37
	12. 제안제도가나 창의제도가 충분히 활용되 고 있다.	3 (8.6%)	12 (34.3%)	15 (42.9%)	5 (14.3%)	-	2.62
평균							2.77

<표 8-4> 혁신지향문화 설문 조사 결과 6가지 설문문항에서 평균 2.77점을 나타냈다. 아이디어 강조 및 창의성, 선도적 위치에서의 성장발전 강조, 업무절차 및 규칙의 변경 용이, 새로운 사업에 과감한 지원, 제안제도의 충분한 활용을 묻는 설문문항에서는 평균 2점 대로 나타났다. 하지만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강조 부분은 유일하게 3점 대로 나타났다.

<표 8-5. 과업지향문화 설문 결과>

평가요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과업 지향 문화 (합리 문화)	13. 조직에서 가장 강조하는 목표는 효율 성이다	2 (5.7%)	10 (28.6%)	17 (48.6%)	6 (17.1%)	-	2.77
	14. 모든 관리 조직 및 행동이 목표달성 위주로 되어있다	-	3 (8.6%)	7 (20%)	16 (45.7%)	9 (25.7%)	3.88
	15. 구성원의 평가는 실적 위주로 한다	-	5 (14.3%)	12 (34.3%)	14 (40%)	4 (11.4%)	3.48
	16. 모든 일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다	-	6 (17.1%)	12 (34.3%)	14 (40%)	3 (8.6%)	3.40
	17. 조직에서 늘 강조하는 중요한 지침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 리는 것이다	-	4 (11.4%)	6 (17.1%)	18 (51.4%)	7 (20%)	3.77
	18.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능 력이 떨어지는 구성원은 조직에서 밀 려난다	3 (8.6%)	13 (37.1%)	13 (37.1%)	4 (11.4%)	2 (5.7%)	2.68
평균							3.33

<표 8-5> 과업지향문화 설문 조사 결과 6가지 설문문항에서 평균 3.33점을 나타냈다. 목표달성 위주, 실적위주의 평가, 목표달성, 성과중심을 묻는 설문문항에서는 평균 3점 대의 응답이 나타났다. 하지만 목표의 효율성 강조, 목표 미달성 시 조직의 태도 등에 대한 부분에서는 평균 2점 대로 나타났다.

<표 8-6. 위계지향문화 설문 결과>

평가요소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평균
위계지향문화 (위계문화)	19. 상급자와 부하 간의 서열의식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	5 (14.3%)	11 (31.4%)	11 (31.4%)	8 (22.9%)	3.62
	20. 엄격한 결재과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통솔, 통제력을 강조한다	-	5 (14.3%)	4 (11.4%)	13 (37.1%)	13 (37.1%)	3.94
	21. 업무처리에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이 세심하게 정해져 있다	1 (2.9%)	4 (11.4%)	17 (48.6%)	11 (31.4%)	2 (5.7%)	3.25
	22. 상위관리자는 직권과 통제로써 조직을 이끌어간다	-	6 (17.1%)	8 (22.9%)	12 (34.3%)	9 (25.7%)	3.68
	23. 새로운 방법의 모색보다는 규정을 철저히 따르면서 실수 없는 것이 강조된다	1 (2.9%)	2 (5.7%)	15 (42.9%)	12 (34.3%)	5 (14.3%)	3.51
	24. 변화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	5 (14.3%)	13 (37.1%)	10 (28.6%)	7 (20%)	3.54
평균							3.59

<표 8-6> 위계지향문화 설문 조사 결과 6가지 설문문항에서 평균 3.59점을 나타냈다. 6가지 설문문항 모두 평균 3점대로 응답이 나타났다.

다. 우리복지관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결과

<표 9-1.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결과 ①>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총 1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인 신념 및 가치관 - 사람 중심의 친화적 분위기 -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서로 공유되고 공감되는 분위기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조직문화도 외부환경에 적응하여 변화하고 유연하게 대처함으로써 조직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대안을 끊임없이 고안해 나가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뢰 - 인간관계 - 코로나 19로 어렵지만 팀 내 관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 모임지원 - 기관장의 가치관 및 마인드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	조직문화의 개념	조직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
총 1년 이상 ~ 5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지위와 관계없이 존중받는 문화 - 조직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기본적 신념 및 가치관 - 주어진 외부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조직의 고유한 특성 - 조직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가치, 문화, 규칙 - 조직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가치, 신념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주는 것 - 조직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생각 및 활동 - 조직의 구성원들이 함께 상호 작용하면서 변화와 안정을 이끌어 가는 것 - 주어진 업무환경과 권리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을 갖고 자신이 맡은 업무를 완료하고 조직이 함께 일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나가는 것 - 조직 내 형성된 특성 - 조직의 고유한 특성 -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대처하기 위해 조직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유한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쉽 - 상급자 및 관리자의 마인드 - 국 관장님의 의견과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자질, 인권존중 - 리더의 자질 - 임원진의 생각 - 동료들의 참여의사 - 조직의 고유 특성 - 직원의 복리후생 - 책임과 권한의 범위 내에서의 자율성 보장 - 긍정적 지지 : 존중받는 일원이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조직 - 자율성 - 변화하는 환경 - 단합과 화합, 상관의 지원을 통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는 상호합의가 가장 중요 -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가진 이념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어진 외부환경 속에서 장시간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조직의 고유한 특성 -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대처하기 위해 조직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 적응하면서 공유하는 기본적인 가치체계로 구성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고유의 독특한 특성 - 널리 공유되는 가치, 상징, 행위, 그리고 가정들로 구성되며 조직 내에서 업무가 처리되는 방식 - 끊임없이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 대처하여 그러한 조직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한 적응과정이 필요하며, 이런 변화를 통해 형성된 조직의 구조, 전략, 행동 - 조직 구성원들의 끈끈함. 너의 일, 나의 일이 아닌 우리 모두의 일!! - 서로 협조하며 배려해주고 감싸줄 필요가 있음 - 조직은 관계임. 신뢰와 존중없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함. 수평 관계를 논하는 것이 아님. 조직은 상하관계가 필요하며 그 속에서 존중, 신뢰가 중요함 - 회사라는 작은 사회를 형성하면서 생기는 문화라고 생각함 - 조직의 분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위 관리자의 성향 - 관리자의 마인드 - 관리자의 조직에 대한 가치관 - 관장, 국장님의 의지 - 구성원들의 업무 동기부여 - 개인 성향, 개인의 가치관, 개인의 삶의 방식 - 이타적인 마음과 신뢰 - 사람에게 대한 이해, 조직의 문화 - 실무자를 지지해주고 생각하지 못한 방향은 중간관리자 이상이 해주고 함께 모여 고민하고 함께 복지를 생각해서 추진하는 것 - 직원 전체 - 느낌 - 소통

<표 9-2.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 결과 ②>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	우리복지관 조직문화의 긍정적 요인	우리복지관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
총 1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 내 믿음 - 주기적 모임 - 구성원 간 업무에 대한 배려심 및 협동심 - 개인성, 개별성 존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력 - 코로나 19로 어렵지만 팀 내 관계 개선을 위한 정기적 모임지원 - 자유로운 표현과 수용, 의사소통
총 1년 이상 ~ 5년 미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급자와의 소통채널이 공식적으로 구성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 -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분위기 - 문제발생 시 해결능력 - 의견 제시를 위한 다양한 창구나 방법 - 하고자 하는 것을 지지해줄 때 - 직원들의 생각에 대해 궁금해 하는 것 - 협조적 분위기 - 개인 한 두명의 부정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일단 자신의 업무라고 생각하거나 함께 해야 상황에서 열심히 참여하고 지원 하는 분위기 - 사람들이 착하고 좋음 - 특별히 없는 것 같음 - 인간적이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 - 다양한 교육 참여 - 자유로운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수용됨 - 잘 모르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연차 직원의 텃세(?)가 없어져야 할 것 같음. 신입직원들이 고연차 직원들의 텃세에 오래 못 버티고 기관을 떠나는 경우가 많음 - 새로운 시도를 함께 있어서 처음부터 안된다는 식의 사기를 저하하는 의사표현은 아닌 것 같음 - 조직 구성원 개개인이 조직을 위해 고민하려는 마음가짐 - 서로간의 신뢰 - 다양한 소통방법에 비해 실질적인 소통은 되지 않고 있음. 의견을 내면 방어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부분에서 열린 마음이어야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무조건 조직 문화만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직원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음 - 적정 기준에 따른 지지 - 열린 마음 - 조직에 대한 이해 공감 지지 - 긍정적으로 지지해주는 분위기 - "왜?" 라는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라는 표현이 증가 된다면 - 조직 내에서 개인의 모든 상황과 성향을 이해할 수는 없음. 그러나 '예전에는 그랬는데, 나 때는 그랬는데, 예전에 나도 했었으니깐 당연히' 라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것을 왜 해야 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의 필요성을 제시해 주는 문화 - 공동체 의식을 느낄만한 무언가가 없음 - 유연한 사고, 진심으로 직원을 위한 마음 - 고객보다 직원 입장에서 배려, 생각해줄고 지지해줄 수 있는 상급자의 마인드 - 민원에만 급급하게 반응하지 않는 마인드 - 팀 결속력 증진, 필요없는 단체 업무 축소 등 -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마음가짐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	우리복지관 조직문화의 <u>긍정적 요인</u>	우리복지관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u>필요한 요인</u>
5년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소연 사회복지사님 - 신입직원의 업무에 대한 열의 - 긍정적인 문화로 변화하기 위한 사고 - 조직문화사업이 직원들을 유연하게 함 - 동료 간의 관계 - 직원들을 위해 존재하였던 다양한 혜택들 - 사람도 좋고 긍정적인 인력이 많음 - 함께하려고 하는 부분 - 없음 -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음 - 젊은 직원이 많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소연 사회복지사님 -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존중과 신뢰하는 마음가짐 - 관내외 교육 - 믿고, 지지, 격려해주는 문화 형성 - 지도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모두가 지적당하지 않는 분위기 - 개인별, 팀별 맞춤형 슈퍼비전 - 동료들과의 협조 - 신뢰 - 소통 - 이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믿고 신뢰하는 밑받침이 절실히 필요 - 유동성 및 조율 - 팀 간 경쟁심을 없애야함 - 조금은 유연한 업무 처리 방식과 상/하급자간의 신뢰관계 회복 - 자유성 - 맨 위부터 책임을 저주는 문화 - 실패에 대해 질타보다는 과정을 생각하고 보완할 수 있는 여유 - 어려운 일수록 동료와 고민을 나누고 함께 만들어 간다는 신념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총 35명의 응답직원들의 94.3% 이상이 평소 조직문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총 4가지 조직문화 유형(관계지향문화, 혁신지향문화, 위계지향문화, 과업지향문화)을 조사한 결과 위계지향문화 평균 3.59점, 과업지향문화 평균 3.33점, 관계지향문화 평균 3.20점, 혁신지향문화 평균 2.77점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서술형으로 조사한 결과 조직문화에 대한 개념의 경우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이해 및 구체적인 설명을 제시하였다. 조직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근무경력 1년 미만자의 경우 신뢰, 인간관계, 정기적인 모임지원, 기관장의 가치관 및 마인드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총 1년 이상 5년 미만자의 경우 관리자 및 상급자의 마인드와 리더십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환경조성, 자율성 및 자유로운 의사표현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경력 총 5년 이상 직원의 경우 관리자의 가치관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우리복지관 조직문화의 긍정적 요인에 대한 의견으로는 근무경력 1년 미만자의 경우 믿음, 주기

적인 모임, 협동심 등으로 나타났다. 총 1년 이상 5년 미만의 직원은 협조 및 자유로운 분위기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근무경력 총 5년 이상의 직원은 동료들 간의 관계 및 직원들에 대한 의견들이 다수 나타났다.

우리복지관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인에 대한 의견의 경우 근무경력 1년 미만자의 경우 긍정적 요인과 비슷하게 협력, 정기적 모임 등으로 나타났다. 총 1년 이상 5년 미만자의 경우 소통, 신뢰, 공동체, 공감, 지지 등 가치관과 연결되는 단어들이 많이 나타났다. 5년 이상 근무자의 경우 '신뢰' 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2. 제언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개념 이해와 구성요소, 기능(순기능, 역기능), 4가지 조직문화 유형 및 특징, 설문조사 결과 등을 조사한 결과 '우리 조직문화는 000이다' 라는 정의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하지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만들어가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조직의 다양하고 소소한 문화들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구체적으로 조직문화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토대로 정리한 결과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조직문화는 단순한 복리후생 또는 직원 복지다' 라는 생각이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시각에서 조직문화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조직문화 개선과 이러한 개선을 위한 원칙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조직문화 개선의 이해

조직과 직원의 행동과 분위기에 문제가 있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을 때 그것을 바람직하게 바꾸어 가는 것이다. 제도만 바꿀 수도 있고, 구조와 프로세스를 바꾸어야 할 수도 있고, 리더십을 바꾸는 것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되거나 다른 이슈가 있다면 직원들의 행동규범을 통해 바꿀 수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면 미션, 비전과 목표, 핵심가치를 통해 바꿀 수도 있다. 즉, 일하는 방식, 소통, 협업, 행동규범/약속 수립, 미션/비전과 목표/핵심가치 수립 또는 내재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직의 상황에 맞게 무엇으로 조직문화 개선을 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된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이 조직문화를 단순히 직원들에게 제공되는 '복지' 나 '워라벨' 수준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다. 혹은 단순히 한 조직이 얼마나 수평적인지 또는 수직적 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생각한다. 조직문화를 이처럼 해석하는 조직들의 조직문화 개선 활동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마치 야유회나 체육대회, 동호회 활동과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조직의 목표는 '친목' 이 아니다. 각 조직의 목적과 목표에 따라 결국 여러 사람이 모여 일을 하는 것이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문화는 결국 '일하는 방식' 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조직문화 활동의 목표는 결국 '함께 일하는 방식을 찾아 나가는 것' 이 되어야 한다. 함께 일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즐거운 대화보다 깊은 대화를 나누게 해야 한다. 조직의 문제를 외면하기보다 직면하게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한 직원이 개인의 성과와 성장에만 집중하고 있을 때, 우리 팀과 우리 조직의 성과와 성장에 대해 고민할 수 있도록 관점을 전환시키는 활동이

되어야 한다. 조직문화는 결코 복지가 아니다.

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활동 5가지 원칙

첫째,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직원들과 공유해야 한다. 조직문화 활동은 기본이 되는 상시 활동이다. 과거에는 이벤트처럼 진행했다면 현재는 상시적이고 조직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 조직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쉬울 때는 사고가 터졌을 때다. 조직문화 활동이 익숙하지 않은 조직의 경우, 일상적 상황에서 조직문화 활동을 하려면 결재권자나 직원들의 조직 내부에서 어떠한 문제제기나 반대를 받기 쉽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연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이 직원들에게 공유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일하는 방식 또는 가치관으로 할 것인지 회사의 상황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 일하는 방식 개선(근로시간 단축, 업무효율성 등)은 대부분 조직에서 문제제기가 없는 조직문화 활동이다. 하지만 가치관은 조직문화 개선의 강력한 수단이며 근본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근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시작할 수가 없다. 2020년이라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비전과 목표 수립은 자연스러운 주제가 될 수 있다. 가치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직이라면 미션 및 비전, 핵심가치 내재화를 진행할 수 있다.

셋째, 조직문화 부서는 책임성을 갖고 지속성을 유지해야 한다.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개선 또는 가치관 수립이나 내재화를 진행하는 경우 조직문화 부서는 높은 책임성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조직문화 활동은 사람의 생각과 행동, 분위기를 만드는 전문적인 직무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조직의 목적과 목표를 어떻게 달성해가고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함께 공유하고 논의되어야 한다.

넷째, 조직과 직원들에게 분명하고 바람직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많은 조직의 신년사는 변화와 도약을 위한 절박함이 있었다. "결과보다 과정 중시" "이익보다 품질 우선" 하지만 이런 멋진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봐야 한다. 과정은 좋지만 결과가 나쁜 것을 용인할 수 있는가? 결과는 좋은데 손해가 크다면 용인할 수 있는가? 조직은 결과가 나쁘고 이익을 못내는 것을 용인해서도 수용할 수도 없다. 구성원을 헛갈리게 만드는 부적절한 메시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옳다. "결과만큼 과정 중시" "이익만큼 품질 우선" 조직은 구성원에게 분명하고 바람직한 메시지를 제시해야 한다.

다섯째, 조직문화 개선은 조직의 성과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지극히 당연한 얘기지만, 조직문화 활동을 하다보면 직원들의 호응도 크지만 그 내용이 업무 부담을 덜 지려하고 일을 적게 하려는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소통과 협력도 리더와 상대방의 양보를 바라는 양상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자칫 "이런 활동을 왜 하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방향성을 놓치면 안된다. 조직문화 개선의 목적은 조직의 성과창출이다. 여기서 성과란 단지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미션과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다. 제언

4가지 조직문화 유형을 조사한 결과 평균점수로는 우리기관은 위계지향문화에 가깝고 혁신지향문화와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평균점수가 우리기관의 조직문화를 정확하

게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많은 직원들이 조직문화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고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조직문화사업 담당자인 나도 좀 더 조직문화가 가진 사전적 의미와 중요성, 그리고 합의되고 공유된 조직문화라는 원칙이 조직 내에서 얼마나 영향력을 미치는 지 알 수 있었다. 과연 우리 조직 문화 속에서 나(우리)는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고 있는가? 본 연구를 통해서 직원들이 조직문화에 대해 잠깐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었겠지만 그것을 넘어서 한번 짚은 우리 조직은 어떠한 조직인지 다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개인에게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 조직인 만큼, 우리복지관만의 특별한 조직문화를 찾는 것 또는 '우리 조직문화는 000이다' 라는 단순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문화를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공유된 원칙을 찾기 위한 방법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 노력은 우리복지관 전체직원이 함께 하나씩 풀어가야 하며 조직문화사업 담당자로서 한번 짚은 조직문화에 교육을 통해 조직 진단과 개개인의 다양한 생각 및 사고를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조직문화사업을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조직문화의 중요성, 영향력, 다양한 기능들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조직문화를 단순한 복리후생 또는 직원복지의 단순한 개념이 아닌 다양한 시각에서 조직문화를 바라볼 수 있는 눈높이를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부록 1. 설문지

양천해누리복지관만의 조직문화 형성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한 설문지

□ 우리복지관의 조직문화 형성 및 발전방안 제시를 위해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해당하는 사항에 V 체크해주세요.

연번	내 용	내용에 대한 의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평소 조직문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2	구성원들은 서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3	구성원 간의 협조적인 근무 분위기를 중시한다					
4	조직 내에서 인간 친화가 강조된다					
5	상급자는 지휘, 명령하는 보스라기 보다 오히려 친근한 직장 선배로 느껴진다					
6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감싸주려고 한다.					
7	구성원들 간의 교류가 매우 활발하다					
8	새로운 아이디어를 강조하고 창의적이다					
9	선도적인 위치에서 성장 발전해 나가는 것이 강조된다					
10	업무처리 절차 및 규칙 등의 변경이 용이하다					
11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도 새로운 사업 활동에 과감하게 지원한다					
12	늘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강조한다					
13	제안제도나 창의제도나 충분히 활용되고 있다.					
14	상급자와 부하 간의 서열의식이 매우 강조되고 있다					
15	엄격한 결재과정을 통해 조직 전체의 통솔, 통제를 강조한다					
16	업무처리에 관련된 절차 및 규정이 세심하게 정해져 있다					
17	상위관리자는 직권과 통제로써 조직을 이끌어 간다					
18	새로운 방법의 모색보다는 규정을 철저히 따르면서 실수 없는 것이 강조된다					
19	변화보다는 조직의 안정과 질서를 우선적으로 강조한다					
20	조직에서 가장 강조하는 목표는 효율성이다					
21	모든 관리 조직 및 행동이 목표달성 위주로 되어있다					

연번	내 용	내용에 대한 의견				
		매우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22	구성원의 평가는 실적 위주로 한다					
23	모든 일은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된다					
24	조직에서 늘 강조하는 중요한 지침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올리는 것이다					
25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떨어지는 구성원은 조직에서 밀려난다					

□ 평소 우리복지관의 조직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생각과 의견을 듣기 위한 질문입니다.

연번	내용	내용에 대한 의견
26	응답자가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무엇인가요?	
27	조직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8	우리복지관 조직문화의 긍정적인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9	우리복지관 조직문화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자의 기본사항

사회복지기관 총 근무경력 (우리복지관 포함)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우리복지관 총 근무경력	1년 미만(), 1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부록 2. 참고문헌

- 안상희.(2004) 장애인복지관 직원들이 인지하고 있는 조직문화유형에 관한 연구(서울지역 장애인복지관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황성운.(2013) 사회복지관의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 논문. 경기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황순희.(2017) 조직문화가 사회복지사의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 논문. 부산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이미영.(2018) 사회복지조직의 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 관계에서 신뢰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군산대학교 사회복지 대학원
- 더밸류즈 정진호 가치관경영연구소

공용물품 공유시스템으로 운영비 절감방안모색

경영지원팀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II. 연구방법

1. 공유시스템 구축

IV. 분석결과 및 제언

1. 분석결과
2. 제언

부록

1. 설문지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장애인복지 정책은 시대와 복지패러다임의 변화로 시혜적, 보완적 개념→사회입법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적으로, 자선과 박애의 개념→ ‘시민의 권리’ 의 개념으로 빈민복지, 구빈복지→복지국가→복지사회로, 특수계층·집단 대상 선별적 서비스→ 전 국민 대상의 보편적으로, 최저조건의 보장→최적조건의 충족으로 변천으로, 복지의 개인·가족 책임 → 국가와 사회의 책임으로, 그리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비준이후로는 욕구패러다임(Needs paradigm)→권리패러다임(rights paradigm)으로 변화되었다.

장애인복지관도 정책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역할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장애인의 지역사회 재활시설 시설로서의 역할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기반 복지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영유아 조기개입 체계 구축부터 탈시설화 장애인 지역사회 정착 등 다양한 장애당사자의 욕구에 맞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이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15년 전 개관시 필요한 인력 40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부족한 인력 8명은 사업수입, 후원금 등으로 충원하고 있다. 또한 물가는 해가 갈수록 인상이 되고 있는데 운영비 보조금 예산은 2017년 이후 동결되었다.

<양천해누리복지관 운영비 보조금>

(단위:천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83,200	283,200	283,200	283,200

부족한 운영비를 보완하기에는 사업수입과 후원금으로 보완하고 있지만, 한정된 인력과 공간에서 재활치료와 프로그램을 증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후원금 또한 경기 악화로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불안정한 재원의 확보이다.

그래서 경영지원팀에서 수입의 증가보다는 지출의 감소를 통해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운영비 절감에 대해 직원과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여 운영비를 줄일 방법을 고민하다 각 팀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용품과 기기를 공유하고, 매년 여름에 천만원이상 전기비용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 비용을 줄인다면 부족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구방법의 내용이 운영비 절감에 있어 작은 실천 부분이고, 예산도 전체 운영비의 작은 부분이겠지만, 이 연구를 통해 직원에게 운영비 감소에 대해 공감과 역할을 부여하고, 함께 동참하여 성과 낸다면 더 큰 성공을 위해 운영비 절감에 대해 다양한 모색을 하며 예산 사용 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산 사용의 아낄 수 있다고 생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했다.

II. 연구방법

1. 공유 시스템 플랫폼 구축

가. 공유 시스템 구축 배경

양천해누리복지관은 1국 9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년에 사무용품으로 약 2,380,760원(2019년 기준)을 지출하고 있다. 2020년 1월 팀 개편을 하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 팀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물품이 발견되었다.

우리는 왜 이런 물품이 사용되지 않고 팀에서는 보관이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고민의 결과 물품을 구입한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이 다르거나, 물품이 있는 줄 모른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이런 물품을 공유한다면 새롭게 물품을 구매하지 않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물품을 누군가가 필요하여 사용되어 경제적인 이익이 올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공유경제라고 한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을 뜻한다. 이에 우리는 공유시스템 구축을 하고 그 시스템을 통한 물품 공유를 하여 사무용품 사용에 대한 운영비 절감방안을 제안한다.

나. 공유 시스템 구축 과정

1) 진행과정

□ 공용물품 보관 장소 구축

직원이 사용하기 편리한 2층 사무실과 3층 사무실 근처에 설치하고 싶었지만, 공용물품이 작은 사무용품도 있지만 트러스, 온수기 등 부피가 큰 물품도 있어 약 5평의 공간이 필요하여 지하 2층 주민모임터 안쪽 창고가 있어 거기로 선정하게 되었다.

물품을 적재해야할 선반이 필요하였는데 불용 폐기한 가구를 수선하여 물건을 쌓아놓을 수 있는 선반을 제작하여 활용하였다.

□ 공용물품 수집

물품 장소를 구축한 후 약 2주간 각 팀별로 사용하지 않는 소품을 수거하여 약 100여 가지 종류 1,200여개의 물건을 비치하였다.

<주민모임터 내 설치>



□ 공유물품 플랫폼구축

시스템 구축 전 직원과 공유할 문서에 대해 고민함. 기존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 시 직원이 문서를 이용하면 다른 직원은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에 대해 고민하여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직원의 접근성과 동시 작성 등을 고려해 구글 G-Suite 중 구글드라이브의 「구글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활용한 유틸리티는 결정하였지만 직원이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몇 번의 테스트와 내부 논의를 통해 '공유물품리스트' 를 제작하게 되었다. 그 후 각 팀별로 쓰지 않는 공유물품에 대해 수집하였고, 이를 정리하여 지하 2층 주민모임터 안쪽 창고에 설치하였다.

<공유물품시스템 플랫폼>

연번	비밀구분	소유종류	사진	비고(상태)	단위	총재고	현재고	비판단	최종시점일
1	재목물품	서랍장		중고	개	12	12	0	
2	재목물품	학구판		보통	개	12	12	0	
3	재목물품	학구라켓		중고	개	2	2	0	
4	재목물품	학구라켓 세트		새제품	세트	2	2	0	
5	재목물품	물로켓 세트		새제품	세트	1	1	0	
6	재목물품	단체동냥기		새제품	개	1	1	0	

[재물현황표]

순번	일시	종류	입고	출고	반출	반입	사용자	사용처
1	2020-06-29	헤드셋	3					
2	2020-06-29	일용지	100					
3	2020-06-29	플라스틱	4					
4	2020-06-29	나무	2					
5	2020-06-29	3차 프로그래머	1				박지영	수업활동
6	2020-06-29	반조각	4					
7	2020-06-29	일용	4					
8	2020-06-29	방스	15					
9	2020-06-29	책갈피	2					
10	2020-06-29	악기(악보)	1					
11	2020-06-29	관악기	5					
12	2020-06-29	악기	4					
13	2020-06-29	악보	50					
14	2020-06-29	악보지	1					
15	2020-06-29	악보지	30					
16	2020-06-29	악보지	2					
17	2020-06-29	악보지	6					
18	2020-06-29	악보지	36					
19	2020-06-29	악보지	6					
20	2020-06-29	악보지	2					
21	2020-06-29	악보지	26					
22	2020-06-29	악보지	15					
23	2020-06-29	악보지	1					
24	2020-06-29	악보지	1					
25	2020-06-29	악보지	1					
26	2020-06-29	악보지	1					
27	2020-06-29	악보지	1					
28	2020-06-29	악보지	1					
29	2020-06-29	악보지	1					
30	2020-06-29	악보지	3					
31	2020-06-29	악보지	2					
32	2020-06-29	악보지	2					
33	2020-06-29	악보지	2					
34	2020-06-29	악보지	1					
35	2020-06-29	악보지	400					
36	2020-06-29	악보지	1					
37	2020-06-29	악보지	4					
38	2020-06-29	악보지	20					
40	2020-06-29	악보지	3					
41	2020-06-29	악보지	4					
42	2020-06-29	악보지	4					
43	2020-06-29	악보지	1					
44	2020-06-29	악보지	2					

[입출내역]

0 입고는 관리자 전용입니다.

1 출고는 소모품 수령용 직역수세금

2 반출은 반납금 수령용 직역수세금

3 반입은 반납금 수령용 직역수세금

4 사용처의 사용처를 꼭 직역수세금

2. ECO(전기)절약 캠페인

가. 캠페인의 의미

복지관 전기 절약 캠페인을 통한 전기 절약은 복지관의 불필요한 자원 낭비를 막는데 기여하고 친환경적인 복지관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으며 나아가 현 지구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특히 다중 시설인 복지관의 경우 공공 자원인 전기 사용에 대한 규모가 크고, 공공자원이 가지고 있는 ‘공공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 캠페인의 필요성이 요구 된다.

나. 캠페인 진행

복지관이 에너지 절약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원 소비 패턴 분석을 통하여 적합한 에너지 절약기법들이 적용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복지관은 일반 건물과는 달리, 각 사무실 및 프로그램, 다목적실등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건물 형태에서 전기 에너지 절약은 중앙 관리 형태의 에너지 절약 방식보다는 각 개별적인 관리 형식의 절약 방식을 적용하고 개별적인 절약 방법

을 제시함과 동시에 캠페인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수 있다.

1) 캠페인 진행 방법

전기 절약 방법을 2가지로 나눠서 캠페인을 할 계획이다.

- ① 직접적인 절약 :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제품에 절약하는 방법이다.
 - 사용하지 않을 시 전기 코드를 빼기, 일조량이 강한 낮 시간에 소등
- ② 간접적인 절약 : 전력량 감소를 통한 절약이다.
 - 에어컨 적정온도 설정, 조명기구 반사판과 유리를 규칙적으로 청소

위의 방법을 적은 전기 절약 방법에 대한 설명을 담은 홍보지를 각 층 게시판에 부착하고 캠페인을 진행한다.

III. 결과 및 제언

1. 결과

가. 공유물품 플랫폼

□ 진행과정 : 2020년 5월 1일 ~ 9월 30일

기간	5월1일	5월20일~	~ 6월19일	6월 22일	6월 30일	7월 1일~9월 30일
내용	계획	공유 시스템 구축		회의 및 수정 보완	홍보	공유시스템 활용

□ 품목 & 개수

- 헤드셋외 102종 / 1,263개

NO	품목	개수
1	헤드셋	3
2	설압자	100
3	플라스틱	4
4	노끈	2
5	3색 뜨개질세트	1
6	반짓고리	4
7	양초	4
8	향초	15
9	백합캔들	2
10	액자(하얀틀)	1
11	큰액자	5

NO	품목	개수
36	칼라튜브	1
37	D링 작은홀	4
38	O링 바인더	20
39	클리어파일	7
40	스프링파일	4
41	바구니	1
42	스파클라	2
43	리본	1
44	반짝이세트	1
45	가면	2
46	풍선불기	1

NO	품목	개수
71	두꺼운	3
72	비닐	1
73	골판지	3
74	시트지	9
75	벽지	1
76	우산꽃이	2
77	볼링핀	20
78	핑크색색지 두루마리	1
79	은뱃뚫자리	4
80	사각뚫자리	13
81	책꽃이	1

NO	품목	개수	NO	품목	개수	NO	품목	개수
12	액자	4	47	굴렁쇠	1	82	신발집게	11
13	모양틀	50	48	크리스마스 장식	1	83	향초제작용 냄비	5
14	펠트지	1	49	셔틀콕	12	84	도형라켓	4
15	셀로판지	30	50	탁구공	12	85	연만들기	13
16	한문 8칸 공책	2	51	탁구라켓	12	86	연날리기물레	30
17	쓰기10칸 공책	9	52	탁구라켓세트	2	87	수납함	1
18	알림장	36	53	클로켓	1	88	삼각대	22
19	쪽가위	8	54	단체줄넘기	1	89	4절 하드보드지	7
20	스테들러	2	55	자전거	2	90	4절지색지	7
21	사인펜	26	56	대나무채반	4	91	2절 하드보드지	10
22	색연필	15	57	스테인리스 채반	2	92	황색전지	3
23	크레파스	1	58	색깔 부직포	11	93	4절 색상지	17
24	오일파스텔	1	59	부채춤 부채	10	94	4절 골판지	5
25	형광펜	1	60	조명머리띠	10	95	폼포드	5
26	페브릭마카	1	61	할로윈 호방장식	3	96	폼포드 대	23
27	중성펜	1	62	조명초	80	97	하드보드지	4
28	찰흙도구	1	63	크리스마스 전구	4	98	4절 시트지	3
29	유성매직	7	64	크리스마스 트리장식	4	99	체형교정용	15
30	수채화	3	65	한지포장지	9	100	폼보드2	5
31	염색물감	2	66	주름지말이	5	101	5단 서류함	1
32	파스텔	2	67	컷팅매트	8	102	10단 서류함	1
33	팔레트	2	68	화선지	26	103	전자거울	2
34	미라클 물로켓	1	69	두꺼운색지	4	합계	1,263개	
35	색종이	400	70	포장지	6			

□ 사용 팀

권익옹호팀	기능향상팀	평생교육팀	한가위T.F	통합발달팀	경영지원팀	합계
2건	1건	1건	1건	7건	1건	13건

□ 사용내용

- 노끈외 12종류 / 33개

NO	품목	개수	사용처
1	노끈	1	프로그램
2	쓰기 10칸 공책	5	프로그램
3	폼포드	2	홍보용
4	전자저울	2	프로그램
5	색종이	2	프로그램
6	찰흙도구	1	프로그램
7	사각뿔자리	4	팀 연수

NO	품목	개수	사용처
8	사인펜	5	프로그램
9	색연필	2	프로그램
10	파스텔	2	프로그램
11	유성매직	2	프로그램
12	이젤	2	프로그램
13	하드보드지	3	프로그램
합계		33개	

나. 에너지 전기 절약

전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반기에 에너지 전기 절약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였지만, 비상체제 운영으로 전체 운영되지 않고 일부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2019년도 7월~8월 전기사용량과 2020년도 7~8월 전기 사용량의 비교 값이 캠페인을 통해 절약이 된 것인지 비상체제 운영으로 프로그램이 일부만 진행되어 사용량이 감소되었는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각 사무실 전기 사용량을 비교하려고 하였지만 복지관의 전기사용량이 층별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지하2층 ~ 지상 3층의 사용의 총 양으로 나와 연구사업을 진행하지 못하였다. 추후 구상한 전기절약캠페인을 보완하여 추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2. 제언

경영지원팀에서 운영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 중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연구사업을 진행했다. 직원이 사용하는 모든 사무용품, 비품, 기기 그리고 전기, 수도, 냉·난방, 유류 등 운영비가 사용되는 곳은 많다. 그 중에 사무용품으로 한정으로 연구사업을 진행하여 여러 표본이 부족한 점이 아쉽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지난 2월~10월까지 비상체제로 운영하여 2019년도에 비해 전기, 수도, 냉·난방 등에 대해 전년 보다 낮게 사용되어 2번째 연구사업인 ‘에너지절약’은 진행하지 못한 부분은 아쉽다. 하지만 운영비 절감에 대해 직원의 관심과 참여도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며,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사무용품에 대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유를 통해 나에게 필요하지 않지만 누군가에는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더 나아가 운영비 절감 부분이 나의 노력으로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준 것이 가장 연구사업의 성과인 것 같다.

2021년에도 지금 보다 운영비가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20% 삭감이 될 것을 예상한다. 그렇다면 현재 비용에서 어떻게 사용할 거 보다는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빠르게 실천방법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그리고 이용자와 함께 동참하며, 20% 삭감된 운영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20년 연구사업

발 행 : 2020년 12월

인 쇄 : 2020년 12월

발 행 인 : 김 경 환

발 행 처 : 양천해누리복지관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159

전화번호 : 02) 2061-2500

팩스번호 : 02) 2061-2525

홈페이지 : <http://www.ycsupport.or.kr>

